

KDMT1199718987

720. 9515

7 6851

工學博士學位論文

西紀 1996學年度

19世紀 濟州島 民家の 變容과 建築的 特性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Housing in Cheju-Island in the 19th century

14⁹

指導教授 金 鴻 植

明知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建築歷史 및 理論專攻

金 石 崙

19世紀 濟州島 民家の 變容과 建築的 特性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Housing in Cheju-Island in the 19th century

이 論文을 工學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指導教授 金 鴻 植

1996年 12月 日

明知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建築歷史 및 理論專攻

金 石 崙

金石崙의 工學博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主審委員



副審委員



副審委員



副審委員



副審委員



1996年 12月 日

明知大學校 大學院

韓國의 民家 계통중에서 濟州島 民家は 특이한 형성배경을 가지고 형성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주도 민가의 고유성을 밝히는 작업이다.

19세기의 韓國사회는 民家들에 변화를 가져올 많은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前世紀에서부터 이어진 상업경제의 발달과 농업기술의 발전에서 유발된 신분제도의 변동과 王權 弱화, 三政의 문란으로 봉건사회 발기적 현상을 나타낸다. 여기에 새로운 이념인 實學思想이 擡頭되었으며 이러한 시대 상황에 따라 한국의 민가에는 전반적 변화가 나타났다.

濟州島에서는 200년 以來의 ‘出陸抑制政策’이 이 시기에 해제되어 변용요인으로 추가된다.

본 연구는 이 전환기의 濟州島 民家の 變容形相에서

- 내재된 이념을 밝힌다.
- 변화의 성격을 파악한다.
- 공간 구성상의 변용형상에 주된 관심을 둔다는 관점을 설정하고 변용현상의 운동법칙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연구는 아래의 과정에 따라 전개되었다.

1章. 序論

2章. 濟州島 民家の 形成背景에서 민가의 배경이 되는 문화요소를 고찰하고

3章. 濟州島 民家에서 원 제주 민가의 성격을 파악하고 주변지역 민가를 살펴보았다.

4章. 19世紀 濟州島 民家와 시대적 상황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5章. 19世紀 濟州島 民家の 變容에서 형상과 원인을 살피고 이념을 규명하여

6章. 結論에 도달한다.

이 때 제주사회에는 토착지배 엘리트 계층이 형성되고, 독점상권을 가진 제주 상인들의 이윤추적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던 제주 민가에는 중앙의 정치적 혼란으로 行刑制인 流配가 빈번해지면서 많은 流配客들의 來島가 학문과 사상 성숙의 기회로 작용하였다. 특히 金尙憲, 宋時烈, 鄭蘊 등 유학자와 秋史 金正喜의 “實事求是” 이념이 19세기 제주 사상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의 성과인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내용과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전통적 마을의 공간체계는 폐쇄적인 성격인 반면 濟州島의 마을은 개방적인 공간체계를 가졌다. 이 개방적인 공간개념은 民家の 공간 구성에도 적용되었다. 곧 민가에서 별동 배치된 마당을 중심으로 한 건물들 사이로 외부공간이 확산되는 것과 마을에서 공공시설을 핵으로 해서 방사선형 도로체계를 갖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2. 19세기 제주도 민가에 나타난 근본적 변화는 밖거리에 「머리방」 혹은 「머리마루」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待客과 학습 전용의 남성 영역, 즉 榭廊이 先시대 제주민가에 전이되는 현상이다. 19세기 제주 민가의 성격은 「머리방」이 결정하였다.
3. 공간체계 상의 변용 형상은 성리학적 예법에 따르는 내외관념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구조와 공법 상의 변화는 實學的 建築理論이 적용된 형상이 그 내용이 된다.
4. 별동 정지형식의 이념적 배경은 古法을 理想으로 인식했던 조선시대 儒家의 성격에 따라 선택된 형식이다.
5. 19세기 제주민가의 變容 形相은 토착지배세력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양반신분이었지만 자영농을 하였으므로 禮法에 따른 명분과 生産活動에

유리한 實利性의 二重 基準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민가는 합
理性和 공간의 다양성을 공유하고 있다.

6. 19世紀 제주도 민가를 形成시킨 경제적 여유는 商業活動에 의한 것이다.
즉 18세기 후반 正祖 代에 시행된 重商主義 정책이 그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경제원리 및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적 수용욕구를 표방하는
상업주의 이념을 가지며, 육지의 농업기반에서 형성된 이념과는 대비된
다.

7. 이와같은 變容型相을 보이고 있는 19세기 제주도 민가는 또,

- 尙古主義的 性格과
- 合理主義的 性向
- 마당 中心의 求心的 空間 構成
- 力動的인 外部 空間
- 下降型 空間 位階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

目 次

國文抄錄

第1章. 序論	1
第1節. 研究의 目的 및 意義	1
第2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2
第3節. 研究對象 選定의 理由	5
第4節. 研究史	6
第2章. 濟州島型 民家의 形成과 背景	8
第1節. 自然環境	8
1-1. 地形	8
1-2. 氣候	8
第2節. 人文環境	9
2-1. 濟州島 文化의 特性	9
2-2. 家族制度	11
2-3. 濟州島의 巫俗信仰	12
2-4. 儒敎思想과 濟州島의 儀禮	13
2-5. 濟州島에서 風水說의 適用	15
第3節. 濟州島의 마을	16
3-1. 마을의 特性 考察	17
3-2. 마을의 空間體系	30
3-3. 綜合	33
第3章. 濟州島의 民家	36
第1節. 配置와 外部空間	36
1-1. 配置	36
1-2. 外部空間	36
第2節. 內部空間	37
第3節. 構造와 設備	38
第4節. 濟州島 周邊地域 民家들의 特性 比較	41
4-1. 韓半島 南部地方의 民家	41
4-2. 中國 北京 四合院 民家	47
4-3. 日本 九州 地方의 民家	50
4-4. 琉球(오키나와)의 民家	52
4-5. 濟州島 民家와 주변지역 民家의 比較	54

第4章. 19世紀의 濟州島 民家	60
第1節. 19世紀 濟州島 民家の 形成背景	60
1-1. 19세기 濟州島 社會	60
1-2. 産業과 經濟의 變化	62
1-3. 理念的 背景	64
第2節. 事例分析	68
2-1. 班家型	68
2-2. 傳統民家型	78
2-3. 折衷型	87
第3節. 分析 綜合	96
第5章. 19世紀 濟州島 民家の 變容	101
第1節. 變容形相	101
1-1. 空間體系的 變化	101
1-2. 새로운 조형 요소	106
1-3. 규모, 재료, 공법의 변화	108
第2節. 19세기 濟州島 民家の 性格	111
2-1. 尙古主義 性格	111
2-2. 內向的 空間構成	112
2-3. 外部空間의 力動性和 完結性	113
2-4. 合理的 性向	114
2-5. 下降型 空間位階	116
第3節. 變用形相과 性格 形成의 要因	117
第6章. 結 論	119
參 考 文 獻	123
附 錄	127
ABSTRACT	146

圖 目 次

(圖 2-3-1) 事例 調査 地域 分布圖(大東輿地圖 중 濟州島1861년)	16
(圖 2-3-2) 城邑마을 配置圖	18
(圖 2-3-3) 東明里 配置圖	22
(圖 2-3-4) 禾北洞 配置圖	27
(圖 2-3-5) 마을 空間構成 概念 比較	34
(圖 3-3-1) 濟州島의 民家-표선면 성읍리 한氏 家	40
(圖 3-4-1) 영암 최성호 家 平面 및 配置圖	42
(圖 3-4-2) 보성군 득량면 이식래 家 平面 및 配置圖	44
(圖 3-4-3) 南西海 島嶼地域 民家の 平面 및 配置圖	45
(圖 3-4-4) 中國 四合院의 傳統 民家 배치 및 斷面 (손세관, 1995, 80쪽)	48
(圖 3-4-5) 日本 九州 地方의 傳統民家	50
(圖 3-4-6) 日本 九州地方의 傳統民家	51
(圖 3-4-7) 琉球(오키나와)의 民家 平面(八重山 竹富島 民家)	52
(圖 3-4-8) 琉球(오키나와)의 上流民家 平面	53
(圖 3-4-9) 九州의 民家 平面圖	56
(圖 4-2-1)新村里 康氏 家 配置圖	69
(圖 4-2-2) 外部空間의 構成	70
(圖 4-2-3) 郭支里 助防將 秦氏 家 配置圖	72
(圖 4-2-4) 外部空間의 構成	73
(圖 4-2-5) 金氏 家 配置圖	75
(圖 4-2-6) 外部空間의 構成	76
(圖 4-2-7) 안거리 斷面圖	77
(圖 4-2-8) 配置에서의 變化	78
(圖 4-2-9) 城邑里 曹氏 家 配置圖	79

(圖 4-2-10) 外部空間의 構成	80
(圖 4-2-11) 新村里 曹氏 家 配置圖	82
(圖 4-2-12) 外部空間의 構成	83
(圖 4-2-13) 朝天里 黃氏 家 配置圖	85
(圖 4-2-14) 外部空間의 構成	86
(圖 4-2-15) 城邑里 高氏 家 配置圖	88
(圖 4-2-16) 外部空間의 構成	89
(圖 4-2-17) 禾北洞 金氏 家 配置圖	91
(圖 4-2-18) 外部空間의 構成	92
(圖 4-2-19) 三陽洞 姜氏 家 配置圖	94
(圖 4-2-20) 外部空間의 構成	95
(圖 5-1-1) 19世紀 濟州 民家の 空間 體系	103

表 目 次

<表 1-2-1> 研究進行 過程表	4
<表 2-3-1> 濟州島마을의 性格 比較	35
<表 3-4-1> 濟州島 주변지역 民家の 特性 比較-1	58
<表 3-4-2> 濟州島 주변지역 民家の 特性 比較-1	59
<表 4-2-1> 18世紀와 19世紀의 濟州島 民家 比較	99
<表 5-1-1> 濟州島 民家の 各部 높이 比較	109
<表 5-1-2> 각부 부재 치수 비교표	109

第1章. 序論

第1節. 研究의 目的 및 意義

주거 형태는 시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의 시점이 언제이며 변화는 어떤 계기에서 유래 되었는가는 建築史의 주제가 되며 이 변화에서의 법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建築史의 참된 기능이다.

1. 이념을 밝힌다.

변화의 가시적 현상만으로 그 법칙을 읽어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 속에 삶을 담았던 대중들의 生活方式과 이념 체계가 변화의 內面層을 구성하는 要素이다. 삶의 방식에는 생업에 관계된 생산 방식과 가족 제도와 공동생활이며 주거 습속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역사 속에 축적된 적용 방식에서 이념이 생성된다. 이념이 형태를 낳게 한다.

2. 변화의 성격을 파악한다.

변화에는 自生的 發展이 있고 民族史에서 경험한 타율적 성격의 변화가 있다. 前者는 內部에서부터 요구가 성숙되어 새로운 사조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되나 後者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현금의 우리 건축 상황에서는 自生的 發展만이 歷史的 價値가 인정될 수 있다.

3. 공간이 주제다.

건축의 변화 현상은 공간구성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총괄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축 요소로서 공간의 변화는 이념과 크게 관계되어 연속성을 가지나 구조와 공법은 가변요소이다. 또 한국 건축은 기술

분야인 물질 실체보다 공간적 관계 상황(體系)이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공간구성에서 相關關係를 밝히는 작업이 된다.

민가 연구의 목적은 역사 속에서 터득된 법칙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에 공감하는 住生活의 이상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을 수용해서 19세기에 제주 민가에 나타난 변용 형상에 대하여 총체적 이해가 전제되고 그 變化와 動機間의 상관성과 내재된 法則性 및 그 성격을 糾明하고자 한다.

연구의 성과는 제주도 민가의 정체성을 더욱 명료히 규명하는 의의와 나아가, 이 독자적 성격들이 현대적 創作에 원용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19세기로 연구 대상을 한정시킨 것과 논의 주제가 공간 체계와 이념(불변요소)에 두게 된 것은 전통성과의 연결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第2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본 연구는 19세기의 濟州島라는 時間과 空間的인 限定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變容 現象에 시각을 맞췄을 때 이 주제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출옥금지령이 解除된 시대적인 전환기였으므로 사회의 변환만큼 민가도 그 현상을 표현해 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제주도라는 장소적으로 한정된 지역의 특별한 환경 요소와 조우 현상, 이 특별한 것이라고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 원문화인 민가형식에 어떤변화가 일어났고, 그변화의 生滅의 법칙이 어떻게했는가가 본연구의 주된 관심이 된다.

그 동안 선행의 연구에서 민가 연구의 방법이 그 외형상의 실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초래되는 한계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실체와 함께 生

活樣式으로서 民家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重要하다는 것이다. 民家は 사회구조와 생활 관습에 따라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의 생업과의 관계와 가족 제도, 주거 습속, 시설 이용 방법과 공동생활을 營爲하는 방법 등 사회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내면의 현상들이 민가 분석의 틀로 설정되어야 형식과 실체를 관통하는 논리가 찾아진다고 하였다.

民家は 지역의 산물이기 때문에 普遍性에 앞서 지역적 특수성이 앞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당위성이 있다. 이 特色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比較 研究가 효율적 방법인데 이 방법이 效果的이기 위하여서는 많은 자료 수집을 선행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에 유념해야 한다.

우발적 자료에 의한 경솔한 결론이 있을 수 있고 유사한 문화가 있다고 해서 직관적 관련성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뜻이다.

본 연구는 사회 문화적 요소와 이념 체계가 공간 변용에 어떻게 영향하는가와 특히 고유한 성격 발견에 시각을 맞추어 변용 현상을 분석하는 작업이므로 19세기말에 열강의 외래 사조에 의한 변화 이전의 민가만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으며, 연구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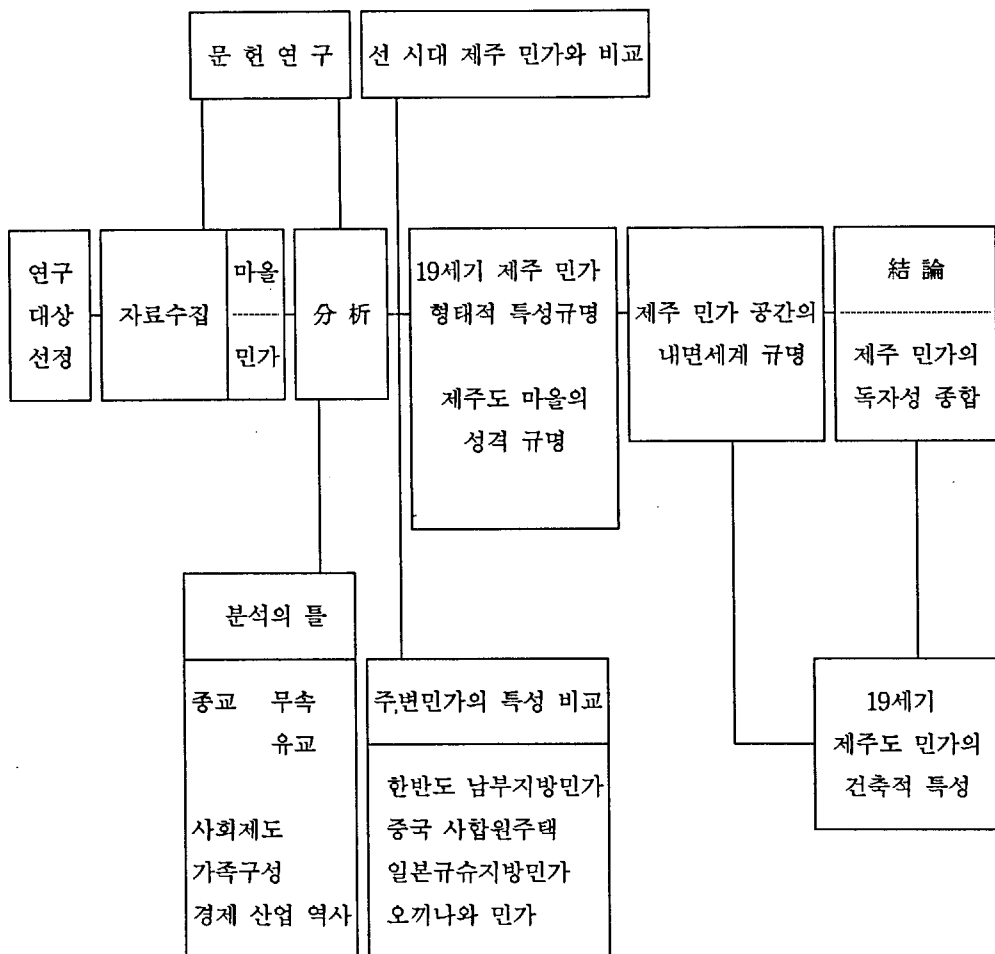
먼저 기존 제주도 민가의 특성과 이와 관계된 제반 문화 요소를 지역적 특수성의 관점에서 문화인류학과 사회학 그리고 역사의 기존 연구에서 민가와 관련된 부분을 수합하여 관련시켰다. 민가 공간의 상위 체계로서 제주도 마을의 공간구성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논문의 제3장에는 제주 민가와 주변 민가들의 특성을 비교하여 각 지역의 민가에서 공통된 성격과 고유성을 확인하여 제주 민가의 특성을 객관화시키고, 4장과 5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인 19세기 제주 민가의 변용 형상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머릿방’과 ‘머리마루’에 중점적인 관심을 두

고 그 변용 형상의 이면과 관련된 사회, 경제, 이념 분야에서 그 안에 은유되어 있는 內在律을 발견하고자 했다.

여기에서는 사례 분석을 종합하여 그 해법에 접근하게된다. 형상을 표출시킨 후 그 배경에서 관련된 근본 원인을 연관시켜 변용의 성격을 규명하고 나면 변화의 운동법칙이 구체화될 것이다.

<表 1-2-1> 研究進行 過程表



第3節. 研究對象 選定の 理由

민가와 마을, 주변 경관은 동일한 세계관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체계 속의 일부분으로 파악될 대상이다. 마을은 주거 형태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민가의 연구에 마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必須的인 절차상의 문제이다.

제주도의 마을은 그 설촌 근거와 위치에 따라 다른 성격을 지닌다. 즉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서 해안에 위치하느냐 아니면 중간 산록에 입지 하느냐와 산의 남사면이나 북사면이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계획적인 邑城 마을과 자연 취락으로 나뉘고 크기에 따라 集村과 소성집촌으로 분류된다.

연구 대상의 19세기라는 설정은 시간적인 절대 범위가 아니라 민가의 성격으로서 19세기의 시대성을 의미한다. 제주도 사회의 19세기는 仁祖 7年 이래 200년간 시행되어 온 出陸禁止令이 해지되어 인적 물적 교류가 육지 부 및 주변 지역과 가능해 지는 등 由來에 없는 이 특수한 변화가 있었고 이어서 온 19세기말의 서구화, 일본화로의 변화를 직전에 둔 시기이므로 이 민가들이 제주 민가의 발전 과정에 중요한 자리 메김에 대한 기대는 예상가능한데 선정 이유가 된다.

또, 도서라는 특별한 자연은 육지와 달리 주민들로 하여금 민가 양식의 선택의 폭을 넓히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고정화, 등질화 시키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19세기 제주 민가를 표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의 민가는 이상의 전제에 따라 조선 시대이래 제주도의 역사적 마을에 위치해 있으면서 창건주와 창건 시기가 분명히 밝혀진 중대형 민가를 선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第4節. 研究史

현재까지 제주도 민가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建築 分野

藤島亥治郎 1925年 濟州島の 建築-濟州의 住居形態와 生活을 調査 紹介.

野村孝文 1942年 朝鮮 住宅의 變遷과 概要에서 朝鮮 住宅의 特殊型으로 濟州島型을 分流.

金正基,金鴻植 1973年 濟州道 文化財, 遺跡調査報告書. 建築編에서 濟州建築의 空間과 平面構成意匠과 構造의 特性을 調査分析하고 平面, 配置에 따라 類型을 分類함.

曹成基 1983年 한國民家의 北部型과 濟州島型을 比較 建築27卷 112號에서 우리 나라 原始 民家의 兩極型으로 北部型과 濟州島型을 비교하고 濟州 民家が 機能分化가 自由스럽다고 結論.

康幸生 1985年 濟州道 안,밖거리型 살림집의 空間構成에 대한 研究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二字型 配置에서 住宅形態의 背景과 性格 및 現代的 意義를 강조.

拙稿 1986年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조선후기의 민가(와가)의 특성을 연구.

申哲河 1987年 제주도 민가의 구조 부재 특성과 비례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拙稿 1987年 濟州道の 民俗資料-濟州道の 傳統 家屋의 實測 資料

金鴻植 1992年 韓國의 民家에서 濟州道 民家 및 住生活에 대하여
총괄 정리

地理學 分野

吳洪哲 1980年 聚落地理學에서 濟州道 聚落과 住居를 地理學 側面
에서 研究.

張保雄 1981年 韓國 民家 研究에서 濟州 民家を 類型 分類하고 二字
型 配置와 삼간집이 基本形임과 南方的 要素를 強調.

宋成大 1990年 韓國 島嶼地方 草屋民家の 地域性
(경희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에서 各 도서지역 민가의
형태를 비교론을 통하여 형태적 독자성을 규명하였다.

第2章. 濟州島型 民家の 形成과 背景

第1節. 自然環境

1-1. 地形

濟州의 地形은 全 地質의 90% 以上을 이루고 있는 火山岩인 玄武岩으로 說明할 수 있다. 濟州風土錄에 ‘三邑이 모두 漢拏山 기슭이라 평지는 반도 안되고 밭을 가는 이는 생선의 뱃속을 파냄과 같고, 평탄한 듯 하나 멀리 내다보이지 않으니 오목하고 솟아 있는 때문이다’로 地形을 描寫하였다.

이러한 玄武岩의 地盤層 形成은 海岸에 이르러 더욱 優勢하여 生計 樣式과 聚落形態는 물론 文化 全般의 特性을 이루는 資源이며, 그리고 固有한 景觀 구성의 主 要素로 役割한다.

섬 전체의 地勢는 漢拏山을 中心으로 3-5°의 완만한 경사로 同心圓的으로 形成되어 있다.

1-2. 氣候

海洋性 기후 특징이 뚜렷한 濟州島의 연평균 氣溫은 섭씨 14도 7분, 가장 추운 날이라도 영하 5도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세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훨씬 춥게 느껴진다.

降水量은 연평균 1,400mm로 한국에서 多雨地帶에 속하고 이 강우는 6월 말과 7월 중순에 걸친 장마전선과 8월에 제주도 근해를 통과하는 颱風時의 폭우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바람이 제주도 기후의 특성이 되며, 暴風일수(風速10m/秒이상)가 年中 114일, 年平均 風速이 4.7m/秒, 年中 2, 3회 있는 태풍일 때는 최대

풍속이 36m/秒가 된다.

風向은 北西 및 北風이 冬節에 集中的으로 우세하다. 바람은 돌과 더불어 가장 뚜렷한 濟州文化 形成의 拘束力으로 作用했음이 住民의 意識構造 속에서도 발견되며, 住居形態의 物理的 特性은 全部 바람의 影響이라 할만큼 많다.

第2節. 人文環境

2-1. 濟州島 文化의 特性

대형 섬인 제주도 문화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島嶼로서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띄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세 가지 요인인 조상의 원리, 고립 그리고 협소성의 역할이 어떻게 작용하고 流入된 文化를 어떻게 변용 하여 고유한 문화로 정착시키는가를 살피는 방법이 상용된다.

그 첫째인 祖上의 原理에 입각해서 볼 때 제주도 내에서 한반도의 남반부와 연결되는 선사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사실에서 제주도의 조상, 즉 선 주민은 한반도로부터 건너온 移住民일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문화의 근원이 한반도임이 분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移住된 문화도 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독특한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留意해야 한다.

둘째로 濟州島 문화 형성에서 고립의 역할을 고려하게 된다. 심지어 島嶼 지역의 고립은 조선조 때는 정책으로 강화되기도 하였다. 한반도의 모든 섬들이 방어상의 이유로 空島 정책이 적용되어 주민들이 소개되었는데 반하여 제주에는 육지부로 떠나는 이주민을 막기 위한 出陸禁止令¹⁾이 발

1)인조7년 1629년부터 순조 말년인 1830년까지.

령되어 주민들은 정확히 200여년 동안 섬 안에서의 閉鎖的인 生活을 强要당하여 왔다.

이와 같은 고립은 도서민들이 외부 지역과의 물자나 정보의 교류에 제한요인이 되므로 같은 祖上을 갖고 있는 두 지역의 문화가 고립되어 지내는 동안 서로 달라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셋째로 島嶼 생태계의 특성상 가용 자원의 屬性이 타 지역에 비하여 제한적이고 특이하므로 여기의 자원을 이용하는 생계 경제의 유형 역시 독특한 양식을 띠게 된다.

생계 자원의 근원인 자연 자원은 우선 섬주변의 해역과 해발 200m이내의 농경 지대, 이 경작지를 벗어나서 해발 600m에 이르는 목야지대, 한라산 일대의 산림 지대로 대별된다.

제주도 문화의 특이성은 이 자원들을 이용하는 생산 양식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제주 島嶼民들이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인 복합적 생산 양식은 무엇보다도 조선조 사회의 강력한 가부장제를 가능케 한 육지부의 집약 농경의 생산 양식과는 확연히 구분시켰다고 본다.

중산간 지대의 광활한 목초 지대를 이용하는 목축업과 한라산의 산림을 이용하는 임업을 포함하여 농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넓은 바다를 이용하는 어업의 복합적 생계 양식이 이른바 제주도의 기층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 것이다.

또 濟州 地域은 한마디로 여성 노동력 위주의 생산 양식 체계를 이루어진 것이 제주 사회가 육지부의 사회와 상이한 문화 양상을 지니게 된 주요 기반이라 지적된다. 여성 위주의 생산 체계로 인해서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것이 男性 支配的인 家父長制的인 육지부의 사회와는 성격이 다른 즉, 남성과 여성이 어느 정도 대

등한 관계 속에 있는, 다시 말하자면 평등 사회의 속성을 지닌 제주 사회를 가능케 한 요인이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주 문화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島嶼的 환경에의 적응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생산 양식과 관련되어 생성된 특수형 지역 문화로서 첫째, 限定되고 狹小한 社會에서 이루어지는 相互간의 緊密한 커뮤니케이션을 通하여 形成되는 均質性을 띤 省略型 文化로 표출되며, 둘째, 環海性으로 인하여 새로운 文化가 流入되는데도 障礙가 되지만 一旦 流入된 文化는 變化의 刺戟에도 障礙로 作用하므로 要素들이 沈澱 固着된다. 그러므로 傳統文化의 原型을 維持시켜 왔다. 셋째, 限定된 資源으로 高度로 強制된 自給 生活을 營爲하여야 하므로 자기 완결성 문화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2-2. 家族制度

가족 제도의 차이는 이것을 住居形態와 관련 지워 볼 때 의미가 있다.²⁾ 곧 가족 구조의 차이만큼 주거 형태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가족 제도가 육지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1971년의 조사 보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제주도의 民家에서 가족이 부부 가족인 경우 夫婦와 그들의 子女로 구성된 가족일 때는 육지부와 차이가 없으나 長男이 結婚하여 三代家族이 되었을 경우 육지부에서는 家長인 父가 사랑방을, 主婦인 母가 안방을, 그리고 子息夫婦가 건넌방을 占有하는 것이 實例였다.

제주도의 경우는 父母가 안거리를 그리고 子息夫婦가 밖거리를 占有하였고, 結婚式 후 신부가 媿家에서 別途의 취사를 할 수 있기 전에는 媿家에

2)이규목 역,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1985, P.94

오지 않고 媿家에 큰일이 있을 때에만 잠시 와서 일을 거들어 주고 그날 친정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炊事를 媿父母와 별도로 할 수 있게 된 이후에 媿家에 온 며느리는 自己 男便과 子女들만을 위하여 취사하고 일한다.

父母 중 母가 먼저 死亡하고 父만 생존할 경우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하지만, 달리 父가 먼저 死亡하고 母만 있을 경우에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하여 식사 준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곧 여자는 개개가 獨立된 炊事 單位가 되므로 자식 부부와 부모가 별개의 부역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倉庫와 심지어 논과 밭까지도 따로 소유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가족 제도는 양친 부부가 자식 부부와 더불어 한 가족을 구성하되 두 世代의 부부가 각각 별채를 점유하고 別途의 財産을 所有하고 취사 단위를 달리하다가 모친이 사망한 때에만 父가 자식 부부와 共通炊事 집단을 형성한다.³⁾ 이와 같이 稀有한 가족 제와 상관된 주거 형태가 안·밖 거리형 집이라 呼稱되는 것이다.

2-3. 濟州島의 巫俗信仰

民族의 集團 思考 行爲의 방탕은 무속 신앙이다. 이것은 오랜전통속에 종교라기 보다는 生活樣式의 一部로 흡착되어 文化의 저변을 형성시켜 온 支配的 思想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추구했던 이상은 가장 원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人間 生活의 모체가 되는 住居와는 특히 密接되어 共存하고 있다. 濟州島의 무속은 아직 原型데로 殘存하여 住居 生活에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內容과 形式이 육지부와 다른 데에 注目의 여지가 있다.

곧 그 內容은 성스러운 곳과 세속적인 곳으로 구분하고 주거의 각부분마

3)李光奎, 한국 가족 구성의 분석, 일지사, P.30

다 신격을 부여하는 등의 원시종교의 보편성을 가짐은 물론 神 出現 方式이 地中 湧出과 神의 水平的 來訪 信仰이 濃厚한 점⁴⁾으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世界觀은 空間觀 形成에 관련되는 것이며, 濟州島 巫俗의 神堂이 山頂이 아니라 오목하고 에워싸여진 곳에 위치한 것과 집자리 역시 오목한 곳을 선택하는 관념 등에서 濟州民의 意識에 잠재된 空間觀을 논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실 제주도 경관의 두르려 진 성질은 수평선이다. 사면으로 바다가 둘러 있고 한라산은 높다기보다 넓은 산, 女性, 母性의 山으로 인식하고 있다. 작은 산들은 대개가 봉우리가 없어 無頭岳이라고 불리고 이것은 제주도의 상징어가 되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가장 높은 하늘에 사는 大神이 최고신이라는 관념은 濟州 巫俗에서 발견되지 않는다.⁵⁾ 바다 저 멀리에서 해마다 來訪하는 神의 관념은 水平性에 대한 敬畏 관념을 형성시켰다. 이러한 관념은 장소 의식이나 조형 의식과 연관된 성격이다.

2-4. 儒敎思想과 濟州島의 儀禮

조선 왕족의 건국 이념이었던 儒敎는 그 영향력이 향촌 사회까지 전파되는 조선중기 이후에는 양반뿐만 아니고 백성들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조 民家の 정체를 파악하는 데에도 이 儒敎의 根源인 禮에서 論據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濟州島도 역시 朝鮮 建國初부터 濟州, 大靜, 旌義의, 三縣으로 行政體系

4) 玄容駿, 濟州島 巫俗 研究, 集文社, 1979, P.219

5) 上搗書 P.223

가 정비되고 鄉校를 設立하여 儒敎의 指導理念아래 유교 교육이 보급된다.

그러나 이 理念이 島嶼 環境에 적응하는 過程은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이 예측된다.

李重煥이 擇里志에서 “天下에서 가장 좋은 것은 士大夫이다. 그 士大夫라는 이름이 없어지지 않음은 옛 賢人의 法道를 잘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士이던, 農, 工, 商이던 막론하고 士大夫의 행실을 實現하려면 마땅히 禮가 아니면 할 수 없고 禮는 부가 없으면 이를 수가 없다.” 하였는데 이 禮를 갖출 富의 바탕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 섬의 제반 여건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도서 환경과 妥協된 문화 형태로서 祖上崇拜와 部落 信仰전반에 男女別 二重的 儀禮 구조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조상숭배에 있어 남성은 臨終에서 大祥까지 儒法에 따르고 주부는 별도로 巫俗的 供養 儀禮를 치른다.

마을祭에서도 男性들의 유교식 醺祭와 주부의 마을 당 굿이 있다. 이렇게 병존하면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외형적으로 二重 信仰 構造로 보이나 內面으로는 雙方 결합된 민간신앙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중구조는 비단 제주도에도 국한된 형상이 아니고 한민족 문화의 공통된 고유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소이다.

儀禮에서 陸地部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四禮便覽’의 儀禮 規定을 따르고 있다 하나 婚禮에서 陸地에서 重要視하는 尊雁, 交拜, 合巹의 禮가 없고 대신 禮狀 전달로 略式化되어 있으며, 新婦家の 役割이 능동적이고 男女間, 사돈간의 社會的 隔離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儀禮가 略式化 되어 있고 여성의 지위가 확대되어 있다는 지적이다.⁶⁾

곧 經濟的 기반이 絶對的인 儒敎的 兩班 文化는 상당 부분 內容에서 보

다 形式의 차원에서 限定 收容되어 있는 것이 濟州島의 儒風이라 할 수 있고 ‘君子憂道 不憂貧’의 물질 輕視的 儒學 본연의 價値觀이 濟州島 儒風인 名分을 強化시키는 공통된 바탕이 되고 있다.

2-5. 濟州島에서 風水說의 適用

韓半島에서 獨自의인 風水論이 發達 定着 할 수 있었던 것은 山이 많은 老年期 地形이라는 與件에서 그렇다. 濟州島의 경우는 半島와는 다른 地質과 地形을 가졌으므로 당연히 風水論의 適用에 혼란이 예상된다.

地形은 漢拏山頂을 中心으로 한 완만한 동심원상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 寄生火山들이 따로 따로 놓여 있어서 산줄기와 골짜기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形局論의 적용은 관념적이 되어 사람에 따라 다른 多人多論이다. 물론 이것은 형국론 적용의 일반적 현상이기는 하다.

경계 요소인 山水가 明確하지 않아서 局이 열린 곳이 稀少하므로 裨補論에 따라 사상의 허한 쪽을 구조물로 裨補해서 四相을 갖추게 된다.

防邪塔을 쌓거나 나무를 심는 것과 숲을 형성하는 사례가 많다. 제주시의 탑동이라는 지명은 방사탑이 있었던 곳에서 由來했고, 梨湖洞, 新昌里, 龍水里, 海岸에 防邪塔이, 연평동, 명월리, 남읍에 마을 숲이 있다. 朝天里의 ‘戀北亭’이라는 제주도 유일의 亭子 건물도 裨補塔으로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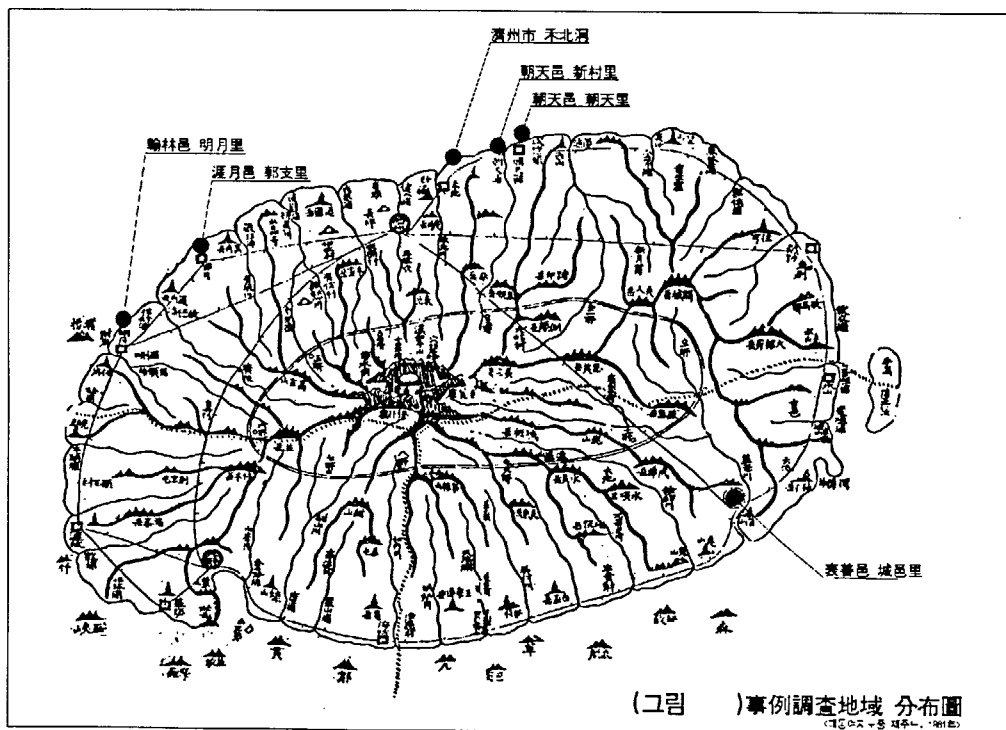
집터 잡기에는 산의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운세에 따라 曆書의 연신方位圈에 따라 方位를 정한다. 곧 ‘陽宅三要’를 適用하여 주인과 여자 주인의 生年月日時에 따라 집의 坐向을 정하고 門, 廚, 庫, 上, 下水와 厠의 方位를 결정한다. 이처럼 裨補法을 상용하는 것과 方位를 地勢나 地

6) 崔在錫, 濟州道の 親族 組織, 일지사, 1979.

脈 또는 視界向의 기준에서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運勢와 상관시켜 해석하는 현상은 風水論이 理論이나 思想이라기보다 도참적인 說로서 巫俗과 습합되어 原始宗教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第3節. 濟州島의 마을

제주도 마을은 지질의 특수성에 따라 地下水가 해수면 가까이에서 湧出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食水 源泉의 확보와 방어적 필요에 의해서 마을의 形態와 성격이 결정되었는데 식수원 때문에 마을은 集村 형식을 이룬다. 본 章에서는 위치와 設村 내역에서 특성이 대조적인 세 마을의 성격을 정리하였다.



(圖 2-3-1) 事例 調査 地域 分布圖(大東輿地圖 중 濟州島1861년)

3-1. 마을의 特性 考察

3-1-1. 邑城마을(南濟州郡 表善邑 城邑里)

(1) 마을의 自然, 人文環境

성읍리는 제주도의 동북쪽인 表善邑內가 있는 해안선에서부터 산 쪽으로 8km나 떨어져 올라간 山間 마을이다.

조선조는 태종 16년(1416년)부터 漢拏山을 기준으로 山北은 濟州牧으로 하고 山南은 兩分하여 旌義縣, 大靜縣으로 三分하여 統治하게 된다.

원래 旌義縣은 성산읍 고성에 있었으나 海岸에 가깝게 있으므로 방어상 불리하므로 다시 세종 5년(1423년) 縣制의 실시 불과 7년만에 縣廳 소재지를 이곳 성읍리로 옮겨졌다고 1914년 旌義, 大靜, 兩縣이 폐지되기까지 5世紀 여간 縣廳 소재지였던 역사(歷史) 고을이다.

(2) 風水論의 解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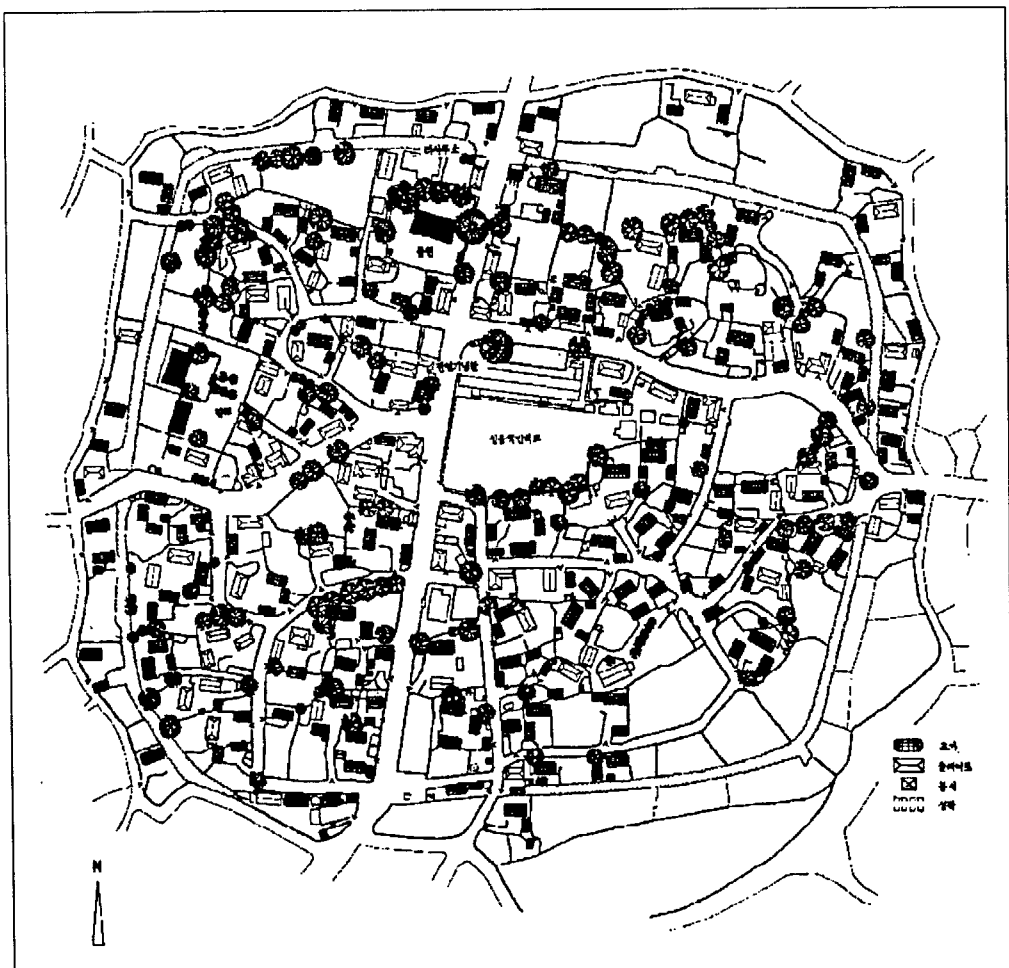
이 마을의 形局은 行舟形과 將軍對坐形局의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 旌義 고을은 한라산을 조산으로 영주산을 진산으로하여 남산봉을 안산으로 상징하고 川尾川이 반달형으로 휘감아 도는 곳에 자리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한라산과 남산을 잇는 동서를 축으로 한다.

行舟形으로 해석할 경우는 닻은 남산봉에 해당하며, 키는 이곳 산자락에 자리하며 돛대는 마을의 老巨樹가 役割을 擔當 한다. 상징적 뱃머리는 서북을 향하며, 배의 고물은 남산 쪽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우물을 파는 행위는 배밑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고 해석한다.

(3) 空間의 配置와 軸

邑城의 가장 보편적인 T字 모양 배치에 있어서 머리 부분에는 行政官衙

建物を, 심장 부분에는 象徴的인 官衙 建物を 배치한다. 여기에서 머리가 東軒이 되고 심장 부분은 客舍에 해당되며, 향교는 허파의 위치가 된다. 다리 쪽으로는 南大門을, 양팔 쪽으로는 東西 大門을 설치하고 이들이 만나는 동헌 앞 한마당이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고 주민 상호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市場이 된다.



(圖 2-3-2) 城邑마을 配置圖

성읍리는 철저한 幾何學的인 計劃에 의해 設計되었으나 지형에 따라 약간 變形 시공된 읍성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며, 正確한 測量에 의해 施工 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도시 기능에 우선하여 防禦 目的 이 더 컸고 상징적 형태로 구성된 마을이다.

(4) 마을 안길

읍성에서는 보통 사람이 서 있는 것을 形象化한 T字 모양이 많이 이용 된다. 城邑里의 경우는 성곽 안은 T字形 이다. 여기에 활꼴 셋길을 만들고, 막힌 길 手法인 올래를 두어서 해결하면, 마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집들이 배치된다.

出入口의 처리는 길에 면한 집은 짧은 올래 방식을 써서 대부분 大門間 을 두고 안채를 진입 축에서 비켜 앉히며, 길에서 안쪽에 있는 집은 긴 올래 방식을 써서 대문간을 두지 않는다.

성곽 밖으로 등근 고리형 길을 내고 성안에 T字로 길을 낸 것은 城內에 必要없는 通過 交通을 보내지 않겠다는 計劃의 意志이고, 地形에 따라 같은 높이로 길을 내어야 平坦하므로 길은 자연히 지형에 따라 구부러져서 變化하는 視空間의 技法이 얻어진다.

(5) 집터 잡기

縣衙의 건물들은 정남쪽 軸線에 맞춘 게 아니고 15° 서쪽으로 돌려서 癸坐丁向으로 배치되었다. 건물의 坐向은 지형에 따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즉 旌義邑城의 正南은 아심선이 언덕의 약간 서쪽 등선이 이에 해당하고 트인 경관을 갖는 수구는 동쪽으로 15~30° 에 있다. 따라서 뒤에서 맥이 흘러 들어오는 입수와 트인 경관을 가진 수구에 축을 맞춘다면 오히려 동

으로 기운 壬坐丙向을 하는 게 마땅한 자리다. 그러나 癸坐丁向을 해서 아심선이 봉우리 서쪽 둔덕을 바라보도록 배치했다.

建物の 配置는 坐로 진입(바깥채)의 축을 잡고 向으로 사는 사람(안채)의 축을 결정한다. 안산은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좌우에 비껴 두며, 대개는 조산의 8부 능선을 향한다. 아무리 빼어난 조산이라도 정면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관아 건물인 東軒·內大門, 外大門은 모두 같은 축을 맞추고, 客舍도 역시 같은 방위로 앉히지만, 鄉校는 脈이 서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坐를 서쪽으로 하고 東으로 向하게 한다. 따라서 향교는 남산을 조산으로 삼는데 남산이 약간 남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正東으로 향하지 않고 남으로 약간 기운 申坐乙向을 하고 있다. 향교의 배치는 일반적으로 明倫堂과 大成殿을 앞뒤로 놓는데 여기서는 垞地가 거의 평지에 가까우므로 左右로 배치해서 같은 향을 하고 있다.

民家の 配置는 안거리와 밖거리가 二字型으로 竝列 配置한 것과 모로 앉은 집 두 가지가 있다. 안거리의 方位는 정남향이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는 동쪽과 서남남이 약간이다. 모로 앉은 집은 밖거리의 방위가 안거리와 90°를 이룬다. 안거리가 南向이면 밖거리는 東내지 東南이 된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東西로 가로놓인 집이 많다는 것이 된다.지형은 서북이 높아서 동남으로 완만히 흐르고 있으므로 南向 혹은 東南向을 하게 되는 것이다.

3-1-2. 縣村마을(北濟州郡 翰林邑 東明里)

(1) 마을의 自然 人文環境

① 位置

명월리는 濟州島 北西쪽 翰林邑으로부터 한라산 쪽으로 약 1.5km 지점,

경도 126도15분 내지 17분 사이 및 위도 33도 21분 내지 23분 사이에 자리 하며 좌향은 북방이다. 명월리는 남쪽으로 괴수풀, 넓게 해변 쪽으로 남동 네로 불리는 동네가 합쳐서 하나의 마을을 이룬다.

남동네에는 명월 성지가 있고 넓게 동네에는 명월대를 중심으로 팽나무 군락이 약 500m 정도 늘어서 있다. 마을의 範圍는 넓게는 해발57.5m에서 82.5m사이에 民家群이 들어서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乾南川이 있는데 내의 상부인 남쪽으로는 평소에 마른다 하여 乾南川이라 했다고 한다.

명월리는 다른 마을과 달리 中山間地帶인데도 불구하고 水流村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곳에서 湧泉水가 나오고 있다. 문수동의 문수물, 넓게의 영기정물과 짐수내물, 남동네의 조물 등이 그것이다.

② 마을의 來歷

남동네는 고려 원종 12년(1271) 김통정 장군이 명월포에 상륙하여 명월 토성을 쌓으면서 군사의 요새지가 되었고 충렬왕 26년(1300) 제주에 동서 현을 두면서 명월현이 설치되어 제주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중심지가 된다.

조선 인조 원년(1545)에는 명월성 서쪽에 서학인 월계정사를 건립하여 地方 子弟의 교육을 담당하는 敎育 中心地로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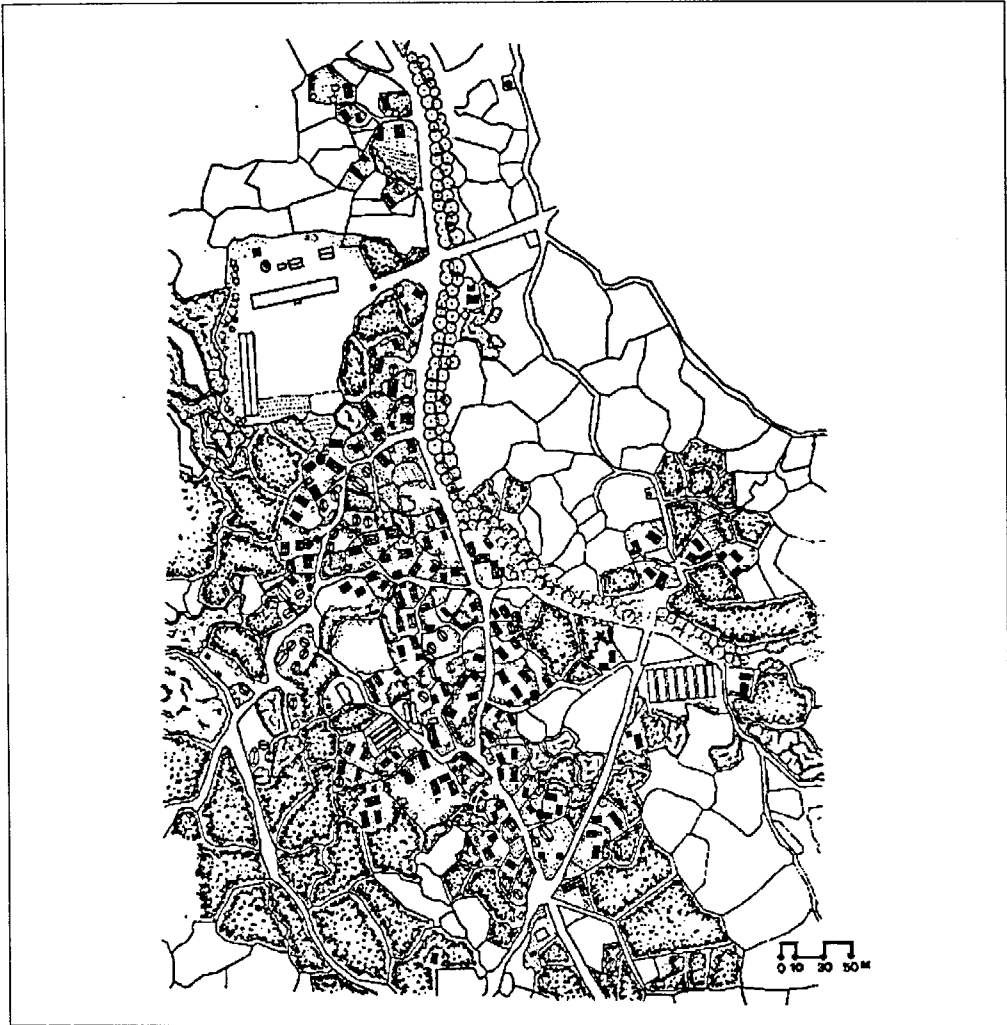
구한말까지는 명월현과 명월진, 명월소가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의 統廢合에 따라 명월리가 되었다. 18세기 이전까지는 명월리가 제주 서부 지역의 行政 中心地였었다.

明月里에는 약 500여년전 탐라 고씨가 남동네 명월성에 거주하다가 中宗 5年(1515)목사 장림이 명월성의 土城을 木城으로 고치면서 명월성 서쪽으로 移住 했고, 그 다음 진주 진씨가 지금의 하동에 입주하게 되었다. 이후

넓게 마을에는 군위 오씨가 들어와서 중동의 주성을 이루게 된다.

(2) 마을의 空間構成

① 마을터 잡기



(圖 2-3-3) 東明里 配置圖

마을은 북판에 내가 흐르고 팽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이 내를 따라 진입

로가 북쪽으로부터 설정된다.

마을의 초입에는 냇가름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배치되고 마을 중앙에는 널따랗게 넓게 마을이 놓인다. 또한 일부가 마을 동남쪽 꼬트머리에 장옷질 가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넓게와 냇가름 가운데 언덕배기에 初等學校가 있다. 마을은 乾川인 내를 따라 기다랗게 마련되며 크게 3무더기 가름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물이 솟아나는 위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陸地의 마을 터전은 背山臨水가 전형이지만 여기서는 비록 한라산과 작은 오름이 남쪽으로 있긴 하지만 이것을 등지고 배치되진 않고 주위가 아늑한 굴렁진 장소에 배치되며 물이 가까운 냇가를 따라서 마을이 형성되고 있다.

마을 주위에는 耕作地가 둘러 있고 텃밭이라고 한다면 집안에 우영이 마련된다. 특별히 마을 뒤는 林野이고 마을 안에는 밭이 있으며 마을 앞은 경작지가 펼쳐지는 육지와는 다르다.

背後地 역시 육지에서 마을 뒤에 자리잡지만 여기서는 사방으로 마을들이 겹치기 때문에 배후지가 멀리 남쪽으로만 설정되며 자연 信仰의 對象인 堂이나 酬祭壇도 마을 안에 자리한다. 말하자면 육지의 마을 空間概念은 前後의 개념을 가지고 앞에서부터 뒤로 성, 속의 공간 틀을 지니지만 제주에서는 중심으로부터 放射形으로 중심에 마을의 精神的 支柱空間과 公共空間을 두고 사방으로 住居地와 耕作地, 멀리 背後地가 위치하고 있다.

② 道路의 體系

이 마을 역시 제주의 中山間 部落으로 일반적 형식인 고리형 배치 방식을 보이고 있다. 즉 마을 한복판을 중심으로 열십자를 긋고 마을을 서쪽과 동쪽으로 배치한 다음 마을 周圍로 반지 모양의 안길을 돌리는 것이다. 따

라서 그 모양이 한자의 申字 같으며, 마을 외부로는 사방으로 연결된다.

③ 建物の 配置

마을의 중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회관은 넓게 마을의 초입에 있는데 원래는 냇가름의 향사에 있던 것을 1969년에 옮긴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원래 연자매가 있었고 들판이 놓였던 점으로 미루어 본래부터 여기가 마을의 중심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醯祭壇은 원래 마을 입구에 있었었다. 醯祭가 원래 유교에서 유래한 것이고 대개는 마을 뒤 背後地에 配置하는 것이지만(성읍리의 경우 확실하고 알 수 있다)여기서는 儒敎的이라기보다는 巫俗的인 느낌이 강해서인지 마을 안에 자리하고 있다.

住宅의 坐向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背山臨水라는 개념이 稀薄하고 또한 중심에 대한 공간 개념이 강하다. 濟州島, 특히 북제주에서는 方位에 대한 概念이 약하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굴렁진 주거지 안에서도 집안에 들어서면서 차츰 육지처럼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내려가는 空間 概念이다.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향은 남서쪽으로서 마을의 30%정도를 차지한다. 그러한 이유는 내를 따라 흐르는 언덕을 등지면서 남쪽으로 약간 틀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配置는 동이나 남동쪽인데 이 둘을 합치면 3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이곳이 굴렁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을 서쪽으로 다른 하나의 언덕 줄기가 지나고 있다고 봐야 하며 이것에 등을 기대고 位置하면 이런 배치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서향의 집도 꽤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의외로 남향집이 없는데 이는 등줄기가 있다고 하지만 주

로 남북으로 흐르기 때문이며 또한 옛 風水地理에서 정남향을 꺼리는 俗信에서 관계한다. 정남은 임금이나 관공서에서나 쓰는 방위라는 것이다.

북동쪽 집이 거의 14% 가까이 되는데 서북향은 없다. 이는 겨울의 강한 북서풍을 의식한 配置概念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남동쪽의 집이 남서쪽의 집의 숫자보다 적은 이유도 여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1-3. 海岸마을(濟州市 禾北洞)

(1) 마을의 自然 人文環境

① 마을의 내력

濟州 市街의 중심에서 동으로 6km에 위치한 禾北洞은 口傳에 따르면 지금부터 약 800년 전에 현재의 ‘富錄 동네’에 吳씨와 玄씨가 설촌하여 살다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과 경작할 땅의 조건이 좋은 ‘巨老동네’로 내려와 마을을 형성하였다가 약 400-500년 전에 속칭 ‘새간목(일명 새가름목)’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부록’ 서남쪽의 속칭 ‘큰터왓’에 살던 李씨가 300여년 전에 식수와 해산물을 얻기 쉬운 현재의 화북 포구 서쪽으로 옮겨와 살았다는 것이다.

1853년(효종4년)에 발행된 耽羅誌의 水戰所條에 보면 朝天浦와 涯月浦는 제주도(濟州島)에서 중요한 방어 시설이었다.

포구에 後風館이 있다고 했다. (탐라기년, 1918년, 金錫翼)에 따르면 禾北鎭이 축성되고 조방장을 두게 된 것은 1678년(肅宗4년) 崔寬 목사 시절이었다는 것이다. 그 후 1736년(英祖12년) 8월에는 金정 목사에게 의해 화북포 방축을 쌓아서 뱃길을 원활히 했고 또 1820년(純祖 20년)에는 韓象默 목사가 海神祠를 화북 포구에 세웠다.

이에 앞서 1702년(肅宗 28년)<耽羅巡歷圖>상의 ‘禾北城操’는 당시 화북포구와 화북진 성, 그리고 ‘別刀浦里’라는 진 주변 마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화북진 안에는 ‘喚風亭’이라고 보이는 정자와 몇 채의 집들이 성 북안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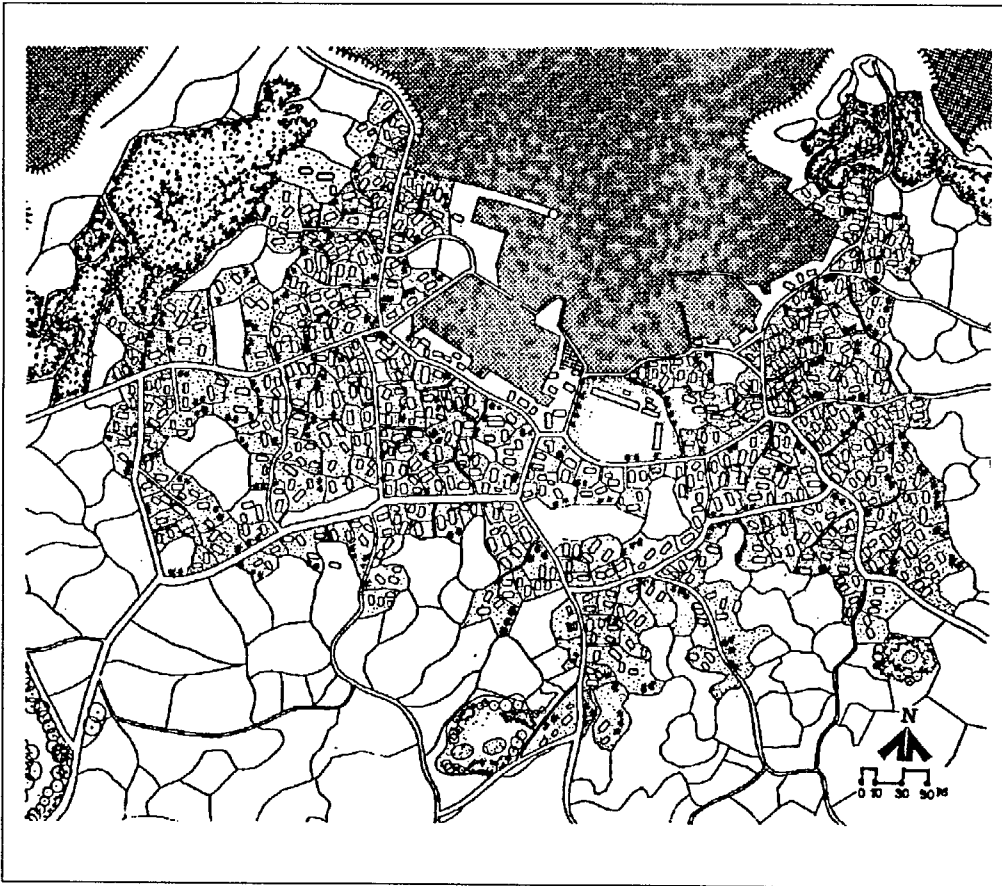
1404년에는 金海金氏 永承이 내란을 피하여 巨老에 은거했다. 같은 김씨 金寬 역시 1647년(仁祖 25)목사로 도임 하는 조카 金汝水를 따라와서 화북에 정착한다. 이어 1650년(孝宗 1)에는 淸風金씨 金素가 副司果의 벼슬로 제주에 다니러 왔다가 그 아들 聲海를 화북에 남겨 두고 떠나 제주 入島祖의 뿌리가 되게 한다. 이에 앞서 1592년(宣祖25)에는 礪山宋씨의 입도조 宋楠이 壬辰倭亂에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두고 내려와 화북리에 정착하며, 같은 성씨의 遇弘도 그 훨씬 후인 1705(肅宗 31)에 제주로 들어와서 화북에 정착한다. 居昌愼씨의 明麗가 丁卯倭亂의 전화를 피해 入島, 禾北에 낙향한 것은 1628년 (仁祖6)이었다.全州李씨 承文은 1519년(中宗 14)己卯土禍에 연루되어 화북리에 유배 정착되며, 이에 앞서 1416년(太宗 16)에는 延州玄씨의 思敬이 제주 목사로 왔다가 임기가 끝난 후 거로에 정착해 버린다. 다시 1753년(영조29)에는 密陽朴씨의 泰鎬가 신개지의 꿈을 안고 제주에 들어와 화북리에 정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이같은 입도 성씨의 정착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禾北洞은 제주성 인근의 신 개척지로서 선망의 마을이었다.

(2) 마을의 空間構成

① 마을 터잡기

禾北洞은 조선조이래 濟州牧의 外航의 役割을 가진 浦口마을이므로 제주도에서 몇 안되는 代表的인 大型 集村 마을이다.

낮은 구릉이 팔을 벌린 形局으로 만을 가운데 두고 양측으로 곳이 북쪽 바다로 뻗어 나가 작은 自然 浦口를 만들었으므로 예로부터 육지부와 뱃길이 열렸던 것이다.



(圖 2-3-4) 禾北洞 配置圖

분지의 중앙에 옛방어 시설인 禾北鎭이 마을의 핵이 된다. 둘러진 구릉 안 분지가 마을이 경계였으나 너머로 점차 擴張 되었다. 이 진이 있던 자

리를 기점으로 濟州牧과 다른 方向으로 바다 쪽을 제외한 方向으로 放射形 도로가 뻗어 있고 분지 안에 민가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다. 19세기 이래 300호를 넘는 도시형 마을이었다.

제주도 地形은 해안에 연접하여 발달한 현무암 암반 층을 가졌다. 이곳에 식수로 쓸 만한 地下水가 湧出되고 바람이 가려지면 마을 자리가 되는 것이다.

마을의 주위로는 경작지가 있고 바다는 제주도에서 다른 성격의 생산 터전이 된다. 그러므로 空間體系를 概念的으로 도식화하면 바다가 있어도 같은 同心圓的 개념이 될 것이고 단지 육지 쪽은 배후지가 연료림이나 조상의 墓地가 된다.

대형 마을이므로 세 개의 가름 단위가 나뉜 공동체로 마을이 운영되는데 마을의 정자나무가 있는 청풍대나 동산이 가름의 구심점이다. 가름마다 마을 祭인 酬祭壇을 운영하며, 漁業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당하므로 원이라는 원시 공동어로 시설도 나타난다.

원은 개라고도 하는데 해변의 일정 구역에 돌담을 2m내외로 쌓아올려 밀물에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되면 그 안에 가두어 놓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장치해 둔 곳을 말한다. 이 시설은 공동으로 補修 維持하고 漁獲을 공동 分配하는 경우도 있다.

가름마다에는 碾子磨가 공동 시설되고 샘물도 가름마다 別途이며, 공동 연료림이나 굶은 물통과 家畜의 번과 共同 牧場을 비롯하여 船着場도 가름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가름의 境界는 집의 입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명확하지 않다. 곧 울타리가 연접한 경우더라도 다른 가름이 되는 것이다. 이 가름은 마을 단위의 공동 행사에는 有機的 관계로 하나가 되어 더 큰 공동체가 된다.

② 道路體系

구심점인 禾北鎭을 중심으로 濟州牧으로 통하는 길은 가장 큰길이고 주변을 향하여 다른 쪽으로 放射形 도로가 나는 것은 산간 마을의 경우와 같다. 단지 地形이 平地가 아니고 해안 마을이므로 불규칙한 것 같은 道路體系를 지나 자세히 보면 비슷한 크기의 블록으로 큰길이 계획되고, 사이로 막힌 마을 안길 형식으로 動線을 해결하고 있다.

중산간 마을보다 密集된 空間體系를 가지므로 막힌 골목길이 더 많이 발달되어 한 골목에 15餘戶 이상의 民家가 접한 데도 있다.

③ 建物の 配置

마을의 中心 施設은 鎭이 있었던 곳이다. 鎭城이 현재도 남아 있어 학교, 파출소 등 公公用度가 계속되고 있고, 연결하여 公公시설이 있었다.

醕祭壇은 가름 단위로 가름 경계밖에 접하여 우묵한 곳에 터를 잡는다.

浦口에는 1820년에 세운 海神祠가 있고 牧으로 통하는 동구밖에는 비석 거리로 善政碑가 즐비하다.

민가는 큰 골목 안에 큰집이 자리했고, 세기말에 와서는 큰길에 접하여 제주 민가의 드문 예인 기와집이 여럿 나타나기 시작한다. 別棟 正지의 대형 민가가 많다. 民家の 向을 漢拏山 北斜面 마을이 공통적 선택인 東南, 西南이 단연 優勢向이 되고 마을 양끝 곳의 안쪽에 南向을 할 수 있는 地勢가 되어 있다.

마을의 생업은 농어업과 포구를 이용한 牛馬와 기타 특산물을 수출하는 상업이 생성되었으며, 부녀자의 수공업이 성했고 큰길에 연결하여 가게도 나타났으나 1920년에 일제가 濟州港을 개발하게 되면서 平凡한 해변 마을로 변해 갔다. 그러나 住民의 進取的인 성향은 여전하다.

④ 公共施設

가름의 중심인 정자나무가 있는 淸風臺와, 가름마다의 샘물과 남녀별 浴泉, 船檣, 원등 생리 시설 및 종교시설인 醺祭壇이 가름 단위로 보수, 관리 운영되었다.

3-2. 마을의 空間體系

3-2-1. 마을의 立地

우리 나라의 마을은 들판을 앞으로 놓고 뒤로 산을 등진 산기슭에 배치하는데 산자락에 둘러싸인 우묵한 곳에 자리잡고자 한다. 소위 背山臨水의 원칙에 의한다.

제주의 마을은 작은 산들이 육지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전형적인 風水地理說이 적용된 것 같지는 않다. 左靑龍, 右白虎의 盆地地形 地勢와 坐向을 살피긴 하되 오히려 方位 概念에 의해 구성된 陽宅論을 일찌감치 신봉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地質的 特性으로 인한 식수의 해결과 生利가 마을의 立地를 결정하는 重要因子로 작용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濟州島는 壬亂, 丙亂을 겪지 않는다. 대신 朝鮮初期까지는 倭寇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제주성지까지가 침략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것에 대한 對備는 마을마다 많은 準備가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전국에 중앙 중심의 진관제도를 실시하면서 제주 역시 군 현을 해안으로부터 內陸 안쪽으로 들어와서 배치한다. 城邑이 그 좋은 예인데 성산 고성에 있던 현청을 해안에 근접해 있어 방어상의 문제로 인하여 식수의 사정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치로 옮겼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주계획의 사상은 민간 마을에도 적용되어 상당수의 마을이 물이 좋은 해안을 떠나서 中山間地帶로 옮긴다. 이것을 웃드리 마을이라고

하는 것인데 생수가 나는 명월 등 몇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봉천수에 의지해야 하는 마을 입지에 대단히 불리한 조건인데도 내륙으로 마을을 자리했다. 이것은 그만큼 왜구의 피해가 極甚했다는 사실의 反證이기도 하다. 제주도 역시 壬亂, 丙子の 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대체로 마을의 설촌은 이때 이루어진다.

朝鮮初 태종, 세종 연간에 완전 統合된 이후 처음에는 군 현에 해당하는 도시만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다가 朝鮮半島가 온통 전란에 휩쓸린 다음인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주에는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移住하면서 육지의 발달된 농법의 流入과 함께 지금 남아 있는 큰 마을들의 틀이 짜여진다.

육지에서의 18세기 마을 계획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農業生産力の 擴大로 말미암아 集姓村을 완성하고 마을 안쪽에 배치되던 주된(宗家) 집이 마을 앞으로 나서며, 마을 안에 亭子를 짓는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집성 촌을 찾아보기 힘들며 주된 집의 出現도 육지처럼 두드러지지 않는다.

集姓村이 발달할 수 없었던 것은 마을 입지의 主要 要素인 食水가 한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傳統的인 相續制度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長子 위주의 相續이 아니기 때문에 外家와 親家가 同等하게 대우받고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享有할 수 있었으므로 長子 중심의 宗家가 별반 중요치 않았고 더구나 집성 촌이란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 몇몇 巨族들이 科擧를 통해서 비록 末端職이나 官僚 組織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자 이같은 가치관은 차츰 흔들리고 陸地와 類似한 長子 中心의 思考와 마을 안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姓氏 集團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3-2-2. 마을의 形成과 空間體系

제주의 공간 이용 개념은 굴렁진 곳에 마을이 자리잡고 경작지는 마을

주위를 빙돌아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의 自然條件이 육지와는 달리 뚜렷하지 않은데 起因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마을의 중앙에 정자나무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를 배치해서 마을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마을에 집터를 잡는 方式 역시 육지처럼 일정한 전형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육지는 마을 내부에 權力構造上 일정한 位階가 있고 또한 일정한 계획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제주는 상당히 近代的이고 自由로운 配置計劃에 입각한다고 생각된다.

마을 공간의 복판에 배치된 정자나무로부터 방사선으로 뻗어 나간 길의 가장 안쪽에 주된 집들이 배치되었고, 큰길가에는 규모가 작은 집이 배치되었었는데 차츰 社會가 안정되고 經濟的인 富가 蓄積되어 가면서 19세기에는 길 앞쪽으로 큰집들이 나서는 傾向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집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과 거의 맥을 같이하고 있다.

3-2-3. 마을의 公共施設

- (1) 정자나무, 台
- (2) 샘물(여자들의 모임터)
- (3) 醕祭壇
- (4) 堂(神堂)
- (5) 研子磨
- (6) 물통(牛馬用 飲水 웅덩이)
- (7) 마을 共同林, 共同牧場
- (8) 船檣-船着場
- (9) 원담(原始採取 漁業 施設)

3-3. 綜合

제주도는 地質이 다공질 현무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지와는 달리 물이 귀하다. 해수면에 이르러야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곳이 分布되어 있고 대부분의 개천은 비가 그치면 말라 버리는 乾川이며 여느 때나 물이 흐르는 내는 몇 군데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안 지방이나, 물이 마르지 않는 개천이나 못이 있는 중산간 지대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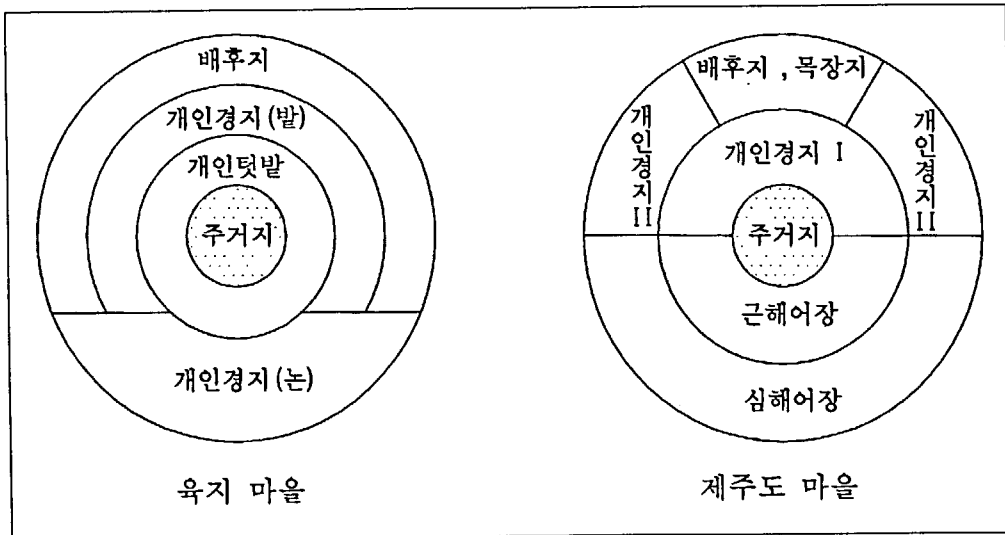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생과 耕作地가 가까운 중산간 지대에도 部落이 형성되었고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 드물었으므로 자연히 부락이 커졌다.

風多의 기후 특성에 順應하여 마을은 대체로 盆地 안에 자리잡되(앞에서 언급한 그런 조건을 갖춘)背水가 잘되는 좀 높은 곳에 자리잡았다. 그러나 지형이 육지와 달라 風水에 따르는 局形性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주도 마을의 기틀은 대체로 三百年 전쯤에서 五百年 전까지의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는 조선왕조 초기에서부터 壬辰倭亂이나 丙子胡亂이 일어난 시기에 해당한다.

제주도 마을의 큰 特徵은 모두 混姓部落으로서 그 家口 수효가 육지의 것에 견주어 많았으며, 婚姻도 부락 안에서 혼케 이루어졌으므로 부락 사람들은 서로 親家나 外家로 친척이 되기 때문에, 마을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地緣 單位이면서 血緣集團이 되어, 강한 사회적 결속력을 가졌다. 가구 수가 많으므로 마을은 가름 또는 동네라고 불리는, 集團機能을 가진 공동체 사회로 구분되어 우물이나, 연자방아 같은 시설을 共同으로 運營하고 모든 사회적인 행위(품앗이 등)가 地域單位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10寸 안쪽의 친족 집단과 여러 親睦契로 結束되어 있다.

空間體系는 지형이 본토와는 달리 火山 活動에 의한 현무암 지질로 색다

른 현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한국 특유의 典型的 배치 형식인 背山臨水의 圍繞된 공간감을 이루고 있지 않다. 특히 해안 마을에서는 이 원칙을 발견하는데 많은 混亂스러움을 경험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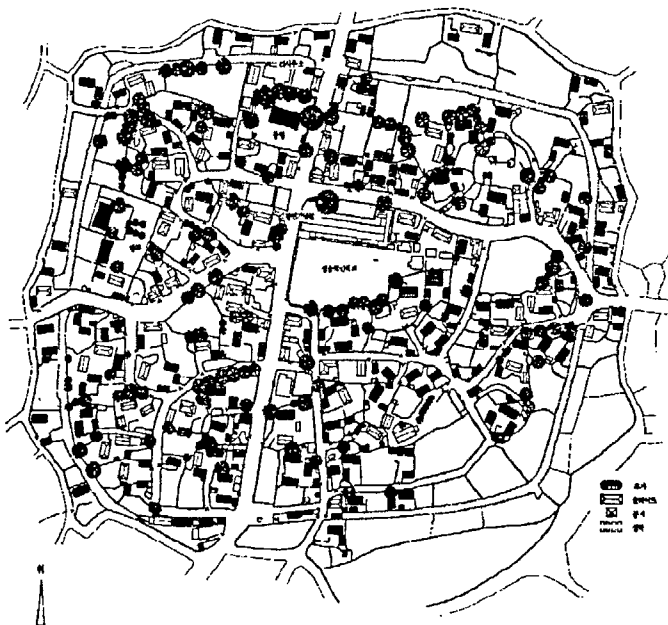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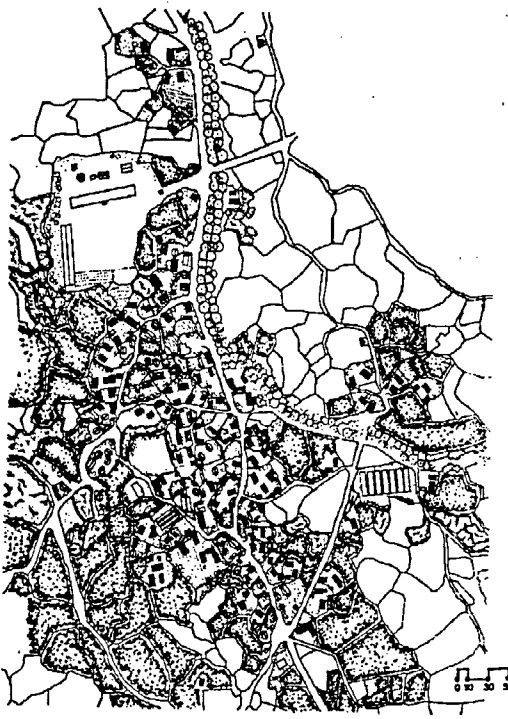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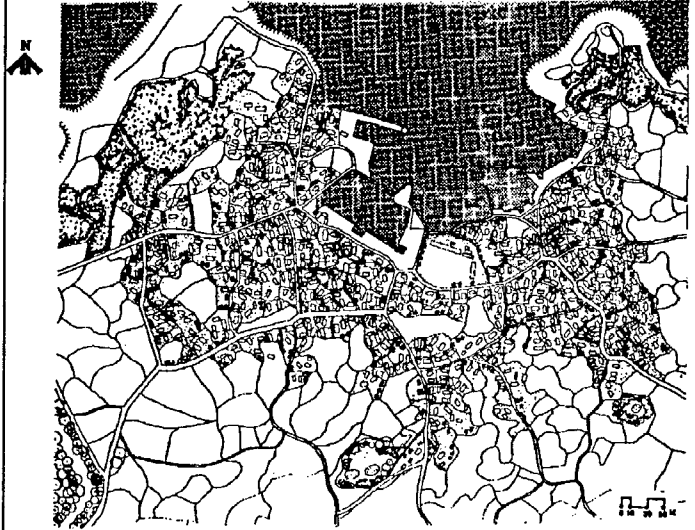
(圖 2-3-5) 마을 空間構成 概念 比較

길을 내는 방식은 環狀形과 放射線 道路 방식이 합쳐진 형식이며, 작은 길은 울래형을 채택하고 있다. 서로 교차하는 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특별하다. 이 背景은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 이념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제주 지형이 육지와 달리 산세가 뚜렷하지 않으나 작은 골짜기와 동산이 많으므로 길은 등성이를 따라 내던지 등고선을 연이어 가며 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때 집자리는 풍다의 기후 衝擊을 해결해야 되므로 능선의 아래쪽에 자리 잡게 되고 地形의 마루를 따라 설정된 도로가 휘고 구부러지고 맞교차하는 경우가 없게 됨은 당연하다. 육지의 마을에 비하여 개방적인 공간 체계를 보이는 것이 제주 마을이다.

<表 2-3-1> 濟州島마을의 性格 比較

· 事例調査 세 마을의 比較要約

名 稱	表善邑 城邑里	翰林邑 明月里	濟州市 禾北洞
配置圖			
마을의 性格	行政, 防禦 목적의 計劃聚落	行政 목적에서 自然聚落으로 성격이 轉移	自然聚落에서 交通據點 취락으로 成長
마을의 位置	中山間	中山間	海岸
立地 特性	風水論에 따른 局이 形成된 곳	얕은 盆地	浦口(단)에 連接한 圍繞地
立地 概念	象徵的	象徵的 발생에서 實利的으로 轉移	근본이 實利的으로 구성
空間 體系	관아중심, 기하학적	개방적	開放的인 空間體系로 느슨한 위계
道路 形式	T자형, 環狀形	방사선, 環狀形	그물망형
마을의 生業	牧畜爲主 농업	農業爲主	商業, 手工業, 農業, 漁業
마을의 性向	官僚的 形式主義	士林的 名分追求	近代的 實利主義
구성민가의 特性	도시형 官僚들의 民家와 田園型이 복합	여유있는 대지의 田園型 民家, 開放的	밀집대지, 도시형 민가, 높은 울타리로 閉鎖的.
其 他			

第3章. 濟州島의 民家

第1節. 配置와 外部空間

1-1. 配置

제주도의 민가는 주위 지형보다 낮은 곳에 石牆을 두르고 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二棟 내지 三,四棟을 各各 따로 떨어져 마주 보게 배치한다. 이것은 바람이 많고 강한 기후의 제약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이며 ‘마당 공간이 농어물의 건조장과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위에 여름철의 서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通風이 講窓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분동이 이루어 졌다.’⁷⁾고 본다. 그러나 이미 분동은 한국민가의 고전 형식인 것이다.

1-2. 外部空間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터를 먼저 잡고 나면 마을길에서부터 집까지 자연히 긴 ‘올래’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게 나 있으면 집안으로 바람이 들기 쉬우므로 출입에 불편치 않을 만큼 휘어져야 한다. 짧은 경우에도 꺾임은 마찬가지로 여서 출입 視線에 직접 露出을 피하게 되는 效果도 얻게 된다. 마당은 作業空間 외에 各種의 家庭儀禮와 酷暑期에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生活공간이고, 분동 배치된 各棟의 사이사이를 필요에 따라 배분된 ‘늘굽’⁹⁾, ‘우영’¹⁰⁾, ‘통시’¹¹⁾ 등의 공간으로 출입하는 통로의 중심이며 ‘안·밖 거리’를 적절히 이격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

7) 吳洪哲, 聚落地理學, 敎學研究社, 1985.

8) 올래-진입로의 俗稱

9) 늘굽-낮가리를 싸는 장소의 俗稱

10) 우영-菜田의 俗稱

11) 통시-養豚厠間의 俗稱

외부 공간에서 특이한 기능을 가진 곳은 ‘안뒤’이다 이곳은 안거리 내부를 통해서만 出入이 가능하도록 다시 石牆으로 隔離되어 장독대와 巫俗神인 ‘뱃칠성’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다. 주로 果樹나 대나무를 植栽하여 그늘 지도록 한다.

第2節. 內部空間

내부 공간은 겹집으로 ‘村屋之制 深廣幽深’¹²⁾이라 묘사되어 있다. 깊고 넓어 으스스하다는 것이다. 3칸집이 일반형인데 ‘상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에 ‘난간’¹³⁾을 거쳐 앞에는 마당과 후면으로는 ‘안뒤’로 연결된다. 이곳은 우물 마루로 되어 있고 천장은 연등천정이다.

상방이 한쪽은 부모들의 큰 ‘구들’¹⁴⁾이 있고 뒤에 ‘고팡’¹⁵⁾이 붙어 있다. 고팡에는 주로 곡물이 저장되는데 뒷간까지 포함하는 넓은 면적과 위치로 보아 備蓄에 重要な 價値를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바닥은 우물마루, 천장은 제물반자이며 통풍을 위한 최소한의 개구부를 설치한다. 반대쪽은 자녀들의 방인 작은 ‘구들’과 ‘챗방’이라 부르는 식사 전용 공간이다. ‘챗방’은 ‘정지’로 통하는데 이곳은 한 칸 전부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이다.

취사 燃料를 농업 부산물인 조나 보리대를 사용하므로 우천시에 대비한 연료의 보관과 작업장의 기능도 겸하게 된다. 전면으로는 마당으로, 후면으로는 장독대가 있는 ‘안뒤’와 연결되는데 ‘정지’가 別棟으로 분화된 경우도 있다.

전후좌우로 뒷간을 두어서 전후면의 것은 농산물의 일시 보관소로, 측면

12)金淨 ‘濟州風土錄’ 中 16세기

13)‘난간’-뒷마루의 俗稱

14)‘구들’-온돌 설비가 된 방의 俗稱

15)‘고팡’-수장공간의 俗稱

의 것은 ‘구들’에 채난을 위한 공간인 ‘굴목’으로 쓰고 風雨時에 主공간을 雨浸으로부터 완충시킴에 유리하다.

平面형태는 철저히 一字型으로 일관되며 採煖과 취사 연료가 分離되어서 ‘안방+부엌’의 구성 단위인 他地方 民家와 달리 ‘챗방’이라는 식사 전용 근대적 기능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평면을 한 또 한 채의 주거 단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二字型으로 배치된 것이 濟州 民家の 기본형이라는 주장이다.¹⁶⁾

第3節. 構造와 設備

架構는 거의가 平五樑의 앞뒤에 퇴기등을 세워 2高柱 7樑의 構造로 정면은 3-4칸 규모이고 지붕의 하중이 육지 住宅의 3樑 혹은 5樑 構造의 部材에 부담되는 하중보다 작으므로 부재의 斷面積이 작으며, 또한 이것은 現地の 온대 樹林에서 採取된 활엽 수종의 材木(槐, 山櫻, 槲)을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木骨軀의 외부에 自然石을 흙여물로 뒤를 채운 난층쌓기로 추녀 밑까지 防牆처럼 쌓아 올려 雨侵을 막는다.

집높이가 낮고 이에 비해 奥行이 두터우므로 光線이 制限되어서 幽玄한 공간이 되었으며, 外形比가 端重하다. 안거리와 밖거리가 높낮이의 위계가 없는 것도 바람 때문에 선택된 실리적 국면으로 보인다.

지붕은 茅(새)로 펴서 덮고 같은 재료를 새끼 꼬듯이 어울려 동아줄을 만들어 格子形으로 짜서 처마끝 橫木에 고정시킨다. 풍토록은 ‘人居皆 茅茨 不編鋪地積上 而長木結壓之...’라해서 古式으로는 몇 줄의 동아줄을 성기게

16)張保雄, 韓國民家研究, 寶晉齋, 1981, P.168

꼬아서 사이사이에 긴 나무를 꿰어 지붕을 늘렸다고 했으므로 동아줄로 격자로 묶는 방법을 쓰게 된 것은 그 이후에 정착된 방법이다.

지붕의 물매는 약하고(약 20'), 지붕 마루가 없게 한 것은 바람에 대한 배려였다. 깊은 터에 높이를 낮게 해서 조개 껍질같은 지붕들이 밀집된 것이 제주 민가의 경관이었다.

이와 같이 濟州의 民家は 粗惡한 기후와 특이한 가족 구조로 인하여 한국 민가의 공통적 특성인 비대칭, 균형 배치와 유교 규범에 따른 성별, 신분별, 영역 분화와 권위적 표현 구성과는 무관하게 구심성을 가진 別棟배치로 世代간 위계가 없는 非儒敎的이며 실리적 구성 내용을 가지고 정착되어 왔었다.

(1) 온돌

‘굴묵’이라 불려지는 濟州形 온돌은 허튼 고래형의 古式온돌이다. 방밀에 꼴을 파서 구들장으로 덮고 여기에 연료를 밀어 넣어 불을 집히는 것이다. 風土錄에는 ‘號品人外 無溫突 掘地爲次噴之以石 其上以 土泥之如突狀既乾 寢處其上’했고, 여지승람 濟州牧 風俗條에 ‘且多茅屋細民無竈突寢處於地’이라 했음을 보면 16세기까지 온돌이 보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봉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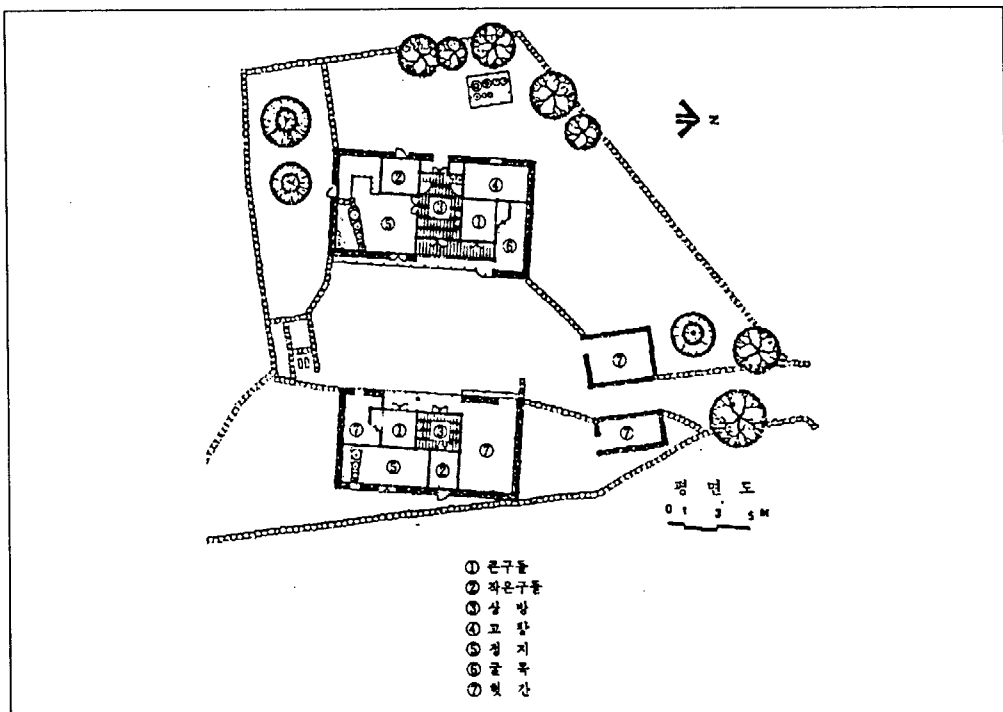
一名 ‘부섭’이라고도 한다. 상방의 중앙에서 뒷문 쪽에 돌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마루틀에 끼워 설치한다. 상방의 채난용으로 주로 활용되나 제사 때의 조리용으로 또는 관솔을 피워 조명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일본 민가의 ‘이로리’와 관련시켜서 주목되는 설비이다.

제주도 민가의 공간 체계는 3分 構成이다. 이 성질은 한국민가의 일반적

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제주에서처럼 확실하게 설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즉 길에서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몸체까지의 도입부인 ‘올래’, 몸체, 그리고 안거리의 뒤에 울타리로 폐쇄된 안뒤 공간으로 크게 성격이 구분된다.

이때 안거리와 밖거리는 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마주해서 二字로 병렬 배치되며 두 건물간의 이격거리가 되는 마당의 폭은 적정치가 선택되어 공간 밀도를 형성한다. 이때 두 건물은 같은 높이로 계획되므로 位階가 생성되지 않는 평등한 공간 개념이 성립된다.

이렇게 구성된 공간 체계는 몸체 주변의 ‘우영’밖으로 다시 돌담 울타리를 둘러서 켜가 증가되므로 마당의 중심성이 강조되고 있다.



(圖 3-3-1) 濟州島의 民家-표선면 성읍리 한氏 家

제주도 민가의 건축 특성을 정리하면,

1. 중국의 四合院주택에서처럼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 배치의 별동형 배치형식이다. 이 성격은 제주 민가의 祖上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제주도 민가는 3칸을 기본으로 한 일자형 겹집이 일반형이다.
3. 안거리, 밖거리가 규모, 높이, 재료 사용에서 공히 위계성이 없다.
4. 공간 체계는 수평적으로 변화가 많고 수직적으로 제한적이다. 즉 민가공간에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임의 선적인 전개 과정에는 격임, 맞닥뜨림, 휘어짐, 트임, 에워 쌓임의 다양함이 경험되지만 수직적인 긴장감의 생성이 없는 것이 제주도 민가의 공간 특성이다.
5. 규모와 구성 형식에서 신분 계층과 경제적 여유에 따라 나타나는 격차가 현격하지 않는 것이 제주 민가의 특성이다.

第4節. 濟州島 周邊地域 民家들의 特性 比較

4-1. 韓半島 南部地方의 民家

(1) 內陸地域의 民家

전통적인 마을의 입지는 風水論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전형적이다. 즉 지형이 뒤로 큰산을 업고(玄武), 좌(靑龍) 우(白虎)로 산이 둘러 있어 분지형을 이루면 風水에서 局이라 한다.

이러한 분지는 防禦上 유리할 뿐만 아니라 앞쪽으로는 개방되어 마을의 日照에 도움이 되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겨울의 찬바람을 막아 준다. 마을 進入路인 큰길은 동구 밖으로 지나가고 동구는 막힌 듯 트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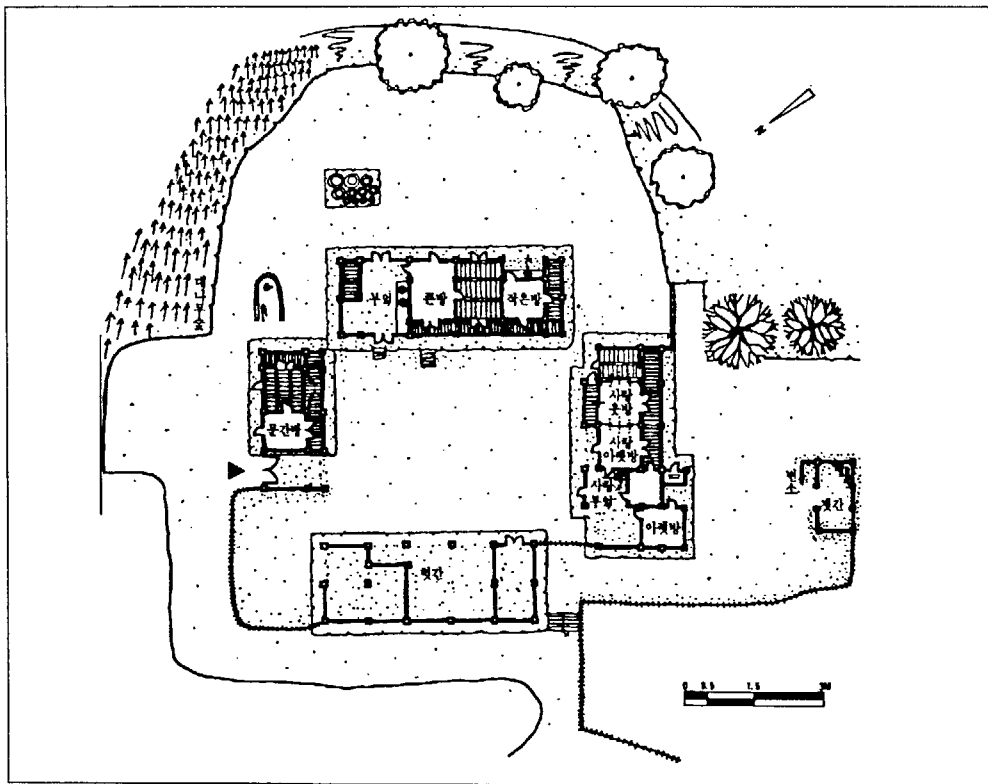
마을을 둘러싼 산은 마을의 燃料林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墓地 공간이 되기도 한다.

마을 주위에는 텃밭이 있고 동구밖에 펼쳐진 들이 주로 논으로서 주된

耕作地가 된다. 마을밖 丘陵地에 堂을 배치하고, 마을안 정자나무가 모임의 구심점이 된다.

집자리도 이와 같은 개념에 따라 작은 局의 열린 곳을 선택한다. 집들은 서로 대문이 마주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길도 교차로가 생기지 않도록 丁字로 형성되게 하는 것이 전통적 기법이다. 이러한 전통을 지켜 온 남부 지방의 민가 형식을 그 대표적 사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서 제주 민가와와의 관계를 추적해 본다.

①영암 최성호 家(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294-1)



(圖 3-4-1) 영암 최성호 家 平面 및 配置圖17)

17)金鴻植, 韓國의 民家, 한길사, 1992, P.412

이 민가는 19世紀末에 지어진 남도 富農의 민가로 안채, 사랑채, 헛간채, 문간채 등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口字로 배치되어 있고, 사랑 마당이 별도로 分化되어 있다.

안채는 一字型으로 正面이 4間の 規模이며, 칸살은 부엌, 큰방, 대청, 작은방 순으로 구성되었다. 前後에 退가 있는 2高柱 5梁 집이다.

사랑채는 正面 5間に 前退가 있는 건물로 1高柱 5梁의 架構이며, 자연석 허튼 쌓기의 높은 基壇으로 축조되어 있다.

진입은 고샅의 끝에서 헛간 벽을 타고 사랑채의 進入은 정면으로, 안채는 반대쪽으로 右回하여 안마당으로 진입이 誘導 된다.

②보성군 득량면 이식래 家(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강골마을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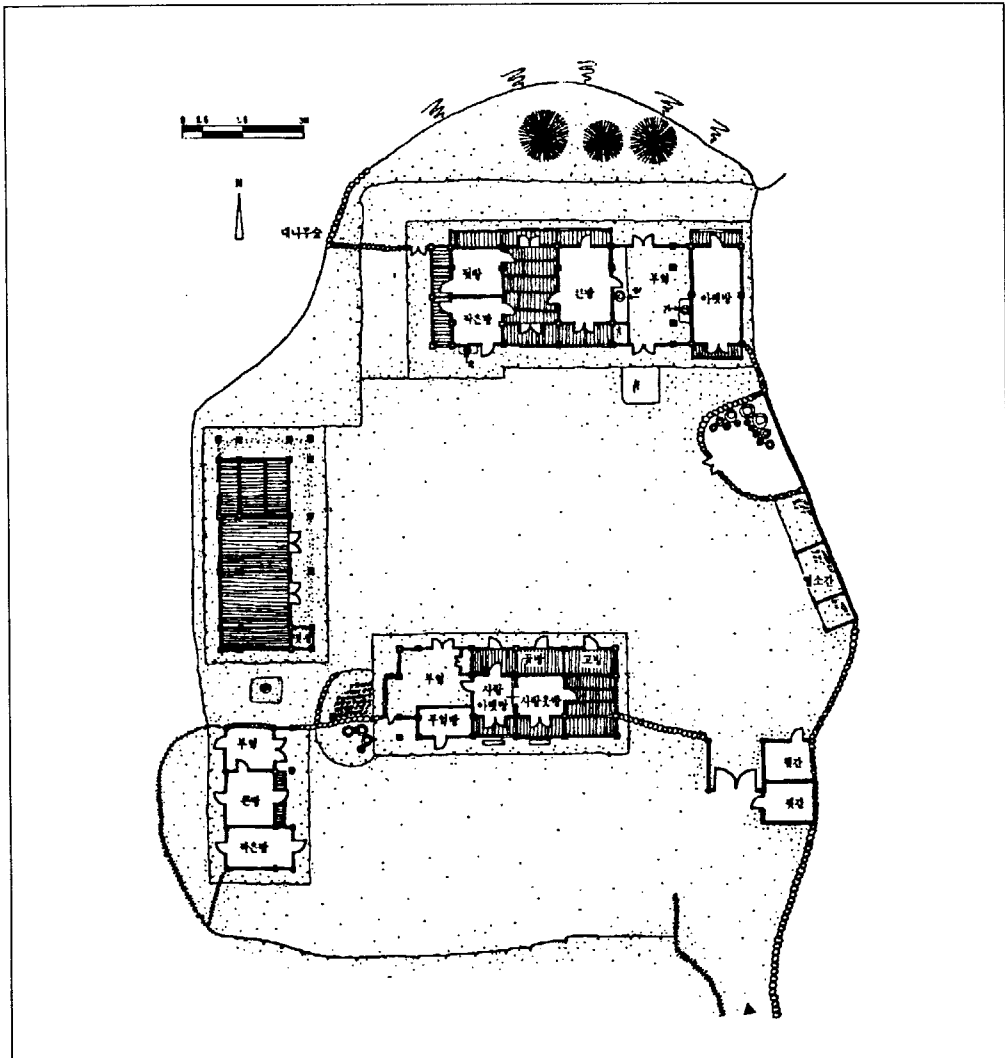
1891년에 지어진 이 집은 긴 고샅으로 進入한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中心軸에 약간 빗겨 나서 二字로 배치되어 있다. 한쪽은 곳간채가 동향이고, 동쪽은 출입문이 달린 장독대가 있다.

안채는 正面 5間の 前後에 退가 있는 우진각 초가집으로 머리에 뒗마루가 있고, 작은방과 뒷방 다음 대청-큰방-부엌-아랫방 순으로 칸살이 되어 있다.

構造는 2高柱 5梁 架構이며, 뜰 둘이 두벌 대 높이로 자연석 바른층 쌓기로 되어 있다. 뒷방(부엌방) 모서리 기둥에서 경계까지 안담장을 쌓아 집의 안 뒤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고 개방적인 평면 구성이다. 사랑채는 正面 4間の 前後에 退가 있는 瓦家로 부엌-사랑아랫방-윗방-대청순으로 배치 되었다.

부엌 앞에 부엌방이 위치하고 側退는 봉당이 되며, 構造는 2高柱 5梁 집이다. 광채는 3間に 前後退 집으로 우진각 골기와 지붕이다. 大門間은 맞

결 2間에 맞배지붕의 草家이고, 행랑채가 사랑채 앞에 살림집으로 만들어져 일종의 외거노비가 寄居하는 호지집으로 사용되었다. 사랑 마당이 고살에 이어 있고 마당 모퉁이로 진입하도록 대문이 치우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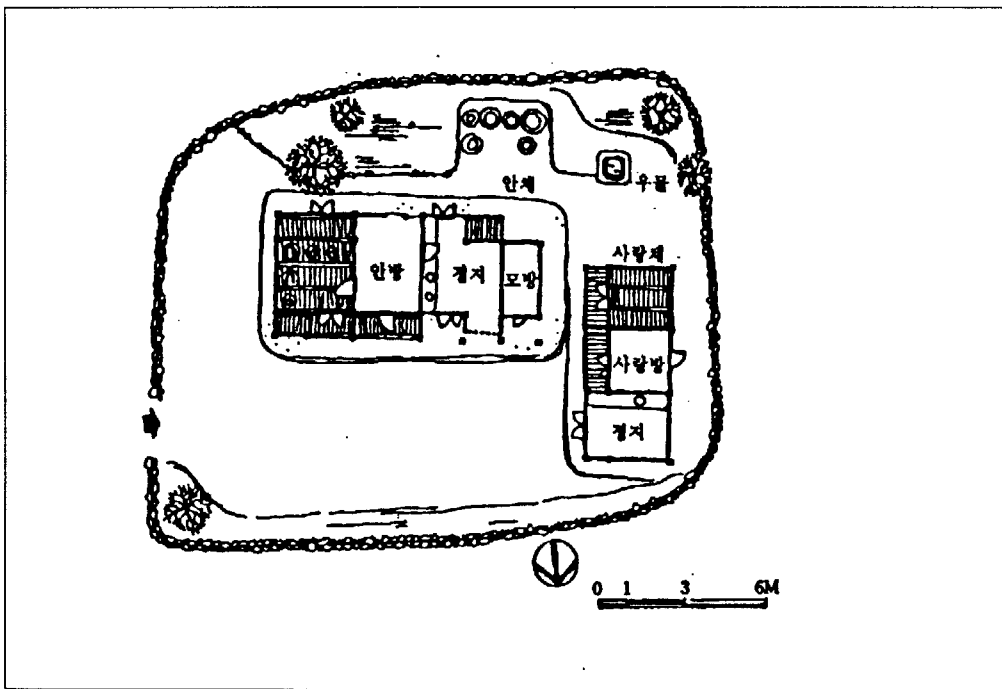
(圖 3-4-2) 보성군 득량면 이식래 家 平面 및 配置圖¹⁸⁾

18)金鴻植, 韓國의 民家, 한길사, P.259, 1992.

(2) 南西海 島嶼地域의 民家

島嶼地域의 民가는 濟州島와 비슷한 自然環境을 갖고 있는데서 比較 考察의 의미가 확대된다.

섬의 聚落은 평지의 生成이 어려운 때문에 대부분 背山臨海의 입지 논리에 따라 丘陵地에 集村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상례이다. 물론 이때에 지리적인 선택으로 農地와 食水가 가까이 있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게 된다.



(圖 3-4-3) 南西海 島嶼地域 民家の 平面 및 配置圖

오랫동안의 空島政策에 따라 섬이 비워 있다가 19世紀를 기점으로 육지의 離農 人口가 流入되어 生成되는 것이 小島嶼地域의 사회이다. 이때 入

島人들의 성향은 性理學的 생활양식에 이미 습착되어 있는 인물들로 볼 수 있다.

민가의 공간은 대지 면적이 制限的이기 때문에 안채, 사랑채 및 부속 건물과 마당, 텃밭의 외부 공간과 돌담장으로 에워싸인 單純 構成이며, 안채는 안방, 정지, 마래가 기본인 3間 構成이다.

안방은 건물의 중앙에 정지와 마래의 사이에 위치한 중심 공간으로 부부 침실, 식사, 가족들의 모임, 접객 등 多用途로 쓰이고, 정지는 취사와 난방 외에 실내 작업 공간으로 쓰인다.

마래는 이 지역 島嶼 민가를 특정지워주는 공간이다. 건물의 측단부에 위치하여 수장 공간의 역할과 조상의 神位를 모시는 祭禮空間의 기능이 겸해지며 이곳의 종도리에 上樑文을 쓰는 등 象徵 空間이 된다.

모방은 정지문의 전면 모퉁이에 위치하며 자식들 거처나 손님방으로 쓰인다. 모방과 같은 용도의 갓방이 있고 고방은 곡물 저장용으로 텃마루 끝에 설치한다.

건물의 배치는 안채와 사랑채를 튼 ㄱ字型으로 배치한다. 사랑채는 향에 연연하거나 동선에 관계없이 垞地의 條件이 허락하는 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 보아 實用 爲主의 계획을 하고 있다.

평면은 一字型 홀집 계통으로 전면에 퇴가 놓여진 4칸이 지배적인 分布를 보이며, 우진각 지붕으로 이엉은 벗짚을 사용한다.

조악한 섬의 기후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육중한 돌담장과 낮은 집높이로 한정된 공간을 운영하는 속에서도 조상숭배의 제례 공간을 영속시키고 있는 것은 島嶼民의 정신세계를 은유적으로 대변하고 있다.¹⁹⁾

19)김지민, 19세기 남서해 도서지역 민가의 평면유형 비교, 역사연구, 1992, P.49-66

4-2. 中國 北京 四合院 民家

四合院이란 용어는 네 동(棟)의 건물이 가운데의 마당을 둘러싸고 있다는 의미인데 漢代(BC.202 - AD.220) 이후에 일반화되어 온 中國의 住居觀이 완전하게 반영된 주거의 형식이다.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공간구성은 거친 외부 조건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極大化시키며 주택 내부에는 풍요로운 자연을 담는다는 사상이 담겨 있으며, ‘둘러싸여진 낙원’을 만든다는 동양 문화권 주택의 기본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사합원이란 용어 자체가 네동의 건물이 중정을 둘러싼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마당을 중심으로 주변이 건물로 에워싼 口字型的 공간구성이 사합원의 기본 구성이다. 四棟의 건물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으면서 남쪽에 면하는 건물이 正房, 동. 서 좌우의 건물이 廂房, 그리고 길에 면하는 바깥쪽의 건물이 道傍 또는 倒座房으로 호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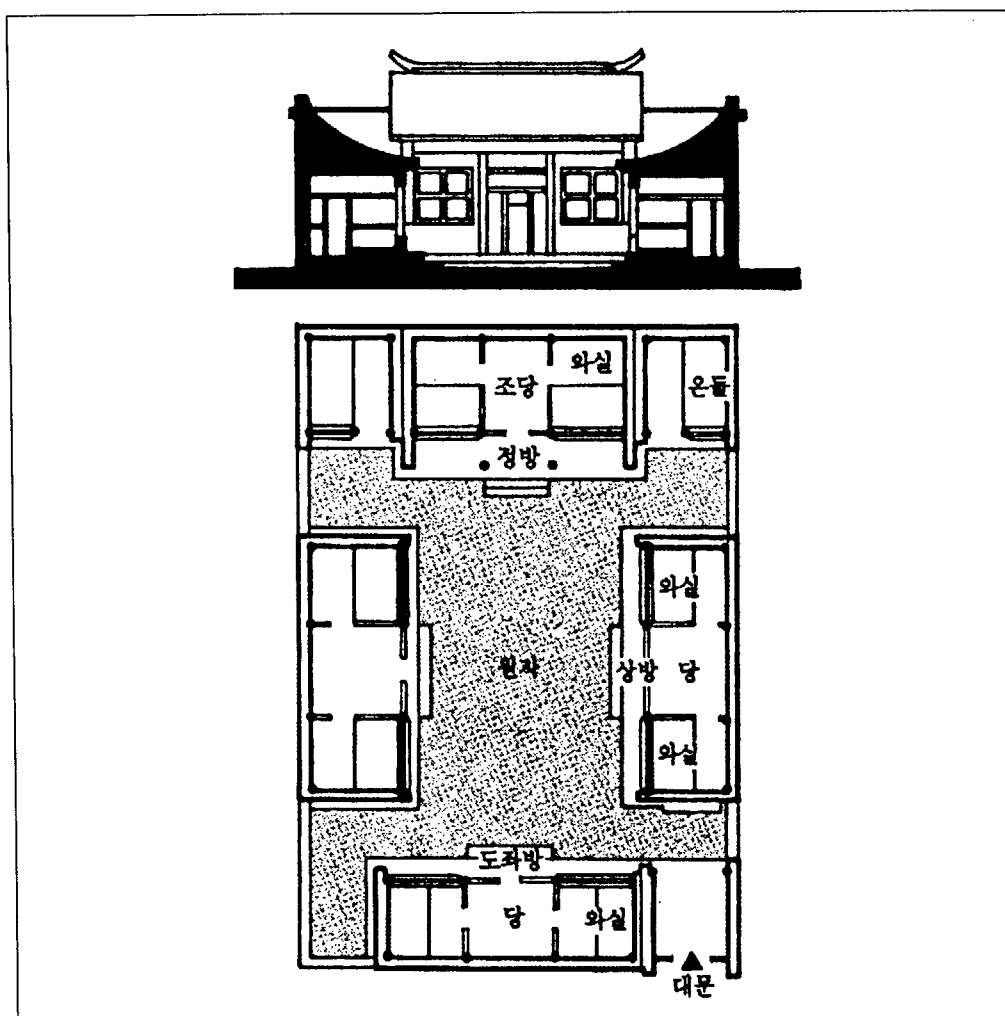
이중에서 正房이 가장 중요한 건물이며, 이곳은 주택에서 최연장자가 거처하는 곳인 동시에 가족의 거실로 사용되는 곳이며 또한 祖上의 位牌를 모시는 조당이 있는 곳으로서 주택의 실질적 象徵的 중심이 되는 곳이다.

廂房은 주로 아들 가족의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며, 도방은 손님과 하인의 거처 그리고 창고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공간구성이 사합원의 기본 구성이다.

북경의 도로 체계는 격자형이 기본형이며, 두종류 즉 大街와 胡同으로 구분된다. 이 두 종류의 도로는 그 기능과 성격이 각기 다르다. 大街는 넓고 직선 형태의 간선 도로이고, 胡同은 보행자나 인력거 등을 위한 이차 교통로로서 주로 주거지역에 있는 좁은 길이다. 주택은 호동에 면하여 배열된다. 호동에 면하는 벽, 주택의 외부담장을 照壁이라고 부른다. 조벽은 주택을 둘러싸는 담장이지만 속된 외부 세계로부터 내부의 복을 지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대문을 들어서면서 바라보이는 벽이 影壁으로서 외부 세계와 가족의 생활 공간을 구분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실질적인 얼굴이 되는 중요한 벽면이다. 따라서 이 벽면은 다양한 무늬와 吉辭頌語를 사용해 장식하거나 또는 주변을 자연석 등으로 꾸며서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圖 3-4-4) 中國 四合院의 傳統 民家 배치 및 斷面 (손세관, 1995, 80쪽)

四合院을 이루는 각 단위 건물은 廳이라고 부른다. 청은 보통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중간에 있는 공간이 堂으로서 거실로 사용되는 것이며, 좌우의 공간이 臥室로서 침실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이와 같이 주택의 가운데에 公的인 공간을 위치시키고 양쪽에 私的인 공간을 위치시키는 것이 소위 ‘一明二暗’의 공간구성으로서 중국 고유의 생활 공간 구성 방식이다.

臥室의 좌우 양쪽 끝에 작은방이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耳房이라고 부른다. 이방이 양쪽 끝에 각각 하나씩 부속되어 있는 경우를 ‘三正兩耳’로 그리고 耳房이 양쪽 끝에 둘씩 부속되어 있는 경우는 ‘三正四耳’로 부른다.

소형의 사합원 주택에서는 三正兩耳가 그리고 중형 이상의 사합원 주택에서는 三正四耳가 각각 일반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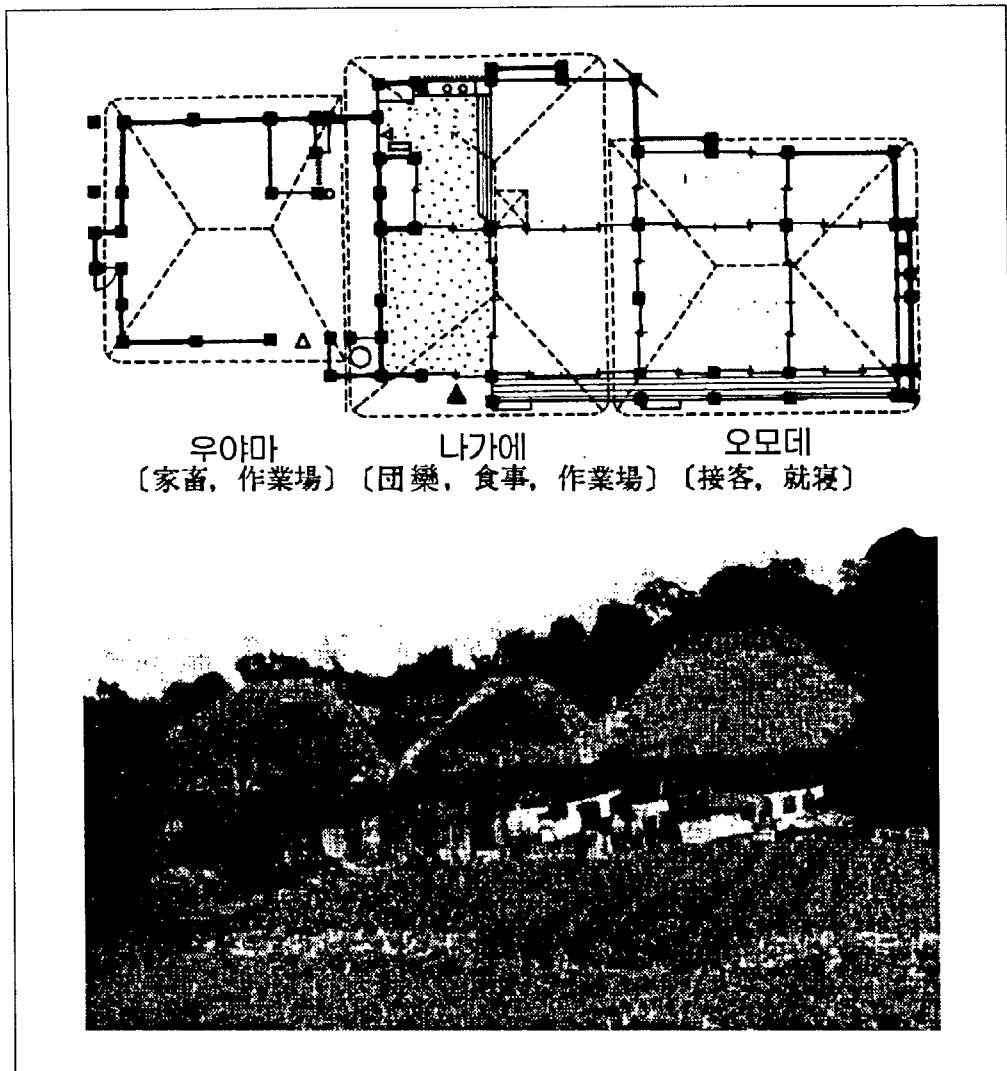
당은 거실로서 가족의 모임 장소이면서 동시에 가족이 식사하는 곳이다. 그런데 가장이 거처하는 건물, 즉 정방의 당은 조당으로서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다. 이곳은 일상적으로는 접객과 식사를 위한 장소지만 祭祀를 위시한 冠婚喪祭의 장소로도 사용되는 곳으로 주택의 상징적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그런데 주택의 규모와 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는 몇 가지의 원칙이 있다. 우선 모든 주택에서 대문은 남동쪽 구석에 위치하고, 대문을 들어서면 壁體 즉 影壁을 바라보면서 서쪽으로 꺾이고, 작은마당(前院)을 거쳐서 주택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방식이 된다.

이러한 주거 형식의 문화적 배경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道의 개념에 기본적인 바탕을 둔 陰陽論의 二元的 정신세계가 만들어 낸 空間概念과 儒家의 윤리에 따른 宗法을 바탕으로 한 혈연적 유대 관계를

근본으로 하는 사회 규범과 중국 특유의 大家族制度 및 宋代이후 보편화된 風水思想이 바로 그것이다.

4-3. 日本 九州 地方의 民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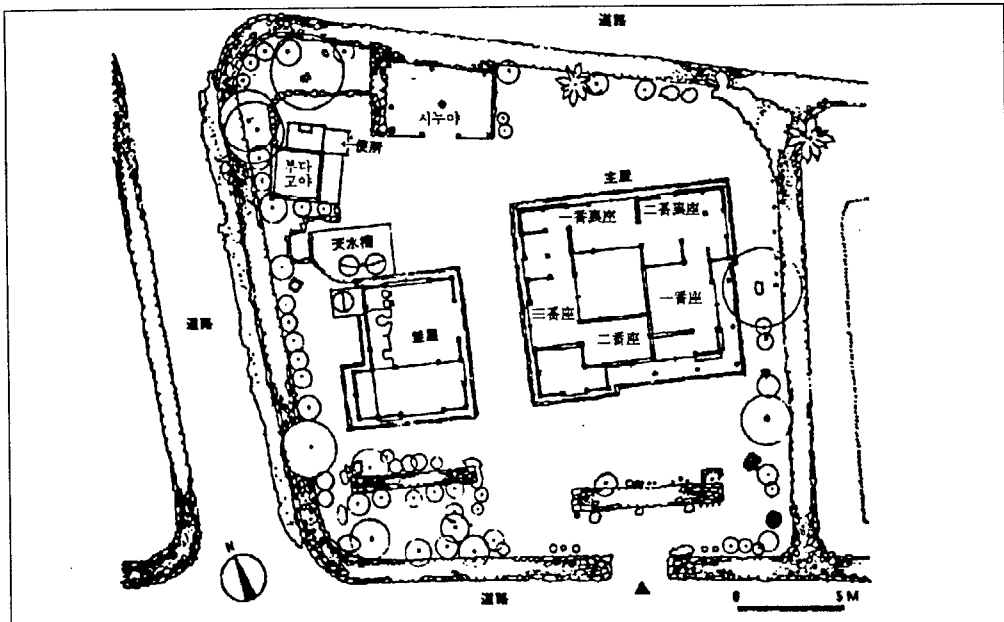


(圖 3-4-5) 日本 九州 地方의 傳統民家

4-4. 琉球(오키나와)의 民家

琉球, 卽 지금 오키나와의 民家의 典型은 소위 二棟造로 사람이 寄居하는 建物과 炊事나 食事用 建物을 別棟으로 配置하므로 그렇게 呼稱되는 것이다.

1975년에 조사된 오키나와縣 八重山竹富島의 民家를 보면 垜地 주위로는 어깨 높이 정도의 돌담으로 두르고 바람에 강한 福木(후꾸기)을 심었다.



(圖 3-4-7) 琉球(오키나와)의 民家 平面(八重山 竹富島 民家)²⁰⁾

돌담의 南側의 일부를 터서 入口를 둔다. 入口에 들어서면 바로 앞에 [헨푼]이라는 遮斷담이 놓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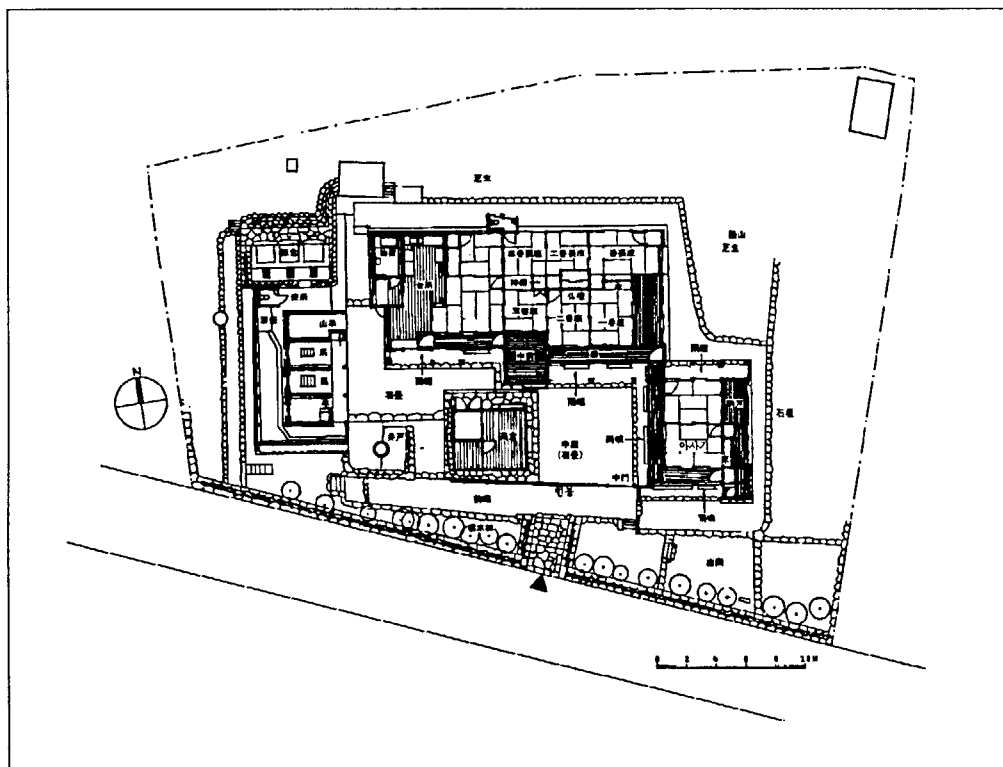
主屋은 茅지붕으로 東側에, 西側에는 釜屋(도라)이 位置하고 변소와 돼지 우리, 수조 配置되어 있다. 主屋의 칸잡이는 밖갈쪽에 一番座에서 三番座로

20) 日本民家の 旅-杉本尙次, P.159

안 측은 우라자라 부른다. 主屋에는 土間이 없다.

一番座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방으로 冠婚葬祭의 중심인데 안에 불단과 도꾸노마가 있어 여기 가족의 수호신을 모신다. 二番座는 주인 부부의 침실 三番座는 작은방으로 釜屋(도라)가 가까이 있으므로 식사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식구가 많을 경우는 옷장 같은 가구의 수납 장소가 된다.

釜屋(도라)은 대부분 土間으로 안쪽의 일부분만 마루이다. 土間에 술이 놓이고 작업장과 취사장으로 쓰인다.



(圖 3-4-8) 琉球(오키나와)의 上流民家 平面²¹⁾

(中村家 오키나와 本島 中 部 中城村)

21) 日本民家の 旅-杉本尙次, P.159

외형상의 특징은 지붕이 重厚하고 아마 하시라고 칭하는 깊은 처마밑 공간이 넓게 마련된다. 문 시설이 없이 開放的인 空間 意識을 가진 점은 海洋性 文化로 說明하고 있다.

北高南低의 圍繞型인 地形을 선택하여 취락을 형성하는 것과 도서 文化的 類似性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대상이 곧 琉球의 民家이다.

4-5. 濟州島 民家와 주변지역 民家の 比較

제주도 민가는 내외동이 각각 독자적

주거 단위이면서 대향 배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반도 민가와
와의 차이는 사랑채의 개념이 없는 것에서 비교된다. .

사랑이라는 용어는 조선조 주거에 일찍부터 쓰이고 있다. 太祖가 太宗원년에 작성한 太祖賜給族致土地文集 ‘淑愼翁主家堡’條 가운데 “內舍廊 肆間 草蓋가 있고 ‘松南雜識’에는 ‘御天歌註 中門橫廡待客之所 俗謂舍廊’하여 중문 옆에 가로놓여 손님을 맞는 곳이라 하였고, 茶山은 ‘雅言覺非’ 卷3 舍廊條에 ‘堂側之橫廡東人誤譯 今以外舍廳事之室 謂之斜廊...’²²⁾하여 사랑은 당의 측면에 있는 橫廡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를 잘못 번역하여 바깥채의 청사의 방을 사랑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家禮輯覽’²³⁾의 通禮에는 退溪의 말을 인용하여 대문 안쪽의 작은 小廳 말한다고 하고 있다.

사랑채는 조선시대 민가의 주요한 구성 요소로서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에 대하여 남성 공간으로서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이다. 성리학적 윤리 규범이 양반 사회에 일반화되어 감에 따라 내외 법이 주거 내부에서도 중요

22)茶山の ‘雅言覺非’

23)朝鮮中期 學者 金長生이 ‘家禮’를 증보, 해설한 禮書, 1685

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奉祀制가 강조되고 상속 제도도 적장자를 우대하는 宗子法이 士林들간에 우세해지는 사회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사랑채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는 상관없이 제주에는 여전히 均分 相續制가 존속되었고, 주거에도 남녀의 성별에 따라 공간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따른 분화 현상을 보인다. 아직 內外法에 따른 接客또는 學習전용 공간이 未分化되어 있는 것이다. 이 特性은 19세기에 와서 비로소 기존 민가 형식에 수용되어 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토의 남부 지방 민가는 사랑채가 안채와 동일 軸線의 前面에 ‘中門橫廡’형으로 확실한 性理學的 禮法의 이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古典的 칸잡이인 一字집, 별동배치 형식은 濟州 民가와 同質의 特性을 보여준다. 고살이라는 진입로며 마당 모퉁이로 진입하는 方法 역시 유사한 이념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소이다.

南海 島嶼地方의 民가는 사랑채에서 待客의 기능이 전제될 경우 內外法에 충실치 않은 배치법이 된다. 마래를 제례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家廟制를 변용한 것은 특이하다. 본체의 칸잡이에서 중심 공간이 방으로 되어 있는 것은 板廳으로된 제주 민가와 대비되는 성격이며, 마당 공간에 대한 사고도 차이로 나타나 있다. 島嶼的인 생산성의 한계 때문에 강요된 실질적 성향의 특성이다.

북경사합원은 院을 核으로한 四相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主의 정방과 客의 도좌방으로 주객 영역 설정이 확실하다. 좌우 대칭의 軸 위주 공간구성과 폐쇄적인 성격은 외부의 거친 자극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내부에 풍요로움을 구현한다는 동양권 주거 문화의 기본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고대이래 한국주거 문화와 동일한 우주관과 풍수지리의 명당 관념 등 공통된 이념에서 출발하지만 대단히 異質的 문화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규슈지방의 민가에서도 한국민가의 사랑채의 기능을 가진 접객용 ‘오모테’와 안채 격의 ‘나가에’가 二棟으로 分棟되어 출발하고 있다. 이 二棟造 주거 형태는 18세기경에는 ‘구도쯔꾸리’와 ‘쇼오고쯔꾸리’로 바뀌면서 相接된 형태로 발전했다. 이 형식은 해양성 아열대의 기후적 특성에서 비롯된 내부적 융통성과 개방성을 주제로 한 분할 식 평면 형식이며 단순하고 실질적이다.

현격한 차이는 마당에 대한 개념에서 나타난다. 즉 한국의 민가는 마당을 중심으로 하므로 ‘비움’(虛)인 공간 차원이 강조되며 포용의 의미를 지니는 반면 후자는 건물 중심의 ‘채움’(實)이 위주인 형태의 次元이 중요하고 외면적 장식의 의미가 강조된다.

琉球와 濟州는 地理的 관계로 上古時代부터 교류하여 오가는 例가 많았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兩地에서 서로 漂流, 漂着이 빈번했던 紀錄으로 보아 두地方, 人種의 血統까지 交流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²⁴⁾

이곳의 民家は 主屋(후야)과 釜屋(도라)으로 불리는 住居동과 취사 동이 나뉘져 있는 二棟造가 原流로 알려졌다. ‘헌붕’이라는 차면 장치와 接客전용 공간인 ‘아사기’ 그리고 ‘와부루’라는 豚便所와 雨端(아마하시)라는 처마 밑 매개공간이 특징이며 중국적 문화 요소에 日本의 전형적 간잡이인 田字型 평면을 기본으로 하여 대략 17세기에 형성된 주거 형식²⁵⁾이다.

내부공간 즉 평면의 간잡이에서 비교되는 현상은 제주 민가의 기본형이

24)金泰能, 濟州島史論巧, P.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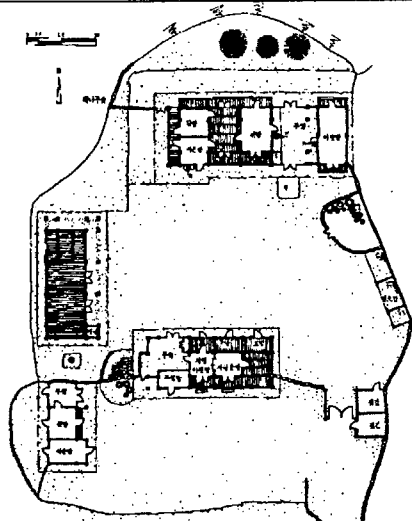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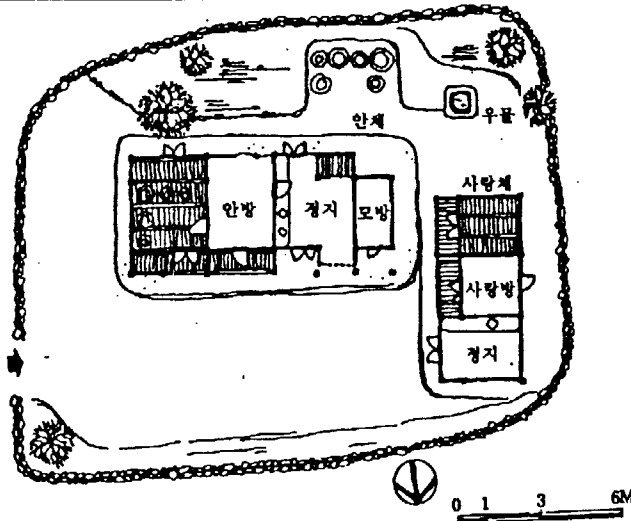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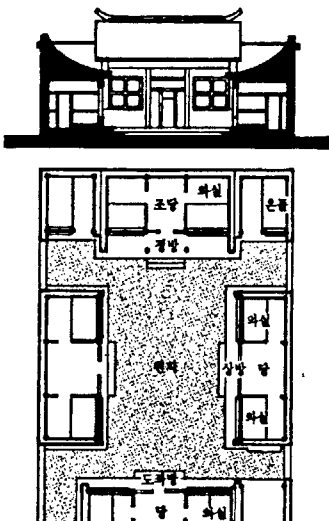
25)福井駿介, 琉球の 住まい, 丸善, 1993, P.62

3간집의 경우 중앙에 여름용 공간인 ‘涼廳’이 있고 양쪽에 방과 정지를 누웠고 남해도서 주거의 경우를 보면 겨울 공간인 방을 둔 것이다.

三間집의 칸잡이는 중심성이 확보 관념, 天地人의 상징 체계인 三才思想으로 불변 요소로 정착되어 온 요소로 중국 사합원의 ‘廳’의 ‘一明二暗’의 기본 구성과 동질 요소인 것을 보면 제주 민가는 주변 지역 주거 문화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古典의 독자성을 유지시키며 형성되어 왔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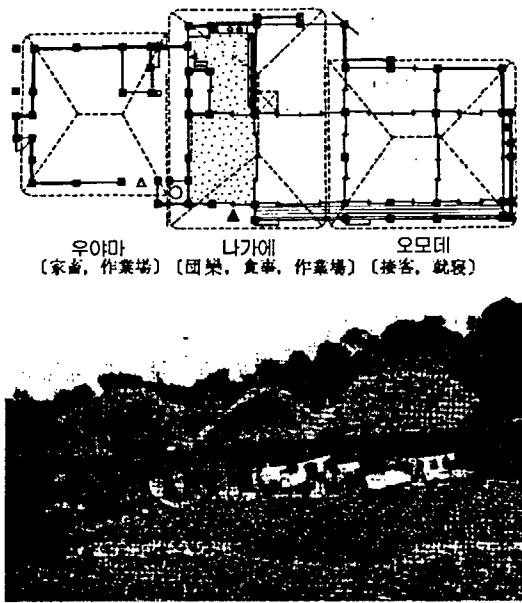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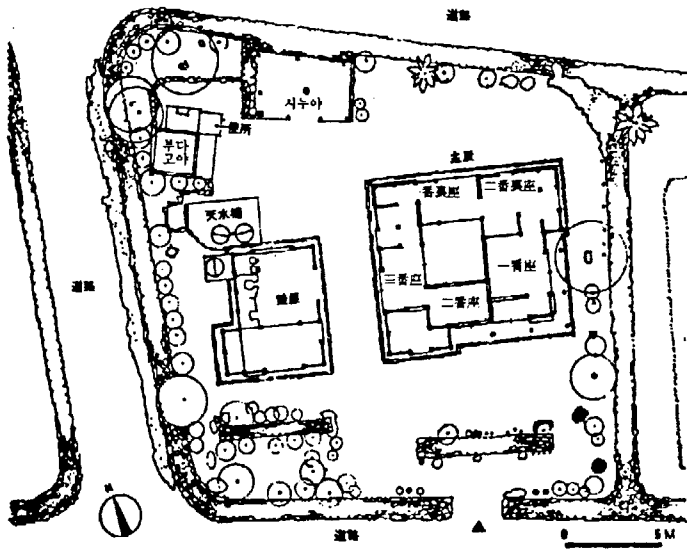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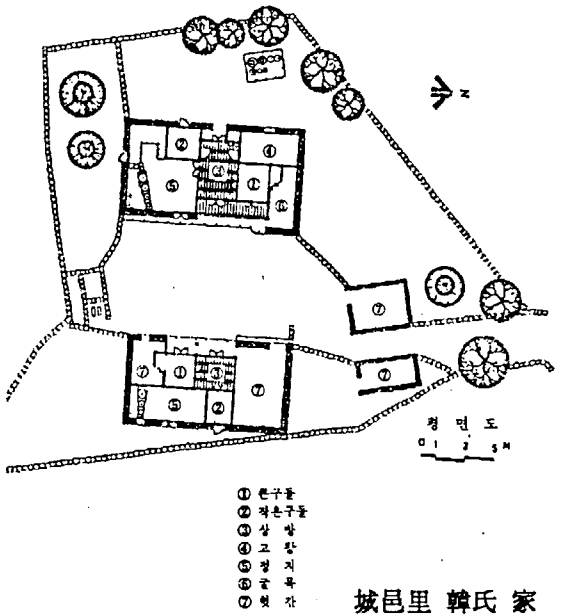
<表 3-4-1> 濟州島 주변지역 民家の 特性 比較-1

濟州島 周邊地域 民家の 特性比較-1

內 容	韓半島 南部地方 民家	韓半島 南部 島嶼地方 民家	中國 四合院 住宅
平 面 圖	 이씨가옥 (전남 보성군 오봉리 414) (출처: 1992. 8. 84쪽)	 이씨가옥 배치도 (1856年 建立, 新安郡 黑山面 鎮里) (출처: 1992. 8. 84쪽)	 (출처: 1865. 90쪽)
年 代	19世紀	19世紀	17세기
自 然 環 境	노년기 山地가 발달된 溫帶性 기후지대	島嶼, 해양성 온대기후, 강풍, 資源·垵地의 제한	中原의 人類文化 발생의 중심지
人文, 社會環境	儒敎의 理念體系	儒敎의 이념체계의 島嶼의 變容文化	宗法에 따르는 儒敎文化, 남성위주 위계성 고수
마을 都市性格	背山臨水의 閉鎖的인 圍繞空間 체계	背山臨海 집촌형 자연취락	大街, 胡桐으로 구성되는 격자형 도시구성
민가 配置體系	풍수론·양택론 적용, 비대칭 별동 배치	트인 7字配置, 二字配置는 없다.	마당 중심 엄격한 四位形成을 원리로 적용
平 面 體 系	큰방이 중심, 겹집의 一字平面	안방이 中心 정지와 마래가 양측, 마래의 제례공간 기능	대청형 중심성-일명이암(一明二暗) 평면구성
構 造, 意 匠	2高柱, 五梁構造	2高柱 五梁木造 심벽, 초가지붕	조적조-대문, 影壁, 垂華門 등 意匠要素의 다양성
空間 構 成	男性 위주, 位階性, 律動的 구성	마당, 건물, 높은 돌담장의 단순구성	중심성, 軸구성, 多層的 위계 주장
宇宙觀, 空間觀	垂直的	垂直的 공간관	二元論的 우주관, 중심적
計 劃 理 念	일원론적, 성리학적 예론, 풍수지리	실용주의, 도서환경에 의하여 수정된 性理學 이론	朱子學 이념, 風水地理, 垂直的 空間觀
性 格	·도가적 자연주의 ·위계적 공간 ·일원론적 이론 바탕 ·주기론 적용 ·폐쇄적 공간과 개방적 공간의 二元 구성	·방 中心 공간 구성 ·미분화된 공간	·대청적 軸中心 ·마당 중심 사위 형성, 폐쇄적 구성 ·위계적 공간 ·이원론적

<表 3-4-2> 濟州島 주변지역 民家の 特性 比較-2

濟州島 周邊地域 民家の 特性比較-2

內 容	日本 九州의 二棟造 民家	琉球의 民家	濟州島의 民家
平 面 圖			
年 代	18世紀 くと造로 變容	17世紀	18世紀
自 然 環 境	高溫多濕, 强風地域	珊瑚礁 石灰岩, 태풍지역, 高溫多濕, 大型島嶼	大型火山島, 多雨·多風地域, 高溫多濕
人文·社會環境	봉건사회 發達, 직계가족형, 공동생활, 儀禮生活을 重視	十三世紀까지 獨自文化 형성, 1609年 日本에 隸屬.	高麗 이후 伏屬, 조선조에 三縣制 실시, 非儒敎的 文化
마을 都市性格	공동체적 구성, 地域性이 强함.	背山臨海, 격자형 街路 구성. 神道の 상징성	방사선형, 개방적
민가 配置體系	垵地의 中央部	垵地 중앙부, 從心軸上에 二番坐와 'ひんふん' 놓임	二字, ㄷ字配置
민가 空間構成	內·外部와 生活, 儀禮의 二元的 구성.	'ひんふん'으로 空間層 形成, 'あしゃき'라는 客棟	측면진입, 마당 중심의 求心型
平 面 體 系	開放的이며, 융통성 보장, 田字型 平面	別棟型의 田字型 平面	三間이 기본, 중앙에 床房(중심성 강조), 退間の 발달
構 造·意 匠	高床式	낮은기단, 兩端(amahashi)空間, 붉은색 기와지붕	목구조에 석조축벽, 내풍형 초가지붕
宇宙觀, 空間觀	水平的 空間觀	수평적 神觀念	수평적 神觀念
計 劃 理 念	二重構造	自然崇拜, 原始信仰體系에 의함	풍토적 合理主義
民家の 性格	·공동體生活 강조. ·二元的 空間체계.	·風水說의 장풍론, 득수론 적용. ·體(건물)가 小宇宙의 중심. ·中心性 구성에 정면으로 우회진입.	·수평적이며, 수직적 位階가 없다 ·마당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計劃理念 적용 ·내향적 공간 구성과 側面進入 ·대청 中心 내부공간

第4章. 19世紀의 濟州島 民家

第1節. 19世紀 濟州島 民家の 形成背景

1-1. 19세기 濟州島 社會

조선 사회는 壬亂 이후 中央集權的 封建 體制에 地方 豪族과 土族의 形成으로 체제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 농업 생산의 확대 및 그 경영 방식의 변화에서 신분제의 붕괴 등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변화속에 있었다.

그러나 육지 부와는 다른 양상에 있었던 것이 제주 사회의 상황이었다. 원래 土質이 척박하고 貧寒한 辺方に 지나지 않으며, 天災와 疾病이 많고 왜구의 약탈에 시달리는 歷史를 이어왔다.

조선시대 濟州의 存在 價値는 一言하여 軍馬의 牧養供給地요. 柑橘, 전복, 特殊 木材등 地方 特産物의 貢納地로, 왜구 방어의 第一線 軍役을 부담한 지역이었다는 것이다.²⁶⁾ 貢納 부담이 과중하고 각종 부담을 감당치 못한 住民들이 離島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仁祖 七年(1629)부터 濟州人의 出陸 禁止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濟州 社會는 그후 200年間 外部 社會와 絶緣된 유폐生活을 강요당하여 온 것이다. 여기 교역은 경제생활은 물론이고 문화 교류의 기회도 없었으므로 빈곤과 낙후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과중한 雜稅, 雜役은 지역이 좁고 인구가 적은데 比하여 進上貢物이 많고 地方의 特性에 따라 生成된 養馬를 담당하는 牧子役, 海操, 貝類의 進上의무를 가진 海女, 進上鰓과 官用魚鰓을 담당한 鮑作役, 진상 곡물과 貢馬

26)金泰能-濟州道史論巧

의 海上 運搬을 담당하는 船格의 役을 수행하는 下民層이 특히 많은 苦役을 치러야 했다. 이에 대한 役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正祖 년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모처럼 정치적 안정을 이뤄 富民의 계기를 맞게 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봉건사회에서 立身하는 것은 官界로 進出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그것은 科試에 급제하는 것이다. 濟州의 科試區는 全羅道에 屬하였으므로 응시하는데 제약을 갖고 있어서 제주민의 不利益을 완화하고자 英, 正祖시대에 現地에서 文武 鄉試를 정기화시켜서 科試에 등재한 인재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참고로 18세기 後半 ‘試科及第先生集’에 依하면 高氏姓 47名 金氏 105名, 姜氏는 30名이 무과에 급제²⁷⁾한 것으로 보아 土着 支配層이 生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留鄉 品官²⁸⁾이 존속하였다. 그러나 이 향촌제도에 의한 관리들은 守畝를 보좌할 뿐 육지의 다른 도시에서처럼 守畝와 대등한 입장에 서지 못했다고 하여 제주의 지배층의 성격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土豪品官’層의 生活狀은 陰晴史²⁹⁾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책을 쓴 雲養 金允植이 종신 유형으로 제주에 유배되어 獄에 갇히자 도내 선비들이 매일같이 문안드리고 위안한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자 濟州 判官을 지낸 應彬判官宅에 適所를 마련하고 書畫를 즐기는 문인들이 모여 ‘橘園’이라는 詩會를 조직한다. 이들은 자주 모임을 갖고 주변 遺跡을 편력하거나 명승지에서 酒宴을 베풀고 妓生들과 더불어 風流로 고관 출신

27) 강창용, 17, 18세기의 제주 향촌 사회의 구조와 그 성격, 제주도 연구, 1991, NO. 8, P.241

28) 鄉村制度는 守畝들의 獨善을 견제하는 제도로 지방 유력자를 座首, 別監, 有司에 임명하고 鄉廳에서 집행한다. 이 임원들의 통칭

29) 金允植 著 ‘續陰晴史’

유배객과의 교류에 집착하고 있다.³⁰⁾ 그러나 判官이나, 郡守, 縣監等 鄉職을 지낼 정도 신분에 불과하므로 高位職에서 물러나 落鄕한 隱居 士族들처럼 守畝를 견제할 만한 세력 행사를 할 수 없던 것이다. 19세기 제주 민가의 창건주들 중 다수가 이 詩會의 구성원들이다.

1-2. 産業과 經濟의 變化

18세기말에서부터 조선사회는 봉건시대의 모순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갈등과 혼란의 시대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모순을 안고 있는 속에서도 농업 면에서는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1년 2모작이 널리 보급되어 삼남 지방에서 농업 생산이 크게 증대된다. 이것은 移秧法이 擴大되고 수리, 관개사업이 활발해진데 그 원인이 있다.³¹⁾

발농사도 노동력을 적게 들이고 소출은 늘어나는 새농법인 견종법을 발전시켰다. 이 결과 농촌에서 계층 분화는 더욱 촉진되고 경영형 부농층이 생기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原來 農業 기반이 취약한 풍토적 제약이 있었으므로 이와는 판이한 상황에 있었을 것이다. 즉 대지주나 임농업노동층도 존재하지 않고 大部分의 農民이 비슷한 條件에서 어업이나 기타 부업을 병행하는 복합 경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제주의 농업 규모는 부농일 경우 1만여평이상 토지 소유자였고, 소농도 3,000평 田少者라할 경우 1,000현미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畜力은 부농일 경우 100두 이상의 우마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경영인 부농은 無田民을 고용하기도 하나 노동의 주체는 가족 노동에 의하였다.³²⁾

30) 濟州道-濟州先賢集 中 金允植, 1988, P.140

31) 姜東鎭, 한국농업의 歷史, 한길사, 1984, P.172

이런 상황에서 英祖 3년에는 제주도에 作況유지가 불안정한 海産物대신 수공업제품인 涼臺를 육지에 나가 거래토록 하고, 이어 정조 연간에는 양태의 주산지인 金堤가 국가로부터 防禁조치되어 제주 양태가 전국적인 독점 상품이 된다.

이러한 정책은 華城을 조성하면서 정조가 漢城府내의 都賈거상을 이곳에 移住하게 하여 官帽와 家蓼의 독점권을 주어 상업을 일으켰던 시책과 동일한 것이다.

이때부터 경향 각지에 자유스러운 활동이 보장된 제주 상인들은 양태의 판매망을 확대하여 영남 지역까지 그세를 확대하였고 大端한 富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한편 牧畜業은 산업과 군사, 교통 등의 수요 때문에 국가적인 관리책이 강구되어 발달하였다. 조선 목축의 대표적 관리 방식을 적용 한곳이 제주도였다. 고려초 이래 목축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고 자연적 조건이 목축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목축과 관련해서는 宣祖때 良馬 500匹을 헌상한 헌마공신 金萬謐은 유일한 제주도의 不祧廟 命받은 人物이다. 그후 200년간 監牧官이라는 특수 관직을 宗門세습직을 83명이나 代代로 물려받아 국영 목장을 관리하고 있는 史實은 목축이 濟州의 經濟의 큰 몫을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다른 지방처럼 농업에서 地主佃戶制가 발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반들의 富의 기반은 토지만으로 가능하지 못하여 목축업과 특산물의 육지교역권을 독점한 경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富를 향유한 계층은 소수이고 대부분 독립 자영농으로 양민과 다

32)南碩珍, 제주 전통 사회의 농업 경영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VOL.9, 1989

름없는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이 제주도 상류 사회의 생활이었다.³³⁾

1-3. 理念的 背景

Christian Noberg-Schulz는 “建築은 자연 현상, 사회현상, 정신적 현상에서 도출된 실존적 意味를 공간 형식으로 드러낸 것이다.”하여 幾何學的인 개념만으로는 만족스럽게 묘사 할 수 없고 意味나 상징 형식으로 理解를 추구하고 있다. 이 상징은 어떤 개념이나 思考를 表現하는 機能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民家의 理念 世界에 대한 理解가 강조되는 것이다. 곧, 건축의 변화에서 그 운동 법칙은 사회사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 시대의 건국 이념은 性理學이다. 이 理念은 朝鮮의 전시대를 貫通하는 이념이었으며 時代마다 새로운 사조를 내용으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었다. 즉 15세기는 ‘理學’이 강조되어 조선왕조의 創建에 理念的 기반이 되었으며 16세기에는 心學이 抬頭되어 절의와 명분이라는 주자학적 가치관이 정립되었다.

17세기에는 禮學으로 외재적인 질서의 社會倫理를 표방하였고 18세기의 實學은 성리학이 사변적 관념론으로 전락하기에 이르자 이 사상적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했던 개혁 사상이다.

조선조의 제주도는 지리적 制弱때문에 행정적, 문화적 소외가 當然視되고 유배지 이상의 의미가 없는 邊方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지역 편중의 교육을 실시했던 정책 때문에 사상적 바탕을 이루게 될 敎學 活動이 不可避 牧民官이나 유배인 들에 依存되었다.³⁴⁾

33) 조성운, 조선후기 제주 지방의 신분 구조, 문학과 지성사, 1992

34) 梁鎭健, 조선조 제주 교육 사상과 연구, 제주도 연구, 제3집, 1986.

그러므로, 유배인 들의 性理學的 學通과 學派의 活動은 濟州島의 思想的 性格과 깊게 관계되었다.

이 상황이 빈번해지게 된 것은 사화와 당쟁의 부산물로 행형 제도인 유배가 빈번하여진 조선 中期이후의 일이다. 역설적으로는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제주도에는 학문과 사상적 혜택이 자연스레 전파되는 기회로 작용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退溪 李滉, 南冥 曹植을 中心으로 한 嶺南學派와 李珥, 成渾계통의 畿湖學派로 나뉘었다(선조 8년-1575). 嶺南學派는 ‘心則理’ 학설을 옹호하여 主理派로, 후자는 ‘心則氣’라하여 主氣派라 한다.

이를 정치적으로는 東人, 西人으로 칭하고 학문상의 시비와 정치상의 異見, 地域間的 對立으로 얽혀 分裂은 더욱 심화되고 자연히 통혼권, 친족체계에 관계되어 주거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地方色으로 까지 전개되었다.

濟州의 사상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畿湖學派와의 긴밀한 관계는 地理的으로 近接해 있으므로 쉽게 예측되었다. 이 地方으로부터 入島한 祖上도 많고 儒林 間的 交流도 긴밀했다. 더구나 濟州 정신사에 크게 영향을 준 人物로 선조때 西人系 代表的 學者 金尙憲(1570-1652)³⁵⁾이 있다.

그는 1601년(선조34) 按撫使로 제주에 다녀갔다. 濟州의 敎學 秩序를 기호학과로 편입시키는 계기는 宋時烈의 제주 유배였다고 보고 있다. 西人의 거두요 老論의 영수인 그는 숙종 15년(1689년)에 제주에 유배되어 단 100일을 머물렀으나 그후 그의 수제자인 김만기의 아들과 손자인 김진구와 김춘택, 그리고 김진구의 사위 임정하, 이렇게 세 사람이 제주에 유배되어 송

35)南槎錄으로 濟州에서의 活動을 日記로 남겼다. 제주의 중요한 史料.

시열의 사상적 영향력을 전파시켰다고 한다.

다음 嶺南學派와의 관계는 광해군 6년(1614년)에 제주 대정현에 유배되어 10년을 지냈던 桐溪 鄭蘊(1569-1642)이 있다.

嶺南學派의 巨頭인 曹植의 門下로 曹植-鄭인홍-鄭蘊으로 학맥이 밝혀져 있다. 그는 제주에 유배되면서 수백권의 전적을 가지고와 일상 독서로 일과를 삼고 지방 儒生들을 訓學하였다.

그 외에 제주선현지에는 奇正鎭³⁶⁾의 문하생이 다수 나타나 있어서 영남 학파의 활동도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金尙憲, 宋時烈, 鄭蘊 三人物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學派에 관계없이 濟州五賢으로 추앙되어 이곳 唯一의 “굴림서원”에 배향되어서 제주 유림 모두의 理念的 지주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 제주의 사상적 성향은 기호학과 영남학파가 서로 얽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다양한 사상이 공존했다고 하겠으며 뚜렷하게 자생적 학파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에 제주 사상사에 전기를 가져온 人物은 實學者이자 예술가인 秋史 金正禧(1786-1856)가 있다.

제주에서의 유배 생활은 1840년(헌종 6년)부터 9년이다. 그는 학문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도리가 ‘實事求是’라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사상의 실현 가능성을 예고하였다.

實學의 사상적 조류는 권위에 대한 비판과 독창적 자유성을 일으키고 경험적, 실증적, 귀납적 방법을 토대로 과학적 태도를 중시하였는데 이 시대 정신은 陽明學의 유입으로 인한 자극과 훈고고증의 한학에 대한 풍조가 조

36) 奇正鎭, 華西 李恒老와 영남학파로 근대유학의 중심 人物

성되었던 것에 있다.

그 정신은 또 봉건적 직업 관을 혁파하고 노동을 천시하는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모름지기 선비는 먼저 생업에 힘써서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그들은 학문의 생활화를 주장하며 생활 개선을 교도하고자 했다. 특히 산업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발표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실천적 학문이 실학 정신이다.

이와같은 실학 정신은 ‘利用厚生’이나 ‘經世致用’이라 하여 그들 학문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牧者는 백성을 위하여 있다”하여 民本 思想을 저변으로 하였다. 경제치용의 생산력 확대와 근대적 합리주의를 표방한 이 내용에는 제주도인 ‘皆人勤勞’이념과 實利的 經濟理念이 傳來되어 보편적 생활로 정착되어 있었으므로 쉽게 그 영향이 同和되었다고 본다.

추사의 영향은 유배 생활 9년이라는 시간만큼 사상적 분야는 물론이고 예술 부분에도 확대되었다.

秋史는 제주에서 그의 학통의 初傳으로 박계침의 여덟 제자를 가르쳤다. 그의 서예는 금석학에 가치를 두고 詩書畫 一致를 주장하여 후세까지 藝脈을 傳播하였다.

추사가 유배 생활 중이었던 19세기 中期에는 본 연구의 조사 사례에서 實學者들의 건축 이론³⁷⁾이 적용된 실례가 다수 실증되고 있고 북학과 實學에 조예가 깊은 현지 학자들이 鄉校의 都訓長³⁸⁾을 역임하고 있는 史實에서 이미 이 사상은 제주 사회에 상당히 파급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7)徐有渠 ‘林園十六志’에 나타난 건축론을 말함. 5章 1절에 언급되어 있다.

38)朝天里 사람 安達三은 ‘북학’에 조예가 깊고 1892년 제주유림의 篤行으로 천거되었고, 또 朝天里 사람 金時宇는 중국에서 實學을 수업했고 도훈장을 歷任함.

第2節. 事例分析

2-1. 班家型

(1) 新村里 康氏 宗家

所 在 地 : 朝天邑 新村里 2140

建立年代 : 1862年

建物棟數 : 6棟

안 거 리 / 3間 前後側退間 瓦家

정지거리 / 4間 前後側退間 草家

밖 거 리 / 4間 前後側退間 瓦家

이문거리 / 3間退 瓦家

부 속 사 / 單 4間 격한 草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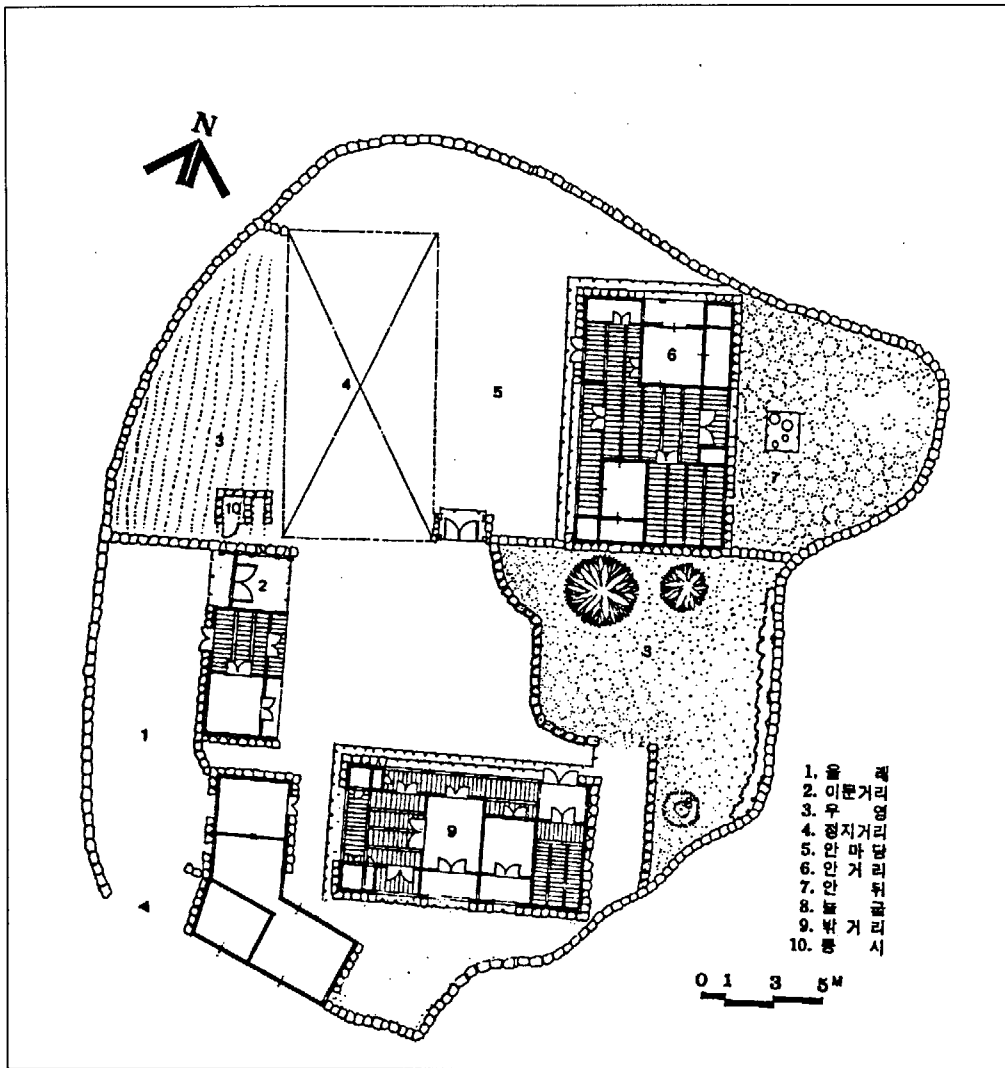
중 문 / 單間 瓦家

신촌리 동가림의 큰길옆에 위치해 있다. 제주도 대형 민가중에 유일하게 안거리와 밖거리가 牆隔한 형식으로 마당이 2核구성이고 中門을 설치하여 안거리와 밖거리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안채쪽은 3間 기본구성의 와가 안거리의 중심축상에 대항하여 정지간과 마구간으로 활용되는 초가가 배치되어 있다.

사랑공간은 사랑채와 이문간(행랑채)으로 구성되어 독립된 영역을 확보하며, ㄱ字의 평면구성을 하고있는 부속사는 필요한 기능에 따라 근래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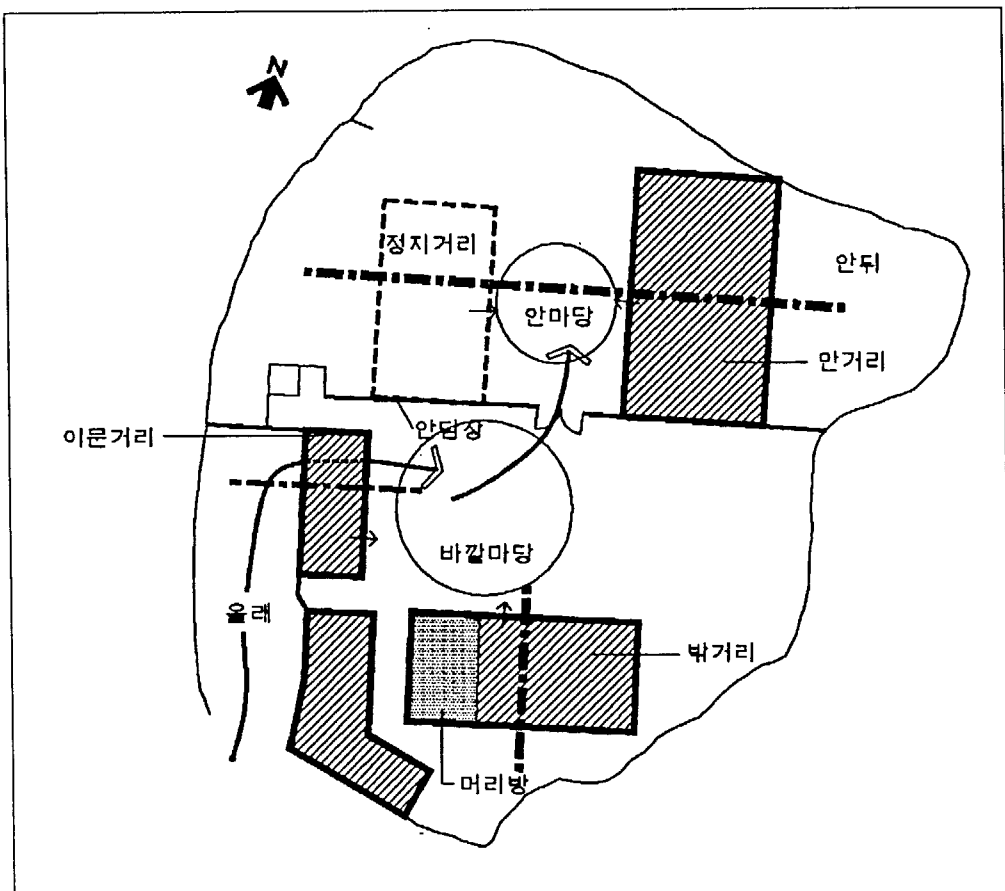
진입공간은 도로에서 接近하면서 직선축을 피하기 위하여 큰길과 평행하게 아래를 처리하여 이문간 전면부에서 진입 방향이 바뀌면서 담장의 내부가 露出되지 않도록 처리 하였다.



(圖 4-2-1)新村里 康氏 家 配置圖

1. 배치는 二字型和 L字型的 복합형으로 되어 있다.
2. 큰길과 평행하게 놓인 올래가 있다.
3. 마당이 2核 구성이다.
4. 안거리 영역에 별도 정지거리가 있다.

5. 진입동선이 올래-대문-사랑마당-안마당으로 연속되며, 각 공간의 영역이 확연하게 인지 된다.
6. 이문거리에서 사랑마당으로, 사랑마당에서 중문을 통하여 안거리로 출입동선이 처리되며, 안거리의 폐쇄성을 읽을 수 있다.
7. 안거리와 밖거리(사랑채)가 중심에 놓여 밖거리가 앞으로 나오는 육지 上流家의 배치이념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 별도의 축을 설정 배치된 형식이다.



(圖 4-2-2) 外部空間의 構成

(2) 郭支里 助防將 秦氏 家

所 在 地 : 北濟州郡 涯月邑 郭支里 2011-1

建立年代 : 1859년 (咸豐9年)

建物規模 : 4棟

안 거 리 / 4間 前後退間 草家(현재 슬레이트로 개량)

밖 거 리 / 3間 前後左右退間 草家(슬레이트지붕 개량)

정지거리 / 3間 草家

이문거리 / 2間 草家(슬레이트지붕 개량)

配置形式 : ㄷ字 別棟配置

큰길에 인접된 넓은 대지에 뒤의 과오름을 주산으로하여 良坐坤向으로 안거리가 자리잡았고, 같은 종축선상에 밖거리와 이문거리가 배치된 네거리집이다.

창건주는 秦基千(1813-1877)³⁹⁾은 애월진 조방장을 지냈고, 凶年에 양곡을 捐出하여 飢民을 救恤한 人物이다.

초가여서 집에 사용한 부재는 빈약하지만 마당이 분화되고 채와 담장으로 구획되어 외부공간은 분명한 영역을 하고 있으며, 특히 안담장의 설치로 안마당은 폐쇄감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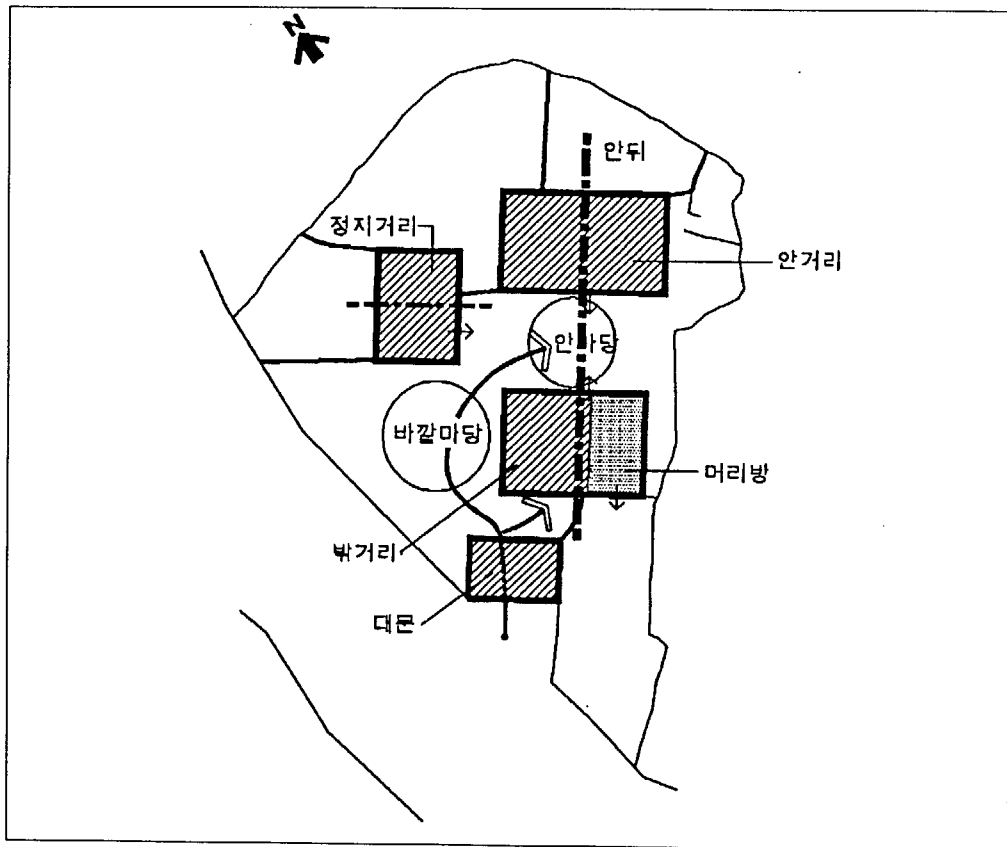
진입동선 처리는 짧은 올래와 이문거리를 지나 밖거리를 우회하여 밖거리 마당으로 유도되며, 몸체로 주진입은 밖거리마당의 隅角部를 통하여 안거리 마당의 모듬으로 진입하게 되어 안거리로 접근하면서 꺾임이 반복되는 변화를 주고 있다.

39) 濟州先賢志 1988, P.337

Architectural site plan of a traditional Korean residence (Hanok). The plan shows a central courtyard (마당) surrounded by various buildings. To the top is a large hall (안방) with a smaller room (고방) and a study (독방). To the left is a kitchen (주방) and a storage room (창고). To the right is a bedroom (방) and a study (독방). At the bottom is a bathroom (화장실) and a storage room (창고). The plan also shows a gate (문) and a fence (담). A scale bar (0 to 5m) and a north arrow are included.

- 72 -

1. 대문간이 있다.
2. 마당이 二核구성이다.
3. 별동정지간이 시설되어있다.
4. 진입동선은 대문을 지나 바로 밖거리(사랑채)로 이어지며 몸채로의 진입은 변화되어 몸채공간의 폐쇄도를 높인다.
5. 안담장시설을 이용한 외부공간 분화현상이 현저하다.
6. 빈지시설이 뒷마루에 있다.
7. 안거리 간살은 수납공간(고방)이 확대된 특징이 있다.



(圖 4-2-4) 外部空間의 構成

(3) 金氏(旌義縣監) 家

所 在 地 : 朝天邑 朝天里 2802-1

建立年代 : 1852 年

建物棟數 : 4棟

안 거 리 / 前面 3間, 側面 2間, 前後左右 退間 瓦家

밖 거 리 / 前面 4間, 側面 2間, 前右 退間 草家

정지거리 / 前面 3間, 側面 1間, 前後 退間 草家

이문거리 / 前面 3間, 側面 2間 草家

構 造 : 2高柱 7樑의 우진각 瓦家

配置形態 : ㄷ字 別棟配置

창건주 金膺平(1841-1918)⁴⁰⁾ 字는 又公이고 號는 嚨窟이다. 현주인 김씨의 증조부이다. 1892年 武科에 及第하여 旌義縣監을 역임하였다. ‘농굴’이라는 호로하여 이집을 ‘굴집’이라 통칭한다. 종형 膺銓(1833-1915)은 ‘橘園’ 詩會의 會員이고 海美縣監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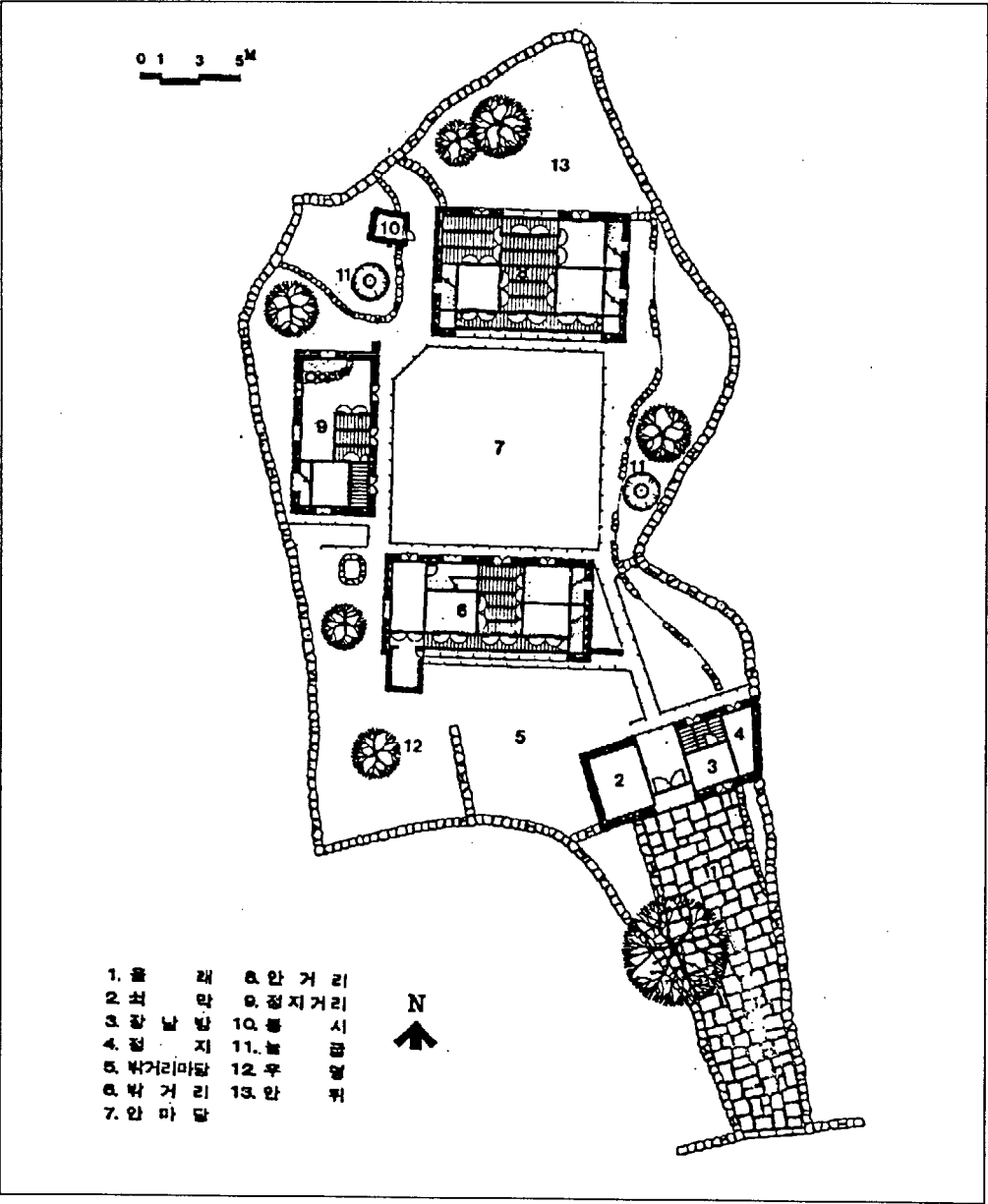
배치와 공간구성을 보면 집자리는 길보다 낮은 곳에 입지하며, 긴 올래를 통하여 내림길로 접근하게 된다.

정방형 마당을 중심에 두고 안거리(內棟)가 子坐午向으로 자리한 곳은 뒤쪽과 좌향을 기준으로 左側이 높은 지형이다. 안거리(內棟)의 동일 軸線上에 동일향으로 밖거리(外棟)이 있다.

右側 낮은쪽에 별동 정지거리가 있고, 올래목에 중심축선의 좌로 빚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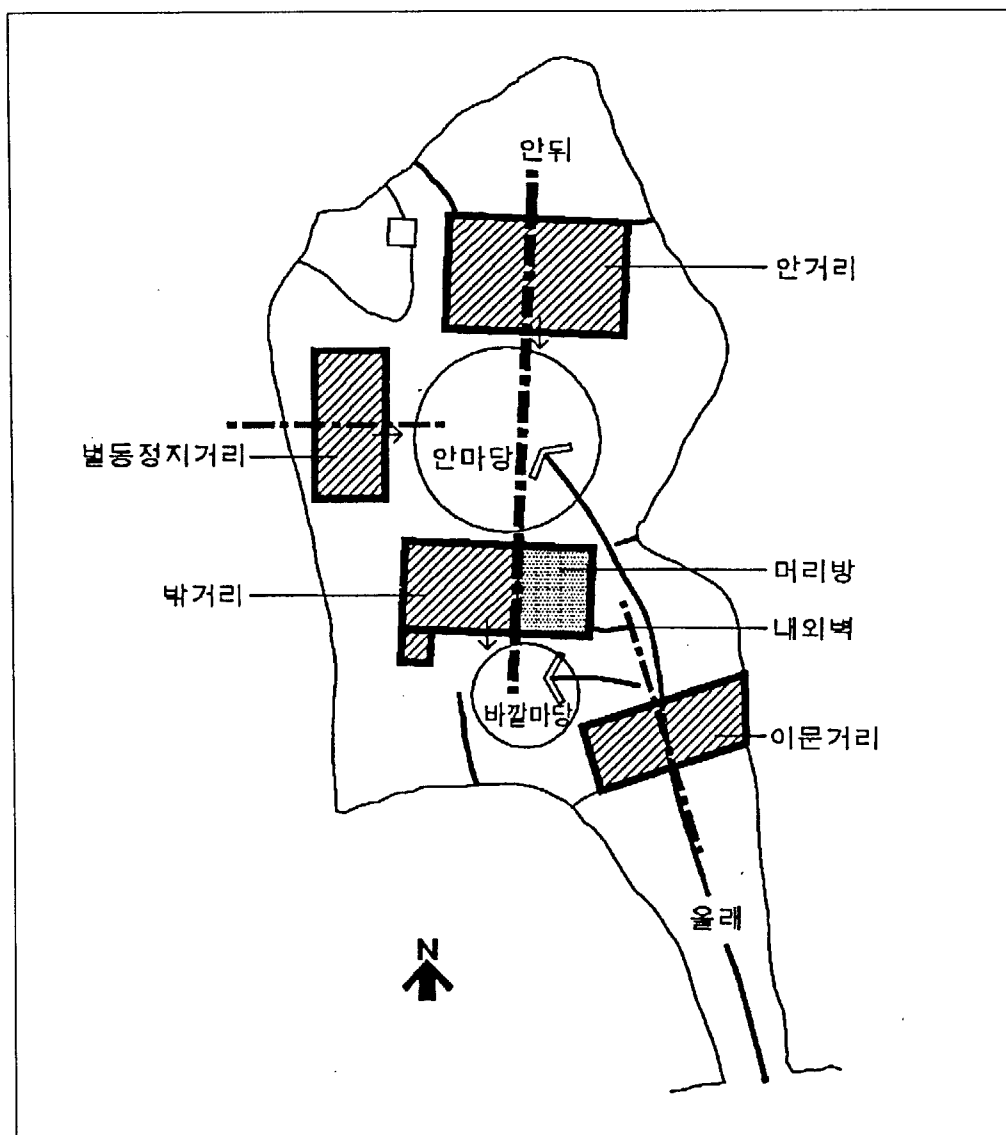
40) 濟州先賢志 1988, P.337

축으로 진입축에 맞추어 이문간이 자리해 있으므로 주공간으로 進入을 밖
거리 옆을 지난 마당 모퉁이가 들어가게 되어있다.



(圖 4-2-5) 金氏 家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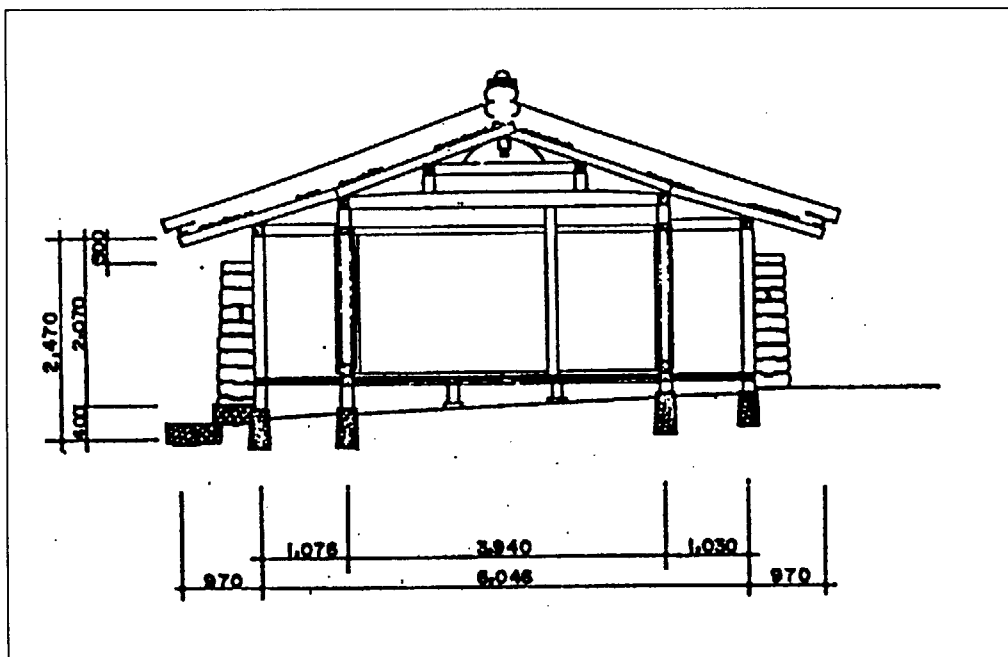
이 집의 특징은 진입동선 상에서 밖거리측벽에 설치된 '내외벽'이다. 이 벽이 밖거리 전면에 있는 또 하나의 마당으로 동선을 유도하면서, 주공간으로의 시선을 차단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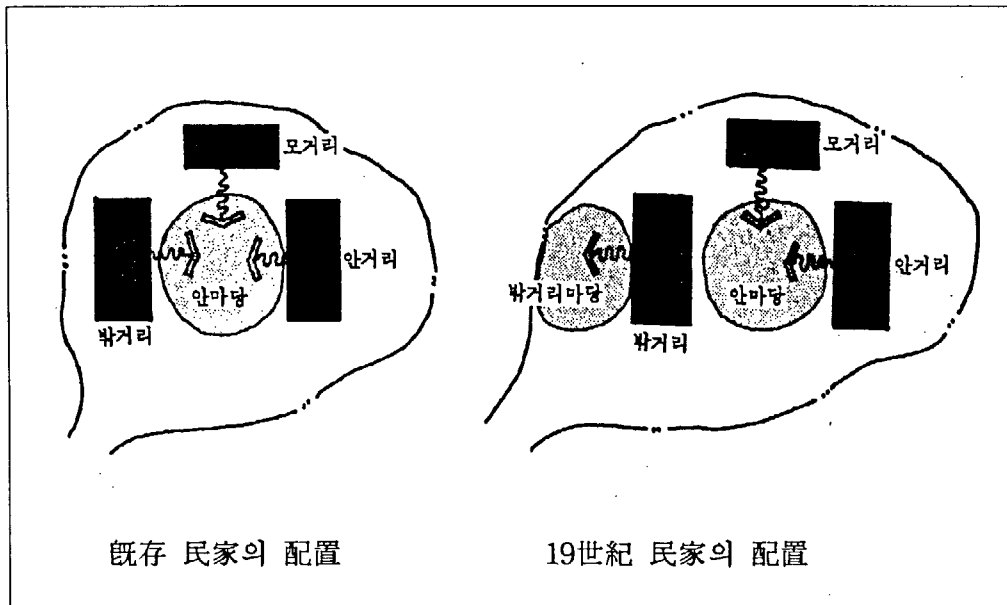
(圖 4-2-6) 外部空間의 構成

이 민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지가 주위 보다 낮으므로 내려가면서 진입한다.
2. 안거리는 중앙의 대청인 전형적 전면 3間 측면 2間の 간살이다.
3. 별동의 정지거리가 있다.
4. 밖거리와 안거리가 중심 軸線上에 동일향으로 배치 되었다.
5. 밖거리 마당이 분화되어 있다.
6. 밖거리에는 전면에만 퇴를 두고 개방하여서 안거리와 별도의 공간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즉 2核구조의 공간이다.
7. 안거리가 기단이 높고 기와집이며 각 부재의 굵기나 크기가 실하고 治木, 石材마감이 정교한 것에서 안거리가 밖 거리에 비하여 위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圖 4-2-7) 안거리 斷面圖



(圖 4-2-8) 配置에서의 變化

2-2. 傳統民家型

(1) 城邑里 曹氏 家

所 在 地：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872番地

建立年代：19世紀初

建物棟數：5棟

안 거 리 / 위 3間, 알 4間, 前後側退間 草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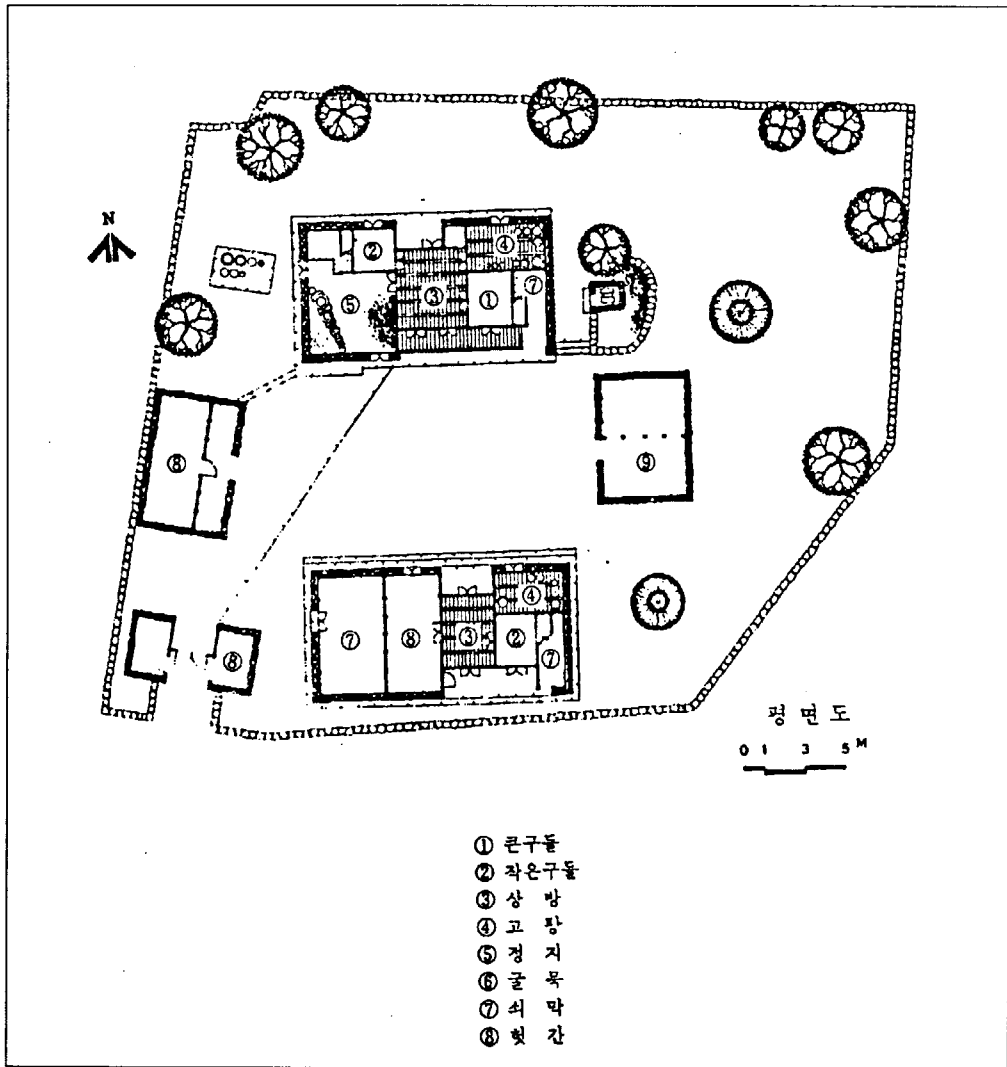
밖 거 리 / 4間, 前後側退間 草家

좌모거리 / 3間 草家

우모거리 / 3間 草家

이문거리 / 3間 草家

配置形式：口字 別棟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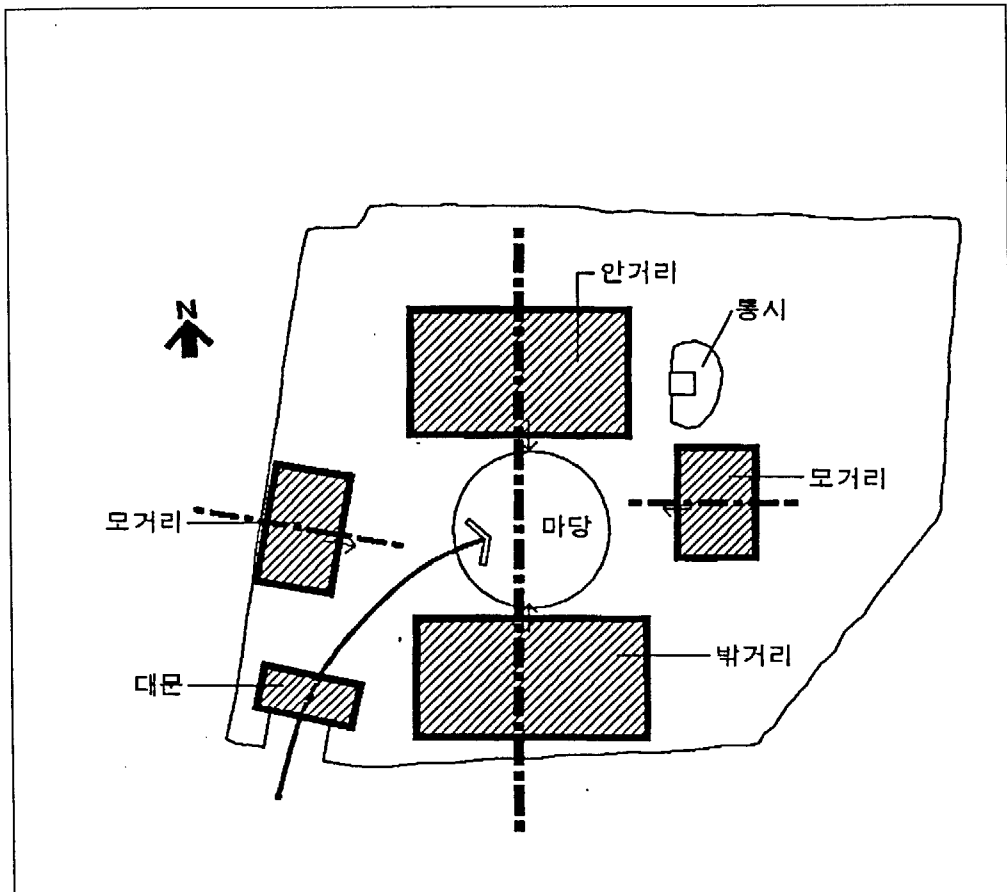
(圖 4-2-9) 城邑里 曹氏 家 配置圖

성읍리의 객사터에 연접하여 있는 모퉁이에 위치한 비교적 정방향에 가까운 형상으로 주변의 도로보다 낮은 대지의 조건으로 하향 접근이 되며, 大型 民家이다.

안마당을 중심으로하여 네거리집을 배치하여 4相을 갖추었으니 우선 규

모면에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진입은 짧은 올래와 이문간을 지나 밖거리 측면의 전이공간을 통과하여 안마당의 모퉁이로 접근하게 된다.



(圖 4-2-10) 外部空間의 構成

건물의 향이 모두 안마당을 향하여 모여진 구심형 배치이고, 큰길에 바로 인접하고 있으나 짧은 올래를 두어 도로에서 접근을 유도하며, 여기에 대문간(이문거리)을 설치하였다.

기존 민가형식의 특징을 지니면서 단지 규모만 확대된 변용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목축을 주업으로 하던 민가이므로 모거리는 모두 풀솥이다. 이상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문간이 있다.
2. 안거리에 정지간이 있다.
3. 진입동선은 대문을 지나 전이공간으로 연속되며, 안마당의 隅角부로 접근하도록 유도된다.
4. 거주지역이 주변보다 낮은 대지조건 이다.
6. 안마당을 중심으로 각동은 내향적인 求心配置를 하고 있으며, 안거리와 밖거리가 외형상 비슷한 규모로 대향배치를 하고 있다.
7. 넓은 垆地의 田園型 民家이며, 대규모 목축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쇠막 등의 부속체가 擴張되어 있다.

(2) 新村里 曹氏 家

所 在 地 : 朝天邑 新村里 2462番地

建立年代 : 1822年

建物棟數 : 4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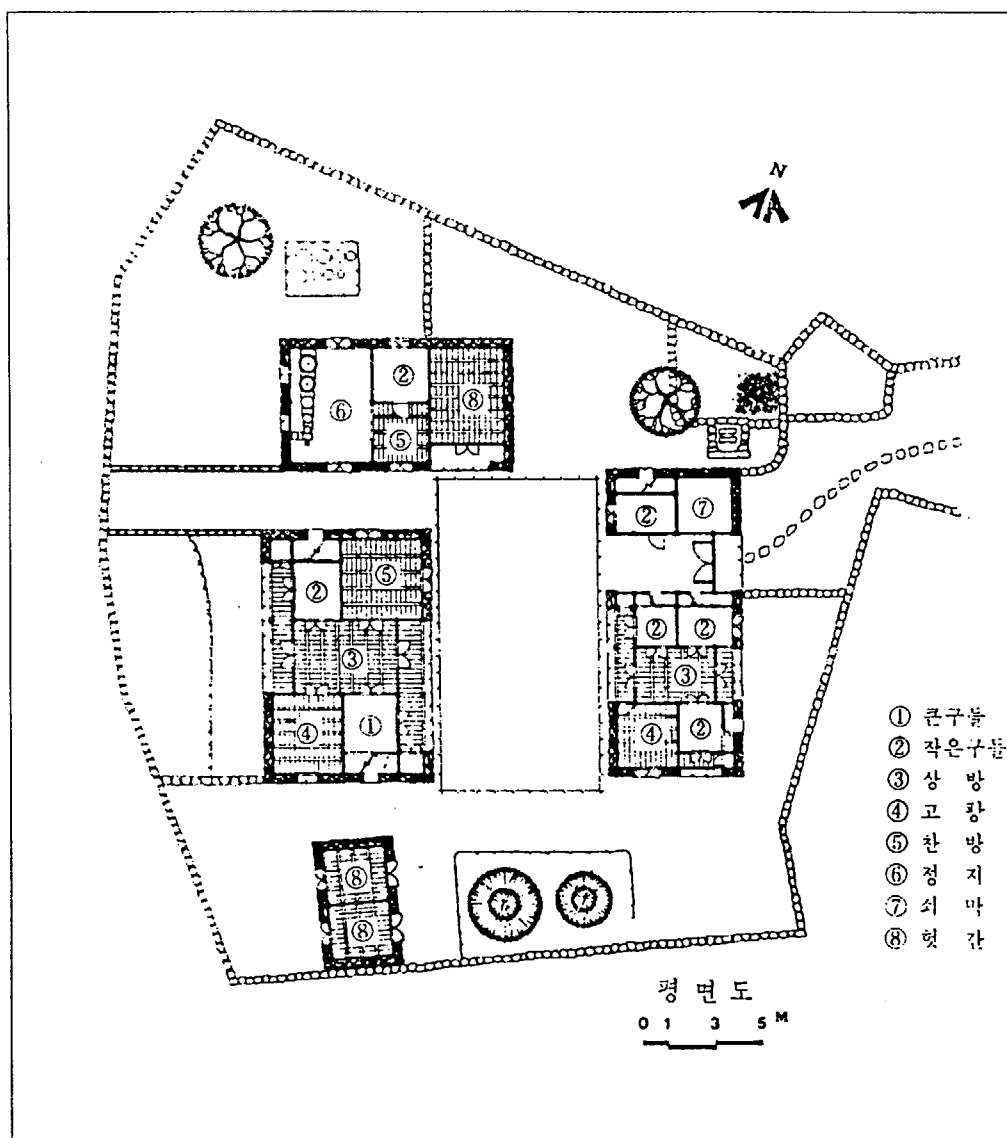
안 거 리 / 3間 前後左右退間 瓦家

밖 거 리 / 5間 前後左右退間 草家

정지거리 / 3間 前退間 草家

헛 간 / 2間 草家

配置形式 : ㄷ字 別棟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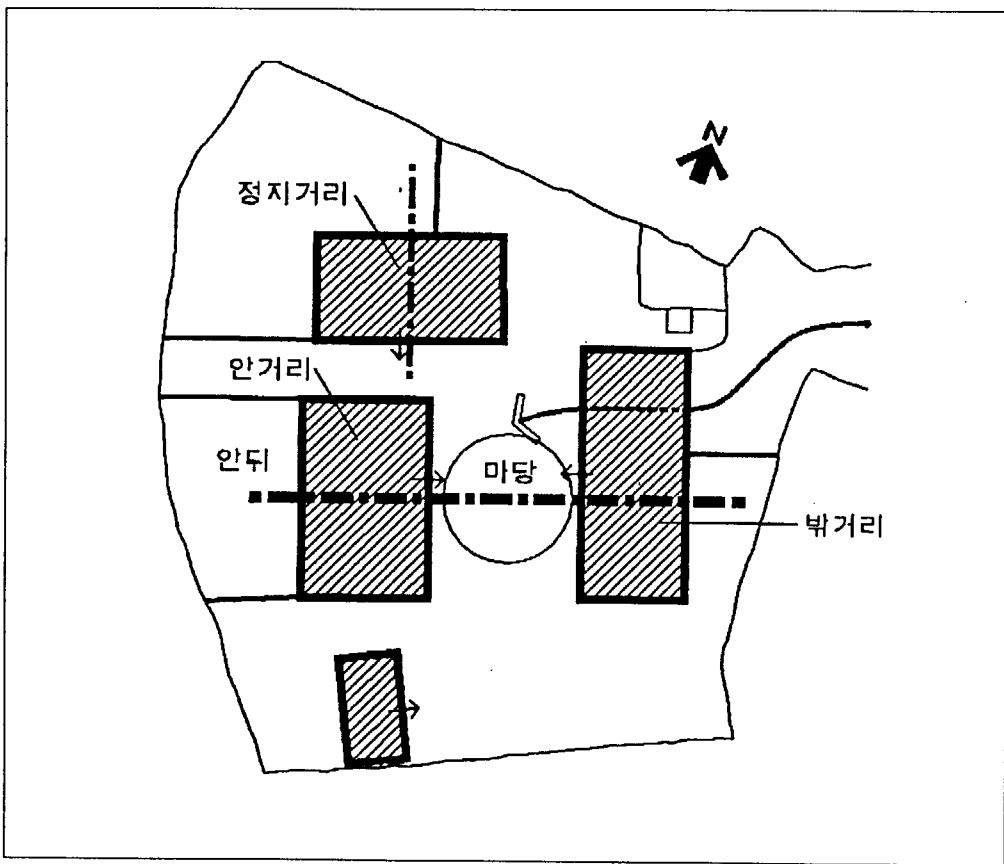


(圖 4-2-11) 新村里 曹氏 家 配置圖

큰 길의 접근로에서 S字 형의 긴 울래를 거치게 되며, 울래목은 밖거리 전면부에서 꺾이어 시선의 축이 바뀌면서 밖거리의 이문간으로 접근하여 안마당으로 정면진입을 하게 된다. 안거리와 밖거리는 중심축에 대향으로

배치되고 안거리 좌측에 별동의 정지거리가 위치한다. 안·밖거리와 정지거리는 직교축에 순응한 배치를 하고 있으며, 정지거리는 안마당 중앙부에서 후면으로 배치하여 안마당의 폐쇄성을 완화 시키게 된다.

안거리는 상방이 가운데 위치한 3間 古式 간잡이 형식이며, 밖거리는 5間的 규모로 1間은 이문간으로 출입부가 되고 머리방은 두고 있으나 외부 공간과의 상관성은 미약한 편이다.



(圖 4-2-12) 外部空間의 構成

안거리와 밖거리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마주한 단행 구성을 한 배치이며,

특별한 공간의 분화는 나타나지 않고 안·밖거리 건물간의 위계는 보이지 않는다. 안거리와 정지거리에 각각의 후정을 가진 것과 밖거리가 5間の規模이며 그중 1間이 이문간으로 구성되는 등 보기드문 형식을 하고 있다.

또한 안거리를 중심으로 정지거리의 반대편에 마루바닥으로 마감된 2間 규모의 추가로 된 헛간과 놀굽이 위치하고 있다. 이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마당이 단핵구성이고 구심성이 크다.
2. 안거리가 3間 古式 간잡이 형식이다.
3. 별동의 정지동이 갖추어졌다.
4. 안담장으로 구획된 외부공간에 분화가 많다.
5. 안·밖거리는 높이의 위계가 생성되지 않고 있다.
6. 머릿방이 있으나 동선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7. 직교축선상에 순응한 배치형식.

(3) 朝天里 黃氏 家

所 在 地 : 朝天邑 朝天里 2373番地

建立年代 : 1890年

建物棟數 : 5棟

안 거 리 / 4間 前後右退間 瓦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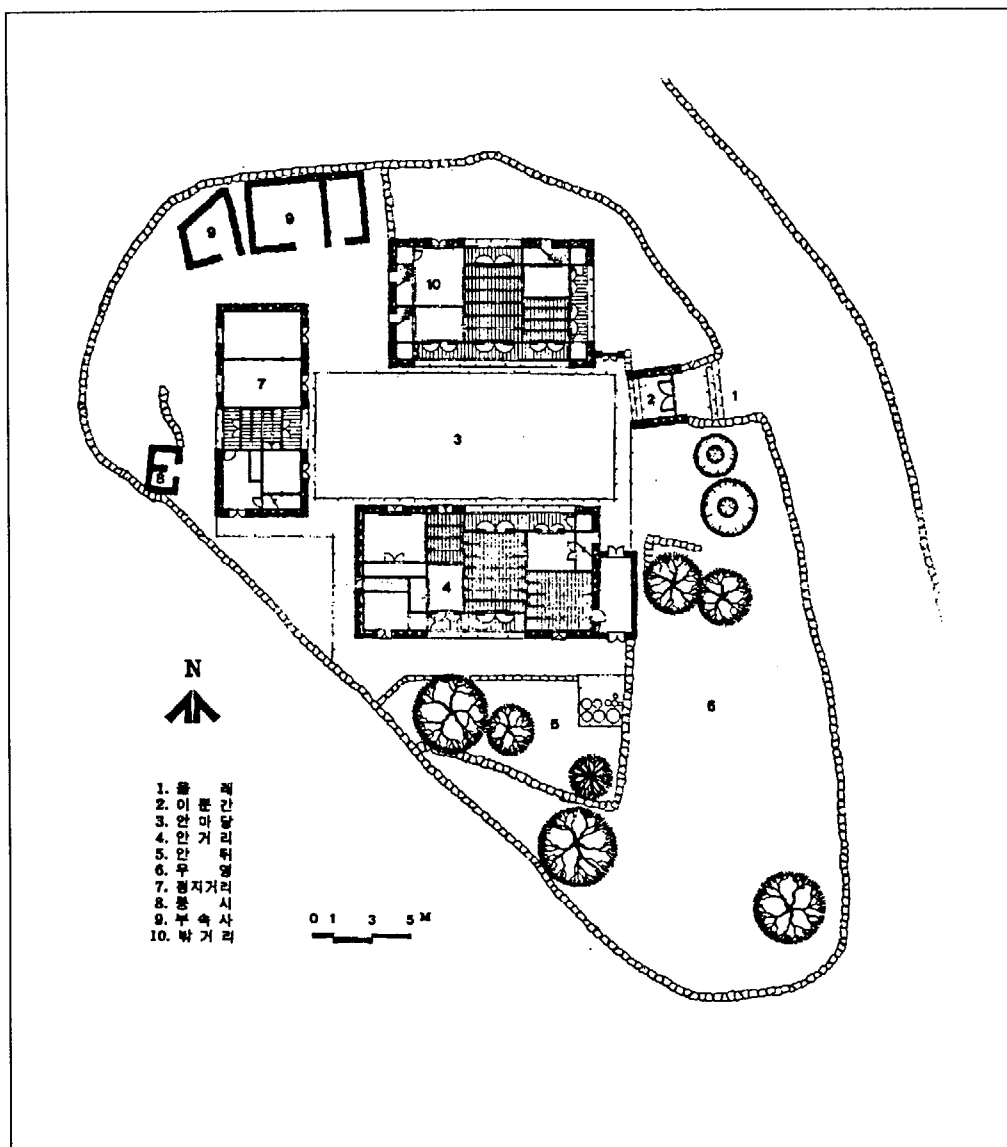
밖 거 리 / 3間 前後左右退間 瓦家

모 거 리 / 4間 前退間 瓦家

대 문 / 半間 瓦家

헛 간 / 2間 草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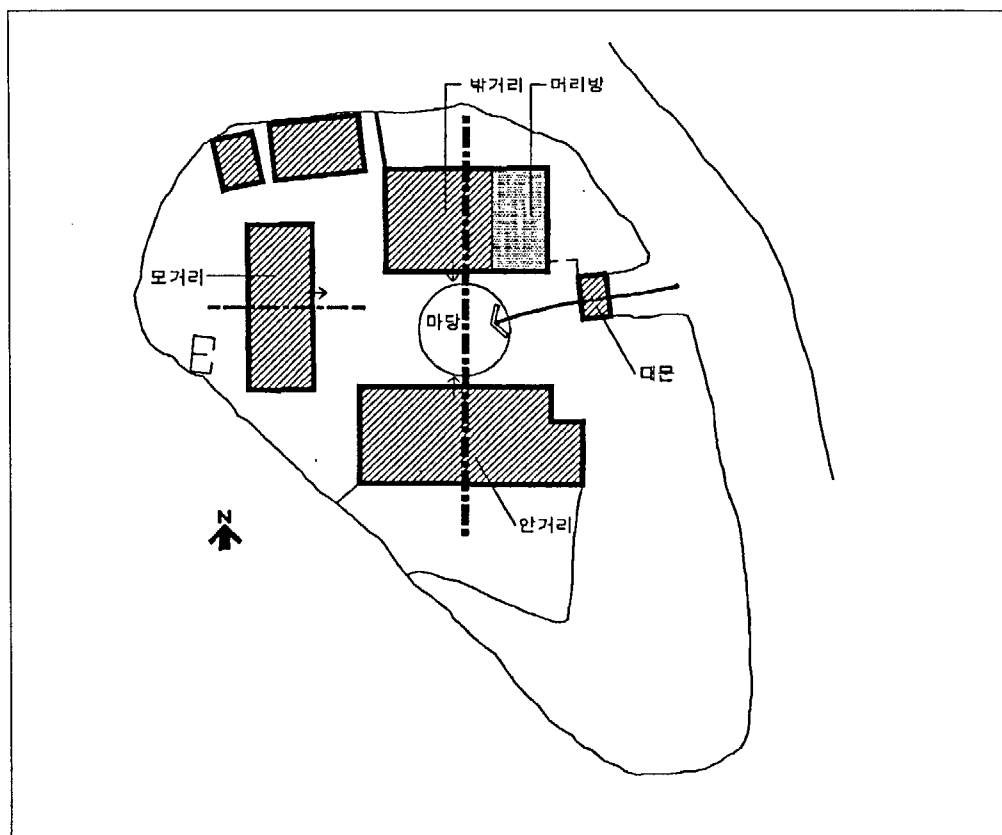
配置形式 : ㄱ字 別棟配置



(圖 4-2-13) 朝天里 黃氏 家 配置圖

대지는 진입도로보다 낮은 위치에 입지하여 안마당으로 접근 하면서 하향의 시각구조를 하고 있다. 접근로에서 짧은 올래와 평대문을 지나 안마당으로 바로 정면 진입을 하게 된다.

안거리와 밖거리의 위계가 稀薄하며, 각 건물은 안마당을 중심한 내향의 求心的 배치로서 정형이며, 안거리와 밖거리, 모거리와 대문이 서로 대향하고 있다. 안거리는 낮은 언덕을 등지고 입지하며 낮은 지역인 안거리의 좌측을 4칸 규모의 모거리로 裨補 하였다.



(圖 4-2-14) 外部空間의 構成

안거리는 상방을 중심으로 한 4칸 규모로서 정지간이 몸체에 위치하며, 閉鎖形的 안뒤가 존재한다. 밖거리는 3칸의 규모로 머리방과 밖거리 마당이 존재하나 그 활용 빈도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등

채와 담으로 구획되어 비교적 공간의 분화는 분명한 편이다.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마당이 단핵구성이고 구심성이 크다.
2. 안거리는 4間 간잡이 형식으로 정지間이 존재한다.
3. 안담장으로 및 건물로 구획된 외부공간에 분화가 많다.
5. 안·밖거리는 높이의 위계가 생성되지 않고 있다.
6. 머릿방이 있으나 동선은 명확하게 안거리와 별도로 분리되지 않았다.
7. 직교축선상에 순응한 배치형식.

2-3. 折衷型

(1) 城邑里 高氏 家

所 在 地 :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809番地

建立年代 : 19世紀初

建物棟數 : 4棟

안 거 리 / 前面 3間, 側面 2間, 前後左右退間 草家

밖 거 리 / 前面 4間, 側面 2間, 前後側退間 草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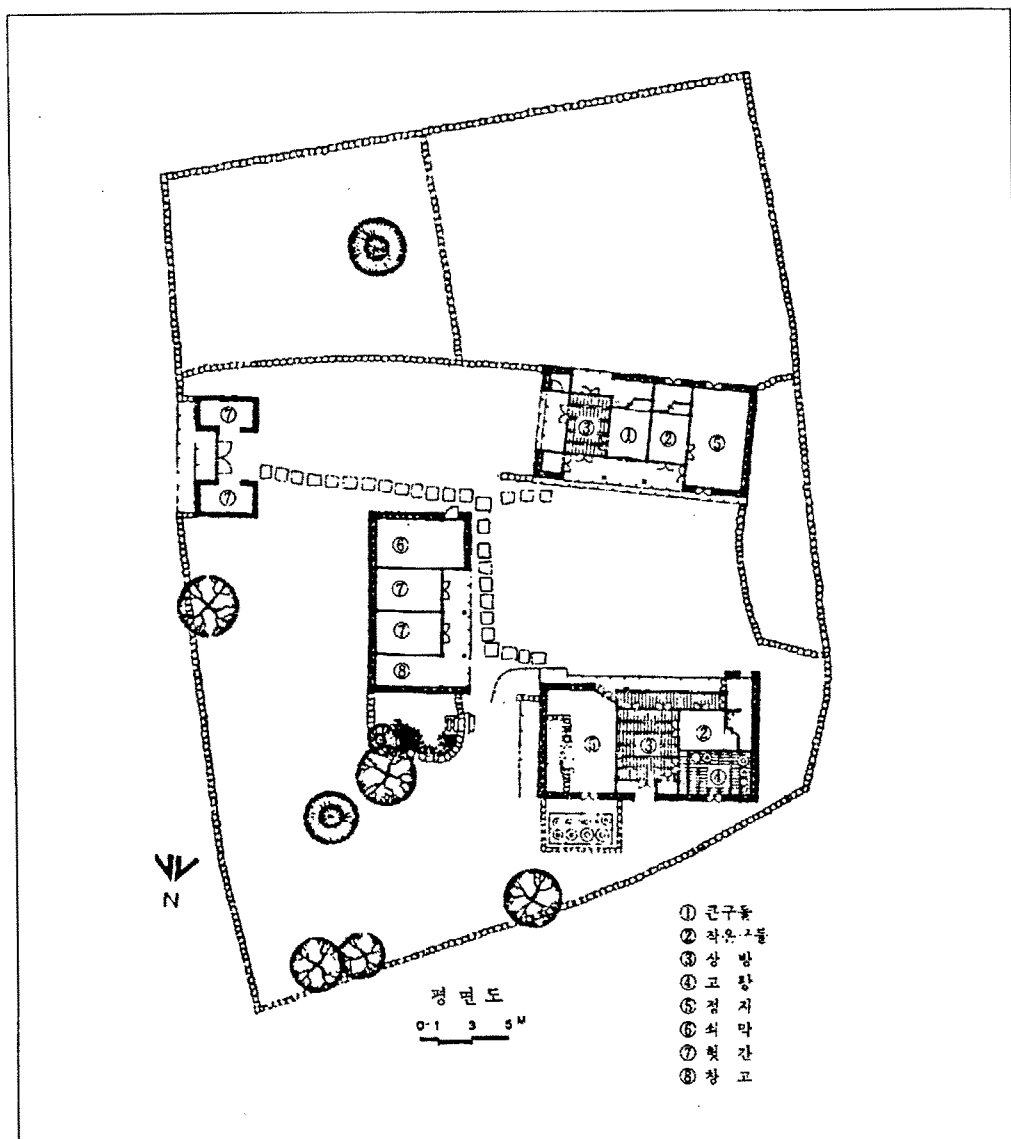
모 거 리 / 前面 4間, 側面 單間, 前退間 草家

대문거리 / 3間 草家

配置形式 : ㄷ字 別棟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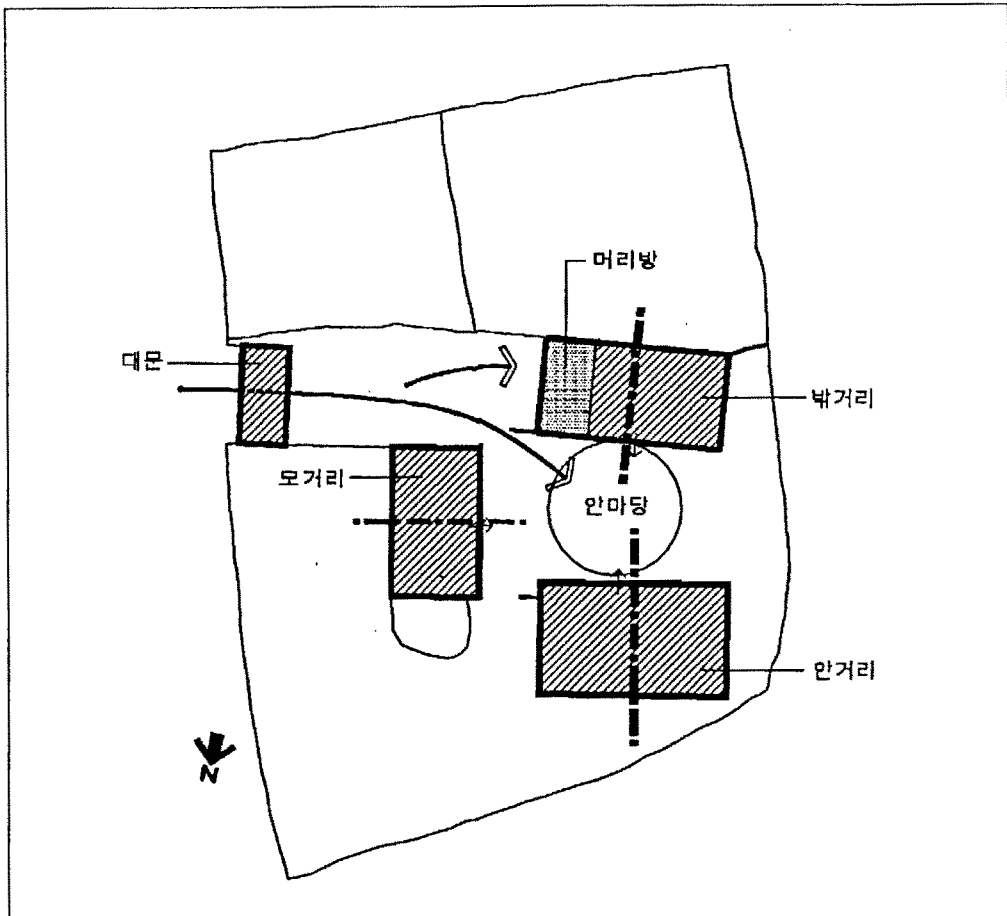
읍성마을인 성읍리의 남문에서 객사터로 이어지는 큰길에 넓은 대지의 긴축이 접하여 있으므로 격식을 갖춘 이문간(대문)이며, 도로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측의 안마당을 求心으로 한 子坐午向으로 안거리의 향을 잡고, 밖 거리와 대향하여 배치하였다.

입구쪽에 모거리를 위치시켜 접근시 안거리로의 시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큰집에 바로 대문간을 세워서 밖거리와 모거리 사이의 전이공간을 통과하여 안마당의 모퉁이로 진입하도록 하였다.



(圖 4-2-15) 城邑里 高氏 家 配置圖

비교적 넓은 대지에 터밭을 여유있게 가지고 있으며, 큰나무를 심는 것이 중산간 마을 민가의 특징으로 큰나무는 생이 없기 때문에 우천시 빗물을 받는데 이용된다.



(圖 4-2-16) 外部空間의 構成

제주 민가의 특성대로 모두 초가인 것은 읍성마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민가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드문형식인 장주초를 사용한 초가 대문간을 가졌다.

2. 밖거리에 머리마루가 있고 측퇴마루를 설치했다.
3. 대문에서 마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머리마루로 출입한다.
4. 마당 모퉁이로 주공간에 진입한다.
5. 밖거리의 머릿퇴에서 마당사이에는 '내외벽'이 시설되어 있다.
6. 안거리가 밖거리에 비하여 높은 위계를 가졌으며 안거리 상방에 호령창을 시설하였다.
7. 국가지정 문화재.

(2) 禾北洞 金氏 家

所 在 地 ; 濟州市 禾北洞 1640番地

建立年代 ; 1901年

建物棟數 ; 5棟

안 거 리 / 前面 4間, 側面 2間, 前後左側 退間 瓦家

밖 거 리 / 前面 4間, 側面 2間, 前後左右側 退間 草家

이문거리 / 前面 3, 側面 單間, 右側 退間 草家

허 간 / 前面 單間, 側面 單間, 草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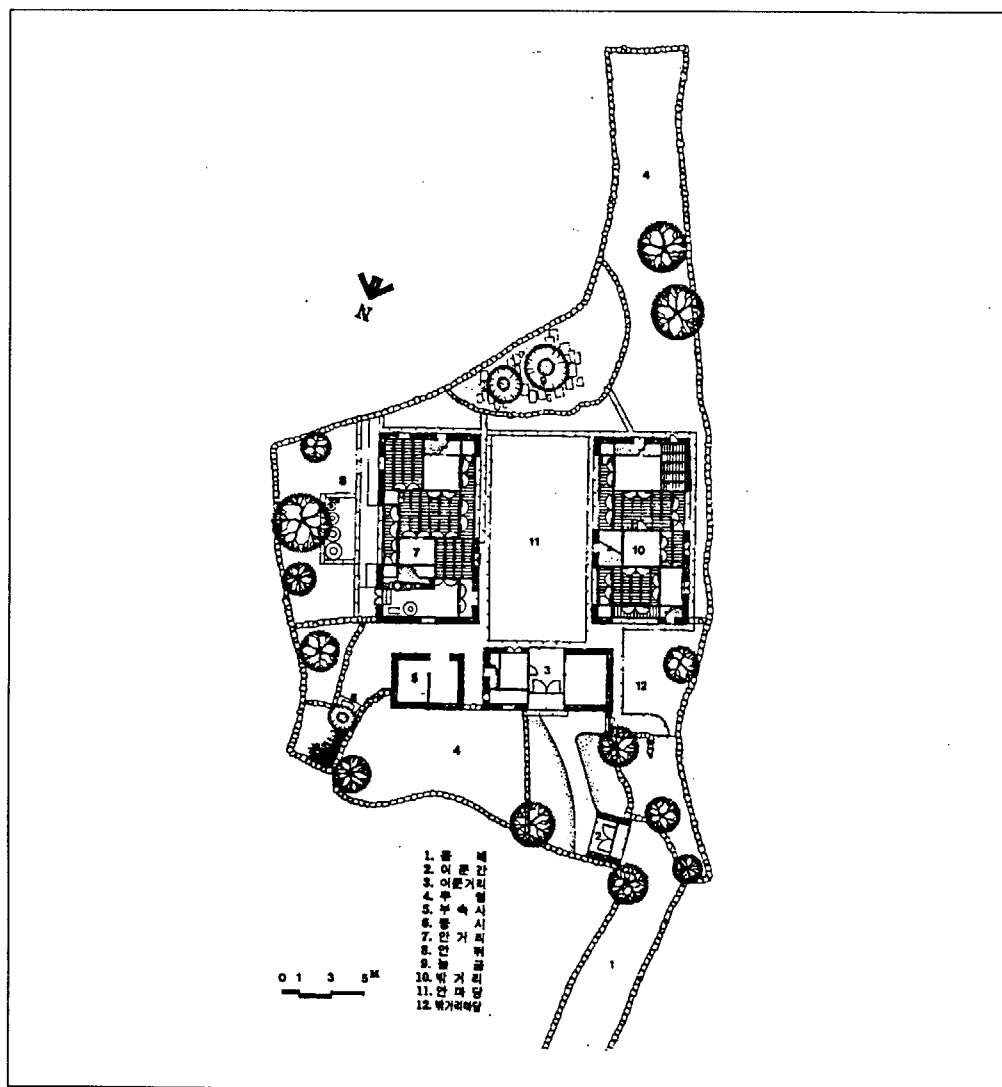
대 문 / 單間, 草家

構 造 ; 2高柱 7梁

配置形式 ; ㄷ字 別棟配置

進入로에 誘導空間인 L字形의 긴 올래(약18m)를 돌아서면 올래목에 位置한 이문간이 나타난다. 이문간을 지나면 이문거리 앞의 轉移空間으로 바깥마당이 있고 여기서 主空間인 안마당 으로의 進入은 平大門의 이문거리를 통하고,여기서 직접 밖거리로 出入할 수 있는 셋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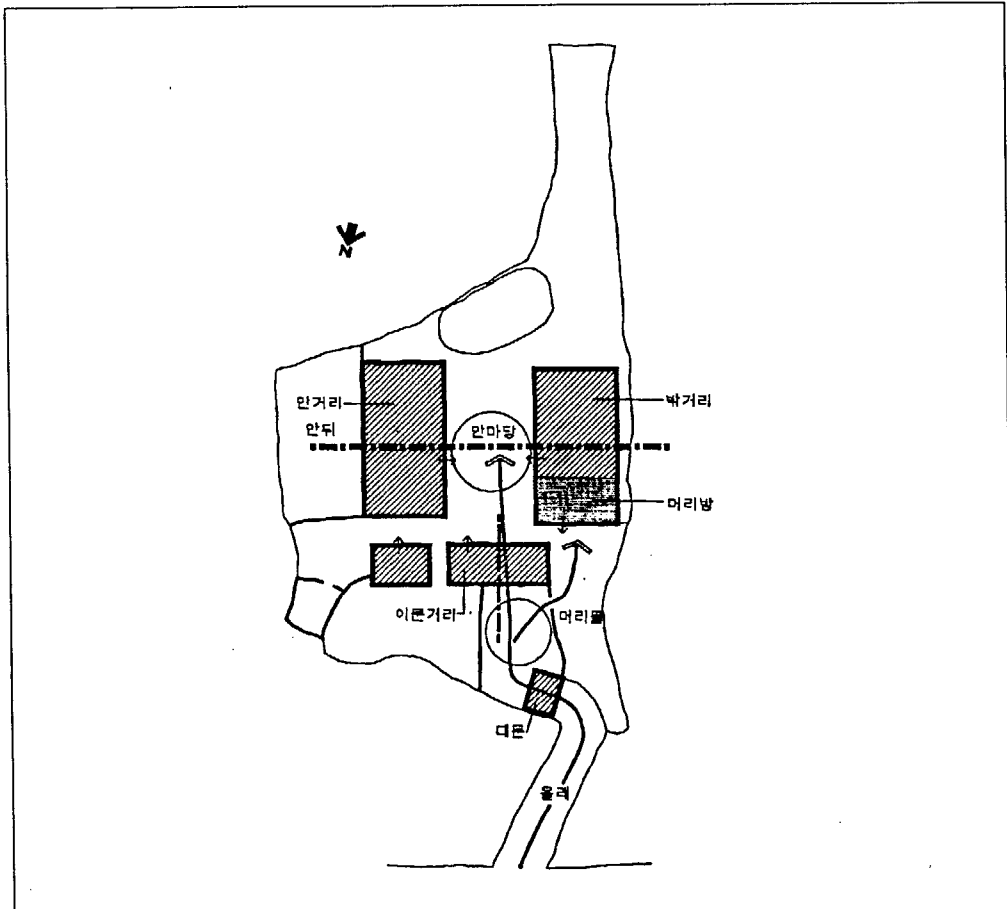
올래에서 안마당에 進入하기까지 2個의 大門을 통과하는 外部空間의 構成으로 안마당까지의 進入에서 誘導空間, 轉移空間, 主空間의 空間分절이 명확하게 나타나 轉移空間에서 안마당으로의 進入과 밖거리로의 進入이 分離된 것은 안·밖거리 空間의 성격분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圖 4-2-17) 禾北洞 金氏 家 配置圖

各建物の 配置는 안마당을 中心으로한 内向한 ㄷ字型의 求心的 配置이며, 밖거리는 側面에 出入部가 있어서 客은 이곳으로 出入 하였다.

안거리에 정지간이 위치하며, 정지의 숲은 육지 방식인 구들을 向하여 設置하였으나 구들의 난방과는 分離되어 있다.



(圖 4-2-18) 外部空間의 構成

밖거리는 床房을 中心으로 右側에 작은구들과 마루방 그 左側에 마루방과 머리방을 位置시켜 육지의 사랑방과 같은 機能의 空間으로서 손님의 接

客 및 바깥주인 居所로 사용되는 男性中心의 社會的 空間으로 女子들의 出入은 制限되었다.

안거리와 밖거리는 各各 1世代씩 2世代가 居住하는 形式이지만 濟州島民家の 안·밖거리형 살림집과는 달리 취사 및 經濟가 分離되지 않고 2世代가 함께 이루어졌다. 모거리는 中門을 中心으로 左側에 말막과 右側에는 장남의 處所로 正面 3間 規模이다.

1. 대문과 이문거리(행랑채)의 格式을 갖춘 공간구성.
2. 안마당 중심의 内向적인 求心配置면서 밖거리에 머리방과 밖거리 마당이 존재하며, 밖거리로 별도의 출입동선 확보.
3. 안거리가 중심공간으로 밖거리와의 위계가 뚜렷함.
4. 안·밖거리의 4間 간잡이는 19세기 중반이후 ‘양택론’이 적용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5. 전형적 제주 민가 형식에 유교문화를 반영시킨 형식이다.

(2) 三陽洞 姜氏 家

所 在 地 : 濟州市 三陽 2洞 2067

建立年代 : 19世紀 中期

建物棟數 : 3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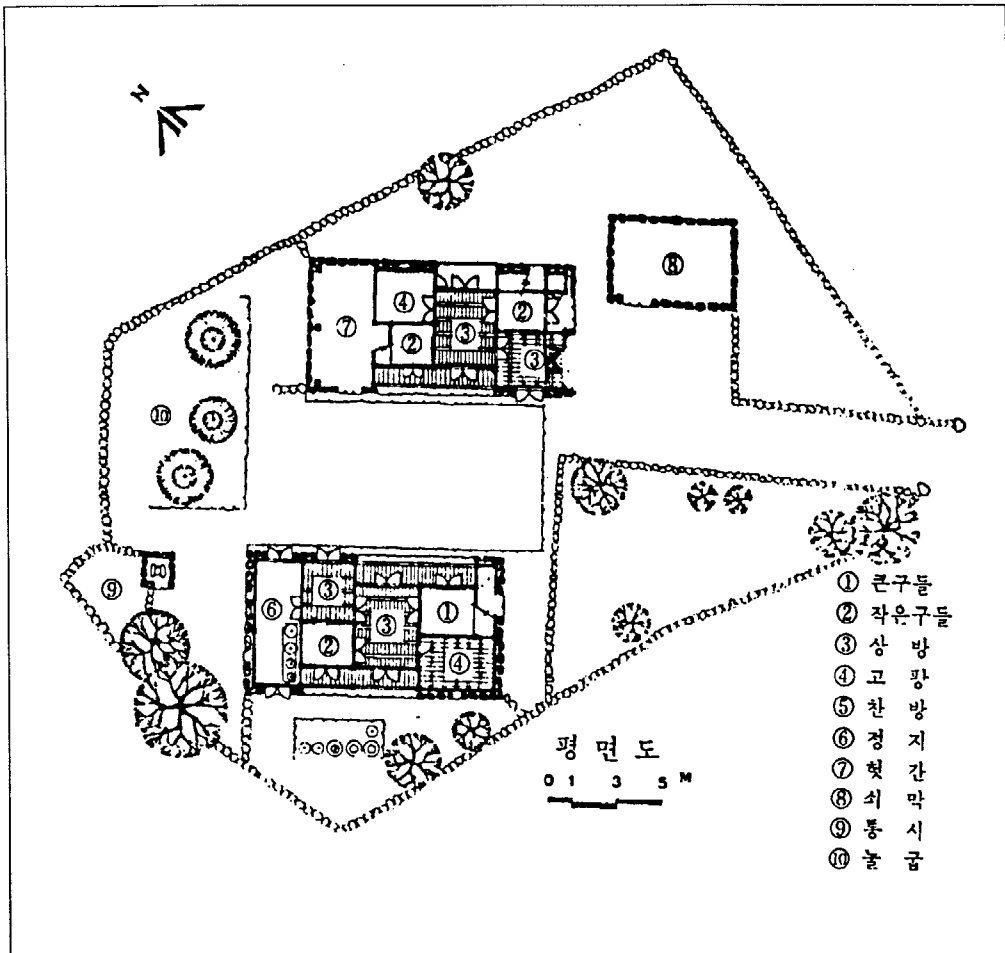
안 거 리 / 前面 4間, 側面 2間, 前後側 退間 草家

밖 거 리 / 前面 4間, 側面 2間, 前後側 退間 草家

모 거 리 / 뜰실

構 造 : 2高柱 7梁

配置形式 : 二字 別棟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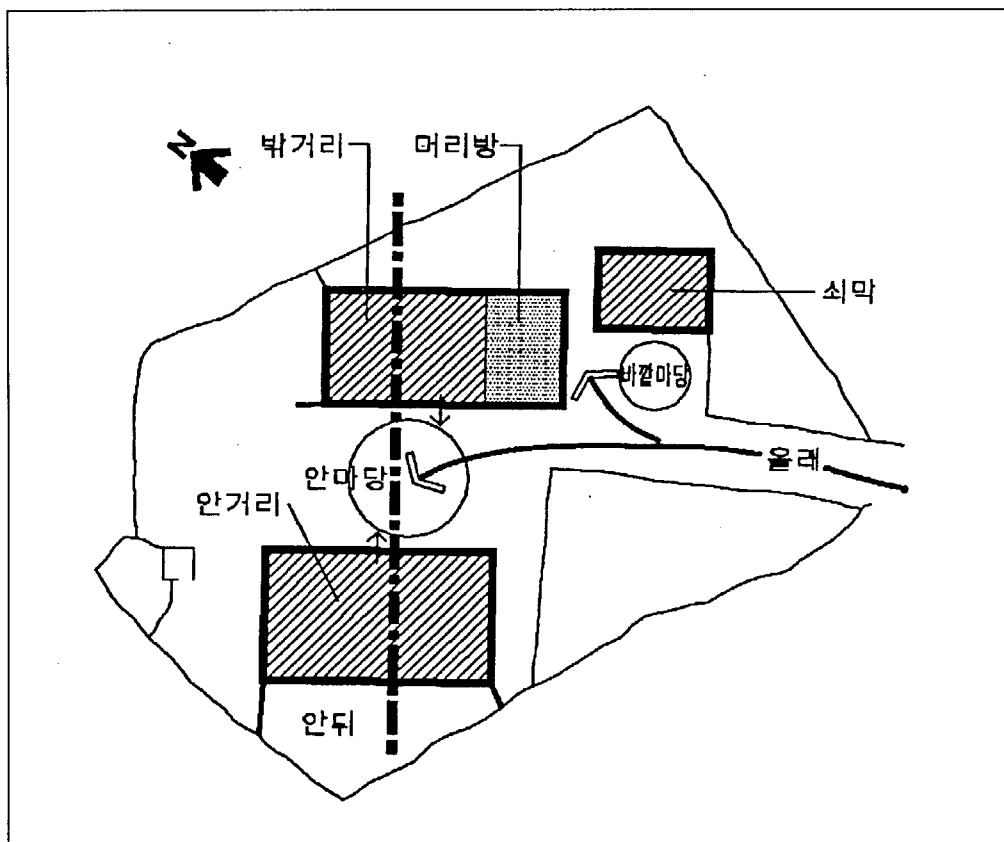
(圖 4-2-19) 三陽洞 姜氏 家 配置圖

대단히 긴 골목 끝 앞은곳에 진입에서 내림길로 진입한다. 골목안집이므로 대문이 없다. 단지 경계구분을 위한 조치를 약간했을 뿐이다.

안,밖거리가 같은 규모, 같은 높이로 마당을 사이에 두고 병렬 배치하고 있다. 단지 밖거리가 올래 쪽으로 머리를 나아가 배치되고 여기에 머리마루와 머릿퇴를 두었으므로 진입동선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유도된다.

진입동선이 집과 마당의 방향과 동일하다. 안거리가 뒷언덕을 의지하여

앞았고, 뒤로 큰나무가 있어 마당안이 적당한 크기로 아늑하다.



(圖 4-2-20) 外部空間의 構成

안·밖거리의 위계가 없으며,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문이 없는 골목안집이며 내림길 진입(낮은 대지)
2. 밖거리가 입구쪽으로 전진해 있고, 머릿마루가 있는 것은 19세기양식.
3. 건물에 위계가 없는 것이 특징
4. 4間 간잡이는 19세기 중반이후 양택론이 적용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5. 전형적 제주 민가 형식에 단지 '머리방'만 변용시킨 형식이다.

第3節. 分析 綜合

19세기는 우리민족사의 전환기였다. 마찬가지로 민가에서의 변화도 前代에 없던 대변화를 맞고 있다. 신분제도의 붕괴와 상업경제의 발전으로 대표되는 사회변동은 이미 전세기에 시작되어 있었고, 정부가 무기력해졌으므로 경제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큰 집을 지을 수 있게되었다.

1880년대에는 이미 서울, 부산, 인천, 원산의 일본인 주거지를 중심으로 일식주택과 粗惡한 日.洋 절충식 건축이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여기 이 事例調査 대상 민가는 민족적 자주 資本에 의한 최후의 전통민가로 평가될 可能性을 가진다. 그것은 인조 7년(1629년)이래 出陸禁止令으로 고립되어 있던 濟州 사회에 英祖 년간에 시행된 이 지방에 대한 特惠政策에 힘입어 얻어진 경제적 여유가 뒤받침 되어 이루어졌다.

事例 調査 대상민가에서 分析한 變化의 내용은 空間의 側面과 이를 形象化하고 구조 기술의 두 측면에서 파악함이 바람직 하지만 빠른 변화 속도를 보이는 재료나 構造 기술의 측면보다 空間의 變化에 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

민가의 발전은 공간의 擴大 및 分化現象으로 나타나는 한편 노동력의 절감이라는 합리성이 그 내용이 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확대, 분화현상이 위주이고 合理性은 이미 前 시대의 제주 민가에서부터 選擇했던 特性이었다.

垆地의 選定 基準으로 적용되는 낮고 우묵한 곳에 대한 選好는 바람없는 미기후에 대응하는 기본 욕구로 지속적이며, 마당을 중심으로하는 求心配置의 특성 역시 공간에 대한 욕구의 범주이므로 불변적 요소로되어 있다.

큰 집들이 마을 안의 주요 간선도로에 연하여 배치되는 것은 新傾向이다. 사례 중 삼양동 康氏 家만 골목안 막다른 집인데 나머지는 전부 큰 길

에 접하여 긴 올래 이거나 짧은 올래로 마당에 우회하여 진입하는 것보다 직접 진입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生理가 우선 된 선택이다.

전혀 색다른 것은 밖거리의 向에 안거리를 등지는 同一向이거나 측면을 개방하는 현상인데 이 시대의 형상 대표적 변화로 지적할 수 있는 空間分化 현상이다. 이 경우 新村 康氏 宗家は 밖거리(사랑채)와 안거리가 완전한 棟의 分化로 隔離된 사례로 島內유일의 異型民家로 分離 된다.

그러나 生理學的 위계에 의한 전후나 좌우의 위계성 배치 理論이 적용된 흔적은 확인 할 수 없다. 위계의 해석 기준이 색다름에서 나타난 형상이다.

공간의 分化된 내용이 없이 규모만 커져서 은유적으로 空間分化를 수용한 사례가 朝天 黃氏 家와 城邑의 曹氏 家인데 사상적 변화를 받아드리지 않는 保守的인 유형이지만 많은 사례가 19세기 이전의 민가의 틀을 가지고 밖거리의 일부에 새로운 공간분화 욕구를 수용한 형식이다.

기존 양식의 漸進的 變容이라는 이상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이 事例들은 分布層이 확대 되어 있고 보면 지역적 欲求에 부합되므로 19世紀型 제주민가의 대표형이라 할 수 있다.

판거리 정지가 나타난 것이 다시 19세기 제주민가의 특성이다. 제주민가는 이미 中央의 床房 양측에 방과 부엌을 가진 三間形式이 일반형이므로 이때와서 새로운 요구에 따라 別棟 정지가 나타난 것으로 봐야 옳다. 이 현상을 日本 西南部 島嶼地方의 二棟造 民家와 동류로 판단하는 것은 제주민가의 별동 정지거리는 上流層 민가와 일찍 都市性 취락을 형성한 濟州城內, 禾北, 朝天 涯月 등 地域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민가형식이다. 이 경우 정침인 안거리는 古典 간살인 삼간집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미루어 일본의 경우는 二棟造가 연결되어 구도(〈と〉)造로 바뀌는 순서로 진전 되었으

며, 濟州島에서는 역으로 연결된 삼간집이 分棟, 네간집으로 다시 연결의 수순으로 變容되고 있는 것이다.

집자리가 길가로 나서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대문의 出現을 요구하게 한다. 여기 에 연결하여 바깥마당이 분화되게 되므로 건물이 규모는 커지면서 공간구성은 다양해지는 반면 構造는 簡潔해지는 내용의 근대적 合理性을 成就해가는 방향으로 變容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공통점을 정리 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표출시킨 19세기 민가의 성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분류의 기준은 내외법의 영향인 성별 공간 영역의 분화상태와 배치 및 진입방법에 어떤 계획론이 적용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1. 공간분화가 中牆시설에 의하여 이격된 경우와 안·밖거리가 중심축선에 배치되고 밖거리가 사랑의 개념에 따라 앞으로 나와서 배치된 형식은 육지 상류주택의 영역설정 개념이나, 간잠이법이 적용되었으므로 ‘班家型’으로 분류한다.

新村里 康氏 家와 郭支里 秦助防將 家, 朝天里 金氏(旌義縣監) 家

2. 傳統民家型은 기존 민가가 가지는 구심형 공간배치형식을 가졌고 규모가 커졌거나 기와집인 경우와 안·밖거리에 위계가 없는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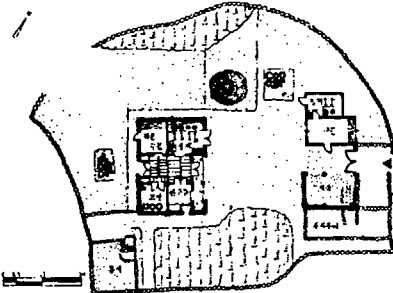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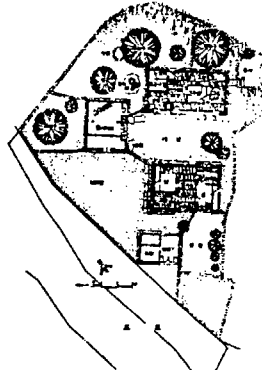
城邑里 曹氏 家, 新村里 曹主事 家, 新村里 曹氏家, 朝天里 黃氏 家

3. 절충형은 배치형식이 민가와 같으나 머릿방, 머릿마루가 있고 客의 공간으로 별도의 동선이 설정된 경우로서 가장많은 분포빈도를 보이는 민가형식을 말한다.

城邑里 高氏 家, 三陽洞 姜氏 家, 朝天里 安氏 家, 朝天里 金氏(平昌郡

守) 家등 다수이다.

<表 4-2-1> 18世紀와 19世紀의 濟州島 民家 比較

名 稱	18世紀型 民家	19世紀型 民家
平 面 圖 및 配 置 圖	 두거리집 조친읍 조친리 2916 양氏 家	 곽지리 진氏 家
創 建 年 代	18世紀末	19世紀 中기(1859년)
塋 地 條 件	密集住居	密集住居地
正 寢 坐 向	坤坐良向	良坐坤向
밖 거 리 向	안거리와 對向	안거리와 동일향
配 置 形 態	二字型 배치 (구심형)	ㄷ字型 配置
마 당 構 成	單核	마당분화
進 入 方 法	안거리 정면으로	右回하여 마당의 週部로
道路와의 關係	마을 안길	큰길가에 連結
안거리 간잡이	3칸 草家	4칸 초가
밖거리 간잡이	3칸 草家	3칸 초가
부 속 形 式	住居棟 內	別棟 부속
大 門 形 式	이문거리 형	大門
平 面 特 徵	방 + 中央床房 + 부속	머릿방이 생김
特 徵	안·밖거리 別途 정지 位階가 없는 配置 空間構成이 單純 무속적 計劃이념 적용	머리들이 생김 內外壁(안담장) 시설 空間構成의 變化性이 크다 진입동선에 굴절이 많다 예학에 의한 성리학적 계획이념이 적용

이상과 같이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특성에 따른 세가지의 유형분류와 그에 영향을 미친 민가의 변용 형상은 다음과 같은 특질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공간이 성별분화현상이 나타났다.
2. 이중대문은 드물게, 이문간은 필수 구성요소가 되었다.
3. 안거리는 3칸 간잡이일 경우에 별동정지형이고, 연대가 올라가는 사례가 이 형식이 많다.
4. 마당이 분화가 안된 형식은 규모가 증가되었다.
5. 머릿방, 머리마루가 있는 사례가 많고, 이와같은 기능에 따라 공간분화가 나타난다.
6. 대형민가에는 와가의 출현빈도가 많아졌다.
7. 높이에 따른 안,밖거리의 위계가 나타났다.
8. 공간체계는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9. 안담장, 내외벽, 완상용정원이 출현하였다.
10. 실용적 공법이 적용되었다.

第5章. 19世紀 濟州島 民家の 變容

第1節. 變容形相

1-1. 空間體系의 變化

공간은 물체로 채워지지 않은 빈곳을 의미하며 폐쇄된 형태 속에 비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공간은 있다는 것의 의미보다 인간에게 인식, 활용된 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공간의 인식은 공간을 에워싸고 있는 경계 요소에 의한 것이지 공간 자체를 보는 것은 아닌 것처럼 공간 그 자체는 非物體인 것이다. 인식 체험이 누적되어 고유한 관념으로 유추되는 결과로서 ‘있음’이 곧 공간이다.

이 경계 요소인 물체의 성격을 결정 짓는 요소는 그 대상물의 위치와 그 특성에 내재된 질서 요소로서 형태, 크기, 구성 상태와 질감, 색상, 광선의 상태 등이 있다.

그러므로 공간의 고유성은 이 요소들의 형식에 따르는 것이고 여기 공간 체험은 視覺的 공간 인식에는 時間的인 누적을 통하여 인식되는 繼時的 성격이다. 공간 인식은 時間的인 차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 공간은 언제나 선적 연속성이 내재된 ‘공간체계’로 체험되는 것이다. 또 이처럼 흐르는 물처럼 연속된 공간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한국 건축의 고유성이라고 했다.⁴¹⁾

제주도 민가의 공간 체계상에서 고유성은 前章에 설명한 바 있다. 그 내용이 19세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하는 관심을 선행시키는 것은 공간 차원에서 전통에 대한 해석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41)안영배, 寶晉齋, 1978, P.38

(1) 二重大門

공간 체계의 변화는 단조로움에서 다양성과 다층화로, 조악한 형식에서 精製된 技法으로 변화가 그 내용이 된다고 하겠다. 이중 대문의 출현이 그 변화의 첫째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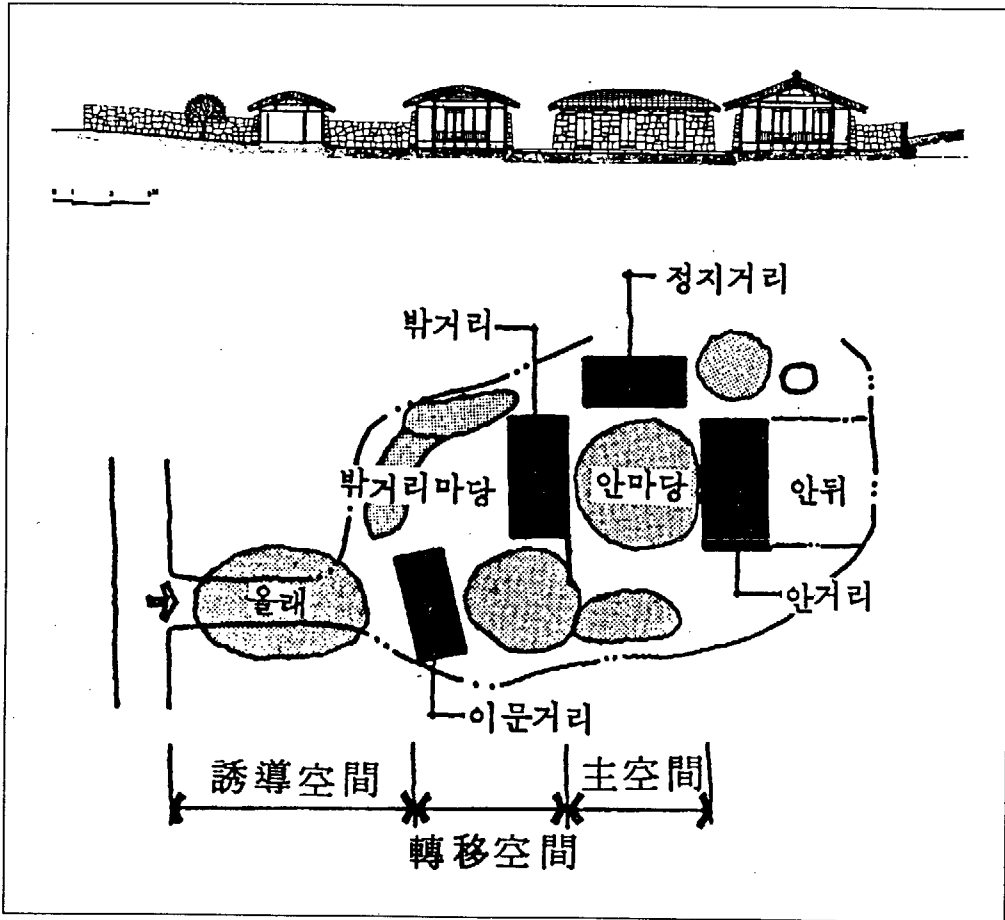
원래 제주 민가는 문이 없는 형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정낭이라는 원초성 장치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그러나 마을이 集村취락 형식으로 대형화된 濟州牧, 禾北鎭, 朝天鎭, 涯月, 納邑과 邑城이었던 大靜과 旌義에서는 문을 둔 민가가 많았었다.

門은 어느 시대에도 상징성으로서의 의미가 큰 시설이며 特히 조선 시대에는 크기와 그 숫자로 권세를 과시하는 표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中國의 禮書의 ‘宮室制道’에 ‘五門三朝, 三門三朝’라는 기록에서처럼 신분에 따른 제도에 바탕을 두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제주 민가의 대문은 독립된 평대문이거나 밖거리의 한 칸에 설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흔치않은 事例로 二重으로 大門을 두는 것이 注目되는 변화 현상이다. 밖의 것을 大門이라 하고 안쪽의 것은 二門으로 호칭한다.

二重으로 大門이 설치되는 것은 主공간에 대한 경계 요소로서 공간의 커를 더함으로써 몸체공간에 위계성과 중심성을 강조시키자는 의도의 표출이고, 도입부(울래)-본채(마당을 중심으로 한 안·밖거리)-안뒤로 된 단순한 제주 민가의 三分 構成이 上流 民家の 공간 체계인 대문, 행랑채-중문, 사랑채-안마당, 안채의 다양성으로 전이된 것을 말한다.

대문이 중첩하여 시설됨으로 해서 공간 체계에 절점이 분명해졌으므로 결과적으로 19세기 제주 민가의 공간 체계는 표현 의사를 구체화시킨 형식이다.



(圖 5-1-1) 19世紀 濟州 民家の 空間 體系

(2) 머릿방(頭房)

19세기에 陽宅書인 陽宅要訣의 三頭房西四吉宅圖와 三頭房東四吉宅圖에 는 頭房과 高房이라는 房 名稱을 쓰고 있다. 끝머리에 위치한 방에 붙인 명칭이다.

다른 陽宅書인 宅譜要典의 繪圖全說을 설명한 그림에서 ‘左廳右堂’이나 혹은 ‘右廳右堂’이나 혹은 ‘右廳左堂’하는 글에서 한쪽으로 대청을 보내고 반대쪽에 구들을 배치하는⁴²⁾ 칸잡이 법이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한쪽 끝에 배치된 방을 ‘머릿방’ 혹은 ‘머리마루’라고 호칭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민가는 측면으로 出入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19세기에 지은 중대형 민가에서 밖거리의 측면에 뒷간을 뒷마루로 해서 그쪽으로 즉 머리방으로 출입하는 새 형식이 나타난 것이다.

前章에서 19세기 민가를 분류하면서 折衷型으로 설명한 事例의 대부분이 민가의 밖거리에서 이와 같은 간잡이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즉 안·밖거리로의 動線분리가 마당에서 이루어지던 전례의 방법이 마당에 들어서기 이전 위치에서 이루어져서 조선 시대 班家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인 사랑채의 개념이 移入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사랑은 ‘中門에 가로놓여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를 말한다’⁴²⁾고 하였으며 茶山の ‘雅言覺非’ 卷三 사랑조에는 ‘사랑자 堂側之橫廡...’하여서 그 用途와 형상을 이해하겠는데 班家の 典型은 사랑을 정침과 中牆으로 隔하여 두는 것이나 宅譜要典에는 ‘中小建 則 中牆未隔, 故五門之外’⁴⁴⁾ 하여서 큰집이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제주 민가는 후자의 경우가 된다.

머릿방, 머리마루의 출현은 안·밖거리 대향 구성에 변화를 가져와서 前時代 제주 민가의 기본적 특성인 구심적 공간 체계가 달라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현상은 이제까지 안·밖거리 世代別 영역 구성에서 성별 영역 형성으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이 성별에 따른 영역 구분이 期必 19세기에

42)金鴻植, 李海成-19세기 양택론에 나타난 살림집의 간잡이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88, 12, P.103,

43)이호열, 조선 전기 주택사 연구, 영남대 박사논, P.71에서 재인용, 1991.

‘松南雜識’ 한국고전총서 亞細亞文化社 影印 P.969

“御天歌註 中門橫廡待客之所 俗謂斜廊...”

44)金鴻植, 李海成 前嶋書 P.102

일어난 현상이라기보다 이 시대의 민가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격에 대한 區分이다.

1840年の 제주의 유배객인 名筆 秋史가 자신의 謫家를 편지에 쓰기를 ‘埃則爲一間 南向有眉退... 內舍則使主人 依旧人處 只概外舍割半分界 足以容接’⁴⁵⁾이라 하였다. 여기 眉退는 머리퇴를 稱한 것이고 밖거리를 半分한 사랑의 ‘머릿방을 謫居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집주인은 校吏 宋氏라 했으니 낮은 관리들의 주거 형식도 대개가 이와 같았다 할 수 있다.

(3) 別棟정지

19세기 초, 중기 대형 민가에서 보이는 특성에서 별동정지 형식이 있다. 이 특징은 이 시대 대형 민가에는 아주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특징의 배경을 남방 문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으나 琉球를 비롯한 日本 九州의 민가에서 나타난 主棟과 釜棟으로 이루어진 소위 二棟造와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는 원형이 別棟으로 발생하여 接合되는 순서로 발전 과정을 가지는데⁴⁶⁾ 반해서 제주 민가는 그 발전 형식에서 확인되듯이 막살이집, 두칸집, 세칸집 모두가 본채안에 부엌이 붙어 있는 형식이 없다가 19세기 제주 전통민가의 발전 최종 단계에서 分棟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거 형식은 언제나 바탕에 내재되어 있는 이념이 동질성이 형성되고 나서 형식을 발생시킨다는 원리를 상기하면 이 변용의 이념 발견에 관심을 두게된다.

제주 민가의 별동정지 형식의 연원을 밝히는 데는 첫째 이 형식을 가진 민가들의 창건주가 모두 지배층이거나 부농 계층에 속하는 신분이고 중,

45)崔完秀, 金秋史 研究草, 지식산업사, 1976, P.46

46)杉本尙次, 日本 民家の旅

대형 民家라는 점과 둘째는 이 민가 형식의 정침인 안거리의 간잡이는 공통적으로 삼간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셋째는 창건 연대가 19세기 중기 이후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래된 초기 형식이라는 것이다.

조선 시대 지배층들은 禮書上의 建築제도를 理想的인 전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제도는 三代(夏, 殷, 周)의 궁실制度가 禮書에 표현된 住宅(殿屋, 厦屋) 및 廟(家廟, 祠堂)를 비롯한 모든 建築制度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했다.⁴⁷⁾ 三代之 궁실제도는 中國 四合院 住宅의 공간형식으로 이어졌다. 사합원에서는 각단위 건물을 ‘廳’이라 하고, 청을 三分하여, 세 개의 공간으로 區分한다. 중앙의 공간이 堂으로서 公的인 공간인 동시에 제사를 모시는 상징적 공간이고 左, 右에 사적 공간인 臥室을 두어 소위 ‘一明二暗’으로 중국 주택을 특징짓고 있는 것이다. 이 古制의 尙古의 선택이 정침 三間형식이다.

즉 禮制에서 강조되는 中心性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三間 正寢을 固守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분상의 권위와 명분을 위한 형식을 우선시키는 성리학적 이념이 별동정지를 선택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1-2. 새로운 조형 요소

(1) 기단

기단은 건물이 주변으로부터 시각적으로 우월성을 갖게 하고 위계를 갖도록 하는 결정적인 조형 요소로서 지붕, 기둥과 함께 東洋系 建築의 기본 구조 요소이다. 林園十六志 瞻用志 基址條에 ‘우리 나라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臺址에 계단석을 높이 쌓지도 않고(中略) 왜소한 섬돌(蹊階)을 놓는

47) 洪升在, 조선 시대 예서에 나타난 건축적 도면의 해석에 관한 연구, 건축사 연구, 1992, 12, P.65

데 자리를 잡고 나면 습기를 쉬 빨아들인다.’하여 옛 제주 민가와 다름없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민가는 바람에 대한 적응 형식으로 기단이 없는 구축 방법을 정착시켜 건물간에 위계가 없는 공간을 특징으로 형성해 왔던 것이다.

기단의 변화는 기존 민가가 갖고 있는 無位階의 특징이 소멸되는 의미이므로 중요한 변화로 지적되어야 한다. 기단 높이는 事例조사에서 新村里 康氏宗家の 경우에 55cm로 최고이며 玄武巖을 잔다듬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거는 林園十六志 屋三分 條의 ‘무릇 가옥에는 三分이 있다. 들보 이상은 上分이요, 땅 이상은 中分이고 기단은 下分이다. 무릇 부재들은 서로 적절한 尺度가 있어서 옛사람들이 척도에 대하여 전전궁궁함이 이와 같았다. 대개 下分이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높은)면 담벽이 습기를 빨아들이지 않고....’란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주 민가의 기단은 가옥의 전면 퇴가 시설된 구간에서 階段形式으로 설치되었으므로 권위성보다는 實用的인 쪽의 성격이다.

18-19세기의 진보적 사상인 실학이 제주도 민가의 변화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 민가의 기단은 가옥의 전면 퇴가 시설된 구간에서 階段形式으로 설치되었으므로 권위성보다는 實用的인 쪽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2) 내외벽

내외벽은 男女有別의 사회윤리 규범에 따라 중문간에 내외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여 문을 열고 바로 안마당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차단시키는 벽을 말한다. 오늘날의 가리개와 같은 기능을 지닌 것으로 面壁이라고도48) 부르는 것이나 제주 민가의 경우는 이와 꼭 같지는 않고 공간의 모서리 부

분에 일정 區間만 설치하여 차단하거나 영역을 은유적으로 구획하는 장치인데 朝天의 金(萬戶)家, 金(旌義)家, 성읍의 高氏家, 광지리 秦助防將家, 朝天 金(평창군수)家에 사례가 확인된다.

이 장치는 공간을 적극 분리시키지 않고 모서리만 강조하므로 공간 성격은 잃지 않으면서 시선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은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上流 民家の 조형 요소와 공간의 성격을 갖추면서 합리성을 동시에 가진 신경향의 收容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19세기 제주 민가의 조형요소 중 매우 독자적 성격을 갖춘 공간 장치이다.

(3) 머릿뜰

‘머리방은 接客과 學習으로 쓰였다. 詩會와 觀風의 공간이다. 19세기 末 濟州 謫客이었던 雲養 金允植의 續陰晴史에 자신의 謫所인 濟州 校洞 金判官家를 ‘第舍寬敞華好 几案潔淨 又有花園散步之處 ...’하여 當時 제주 상류 민가의 면모가 예측되는데 散步할 만한 花園이 있다 함이 異彩롭다.

섬용지에 ‘書齊南北庭下 宜砌石爲階’로 서재 가까이는 石階를 쌓아 꽃나무와 분경을 연출함이 마땅하다 하였으니 菜田으로 쓰이던 곳이 전용 정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조천 웃동네 金氏(海溪)家和 禾北洞 金氏家에 事例가 남아 있으며 四君子인 梅蘭菊竹松이 造園의 主素材이다.

1-3. 규모, 재료, 공법의 변화

18세기 이후 민가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전반적인 현상이다. 영농법의 개선에 따라 광작농민이 형성되고 이어서 도고상인이 성립되어서 경제적 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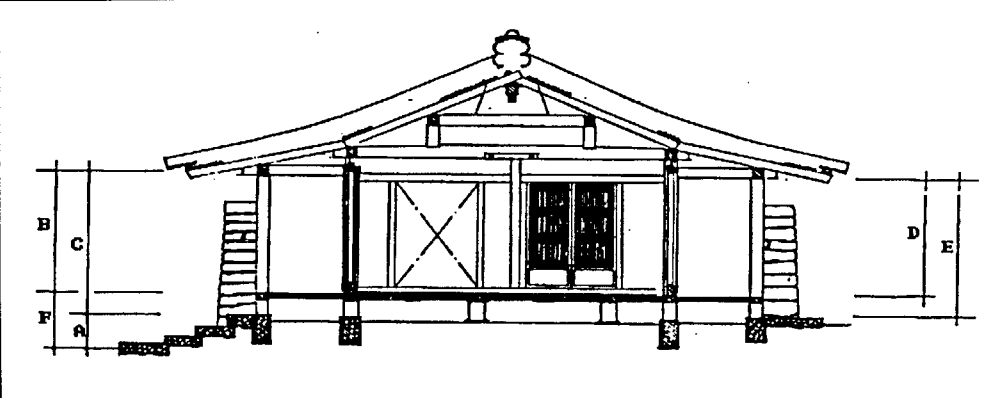
48) 申榮勳, 한국의 살림집, 悅話堂, 1983, P.388

를 蓄積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었으므로 왕권이 미치지 않은 지방 권문세가에서부터 建築規制가 무너진 데 기인하고 있다.⁴⁹⁾ 中農層의 집도 역시 規模가 커지고 平面型態는 다양화된다. 반면에 構造는 간결화하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 제주 민가의 경우도 채의 증가와 간수 및 보칸 크기와 기둥 높이가 커지고 이에 따라 부재의 단면이 커진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表 5-1-1> 濟州島 民家の 各部 높이 比較

단위 : cm

부분기호	초가	19세기 와가	부분기호	초가	19세기 와가
A	6.5-24	525	D	1690	1850
B	1690	1850	E	1850	2015
C	1850	2015	F	24-30	690
비고			비고		



<表 5-1-2> 각부 부재 치수 비교표(평균)

단위 : cm

		초가	19세기 와가			초가	19세기 와가
기둥	고주	150X150	170X170	도리	주심	110	136X120
	평주	140X140	170X180		종도리	120	150X120
	퇴주	140X140	170X180		퇴도리	110	150X120
보	대보	135X135	220X170	서까래	굵기	Ø70	Ø100
	중보	120X140	160X136		간격	330	280
	퇴보	135X135	150X120		내밀기	640	840

49)金鴻植, 民族建築論, P.281

지붕材로 기와를 사용하게 된 것이 대단한 변화로 볼 수 있다. 풍토록에 依하면 ‘瓦家絶少如兩縣官舍亦茅蓋也’⁵⁰⁾하였고 東國與地勝覽에도 같이 記여 있다. 濟州 民家에서 瓦家は 매우 稀少한 형식어어서 觀望까지도 草家라는 기록이다. 기와를 비롯한 새로운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 것은 18세기의 주도적 이념이었던 實學派 건축 이론의 重點目標의 하나였다. 임원십육지에 ‘시골에서 지붕을 덮을 때는 볏짚을 많이 사용한다. 초가집은 바람에 넘어가고 비에 썩어서 해마다 갈아주어야 하므로 십년간의 비용을 모으면 기와를 굽는 비용과 맞먹는다’라 하고 또 礪溪 柳馨遠의 結社燔瓦法과 星湖僮說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지붕을 덮는 볏짚은 마소를 기르는 데 사용하고 기와로 지붕을 덮게 하면 그 利益이 클 것이라는 内容이다.

18세기에 建築技術의 時代的 特性은 생산력이 향상되고 기술수준이 보편화되어 서울과 지방간에 기술 격차가 해소된 것이라 했으므로⁵¹⁾ 목재의 治木技法과 結構詳細가 치밀해지고 石材의 加工도 정교해져서 기단과 초석에 熟石이 사용되는 것이 19세기에는 보편화되었을 것이다.

고급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賃勞動이 출현하여 전문화된 장인을 고용했다는 의미이다.

제주 민가의 기와 지붕은 그 형상이 세련되지 못하고 막새나 내림새의 장식성 부족을 쓴 경우가 없다. 지붕의 후림과 조로가 밋밋하여 한국 건축의 외형적 특성을 대변하는 지붕선의 맛과는 아예 거리가 있다. 다만 비바람이 스미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와 틈을 회로 막는 방법이 쓰여진 것은 실학적인 실천으로 보인다.

北學議에 “중국의 지붕 잇기는 회로 기와 틈을 매우는데 한켜 한켜 사이

50)金淨, 濟州 風土錄 中

51)金東旭-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1996, P.295

를 굳게 고착시키므로 참새와 뱀이 지붕을 뚫는 일이 없다”고 하며 우리나라 제도는 기와가 너무 크고 구부러져 빈틈이 많아서 병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림과 조로를 크게 해서 집모양을 내려고 처마를 들어올리는 경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제주 민가의 기와 지붕은 상당한 부분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서 과학적인 시공을 하고 있음은 기후적인 특성을 고려한 대책과 실학적 사고가 일치되어 선택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리적인 건축 기술은 189세기에 들어서서는 지방까지 파급되었을 것이나 제주도는 선진 이념을 가진 적객들에 의하여 쉽게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第2節. 19세기 濟州島 民家の 性格

2-1. 尙古主義 性格

상고주의는 옛 文獻이나 思想을 숭상하며 그것을 표준, 또는 모범으로 삼는 경향을 말한다. 원래 조선조의 儒家에서는 옛날의 制度를 理想的 典型으로 認識하는 경향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濟州島는 그 地理的으로 隔絶되어 있는 環境과 앞에 論據된 200년간의 出陸抑制政策이 민가의 尙古主義的 性格내지 이 古風을 지니도록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

1. 제주 민가의 第一 特性인 별동배치 형식은 무릇 原始 民家들이 가진 보편성이며 조선 초의 記錄인 太祖賜給族致土地文書 ‘淑愼翁主家’ 條에는 ‘一室一棟’ 제도로 각 용도별로 건물의 규모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동형식이라는 뜻으로서 이 성격은 궁실을 비롯한 고대 모든 건축에 적용된 형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제주 민가에는 이 형식이 상존하고 있다.

2. 廳을 中心으로 양측에 室을 두는 平面이 또한 古制를 理想으로 인식한 데서 지켜지는 형식이다. 儒家의 禮制에 關係되는 모든 건축과 鄉校와 書院의 講堂과 書堂과 精舍에도 이 形式이 지켜지는 것은 中國의 三代(夏, 殷, 周)의 宮室制度에서 由來한 이 형식이 모든 건축의 전형이 되고 있다.

3. 構造的으로 上, 中, 下分の 三分의 尺度를 지켜 中軸대칭형의 입면으로 정연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古典 規範에 따르는 것이고 一字型 平面形式도 격임집에 比하여 오래된 특성이다.

이와 같은 性格은 實學思想의 訓古의 方法論을 적용하게 되면 고립된 환경에서 수동적으로 불가피하게 잔류된 낙후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 時代의 새로운 思潮에 의하여 선택된 결과라고 해야 歷史의 발전 方式과 一致되는 해석이 된다. 곧 ‘照古鑑今’은 문예부흥운동의 보편적 해법이다.

2-2. 內向的 空間構成

앞에서 살펴본 제주도 民家の 여러形式중에서 共通的인 特徵으로 指摘되는 것은 안거리, 밖거리, 左右 모거리 등 개별 건물들이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內向的 空間構成이 明確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건축을 위시한 東洋 文化圈내의 構築物에 적용되어 온 공통적인 원리로 에워쌈으로서 외부로부터 보호한다는 圍繞에 의한 防禦的 意味가 물리적으로 表現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외부의 侵入과 간섭으로부터 대처하여 내부 세계를 견고히 하고 영역을 확고히 설정한다는 관념은 원시시대 이미 정착된 공간 체계이다.

중국에 形成始源을 둔 이념 체계로서 ‘天圓地方’의 우주관에 따라 夏代와 殷代, 周代에 ‘四嚮의制’라는 공간 구성 원리로 일반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이 공간 체계는 중앙에 중정을 두고 주위 네방위에 건물을 배치하며 둘러싸는 現像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심성이 강한 원시 공간 체계는 한반도에 이러한 공간의 형식이 유입된 이래 都城의 형식이나 伽藍配置形式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思想的 변화와 현지 自然環境에 따라 수정되어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제주 민가에 이 체계가 殘存하고 있는 현상은 일단 기후적인 특성인 강한 바람에 대한 적응 형식으로서 生命力을 가지고 있고 변방의 필수 욕구인 방어 의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說得力이 있는 해석이다.

이때 내향성의 핵은 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形成되므로 건물들은 마당에 대한 1차적인 공간적 켜가 되며, 다시 돌담이 이 건물들의 외곽을 에워싸서 2차적인 공간 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濟州 民家이다. 그러므로 마당의 중심성이 한층 강화되고 돌담은 단순한 경계로의 의미를 넘어 공간의 구성 요소로 파악하여야만 濟州 民家が 갖는 多層的공간 체계가 파악되는 것이다.

濟州 民家の 실제 공간인 내부는 마당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전체적인 유기성을 실현하게 되고 분동으로 배치된 개개 건물이 구성 단위가 되어 組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위의 건물을 마당 공간의 한정 요소로 인식하게 되면 마당은 無蓋 內部空間이 된다.

아열대성 기후대에 있는 제주 민가에서 이렇게 조성된 마당 공간의 의미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2-3. 外部空間의 力動性和 完結性

마당의 中心이 되는 空間構成에서 주위에 連接되지 않는 建物들의 모퉁

이의 틈사이로 2次的 空間領域이 생성되는 現狀이 나타나는 것은 分棟配置가 가져온 특성이다.

이때 개개의 建物은 양모통이의 공허부가 背景이 되므로 형태의 개성이 강조되는 부가적 효과를 가져온다. 2次 공간계는 방향과 흐름이 多向性이므로 마당 내부에서의 공간 인식은 한정과 열림이 반복되어 力動感을 생성시키는 것이다.

다시 이 공허부의 틈사이로 생기는 내다봄과 광선의 변화가 力動的 性格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完結性은 濟州 民家の 空間構成 체계가 도입부(올래)에서부터 안뒤까지 도입→전개→절정→결절의 文學的 구성 기법이 적용되어진 現狀을 指摘하는 것이다.

濟州 民家の 완결 공간인 [안뒤]는 종교적 의미를 가진 要素로 濟州 民家에서 規模의 大小에 무관하게 共通的으로 시설되는 空間形式이다.

이곳은 住宅의 주된 建物인 안거리를 거쳐야만 出入할 수 있는 은밀한 곳이고 外部空間과는 돌담으로 격리되어 폐쇄된 場所이므로 도입부에서부터 수평적으로 전개되어 온 공간의 흐름이 이곳에서는 수직적으로 昇華되는 것이다. 원시종교인 巫俗에 관계된 神體를 모시는 聖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文學的 구성 형식이 인습적으로 우연히 형성된 현상이라 하더라도 건축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관심으로 대두된 것은 지극히 현대적 주제이기 때문에 이 성격은 현대적 시각에서 가치를 갖는다. 이 [안뒤]에서 얻어진 공간의 完結性은 濟州島의 民家を 특징짓는 주요한 공간구성 요소가 된다.

2-4. 合理的 性向

세계 모든 민가들이 의미를 인정받는 이유는 그 형태와 내용이 合目的性을 지닌다는 것이다. 제주도 민가는 기후와 지리가 粗惡한 여건을 가지고 생성되었으므로 이 條件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근대적인 합리성을 가지게 된다.

기단의 形態에 合理性이 있다. 19세기에 와서 높은 기단 형식이 나타난 것은 외부 공간인 마당과의 능률적인 동선 연결이 낮은기단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형편을 가져왔다.

여기 뒷마루는 농작물의 일시 보관 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기단은 뒷마루 전면에 맞추어 계단식 기단으로 처리해서 실용성에 가치를 두는바 된 것이다.

고려말 이래 法制로 실시했던 家廟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심지어 서민의 법식인 祖龕의 존재마저 殘存하지 않는 것도 合理性向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家廟는 아주 稀少하게 선택되어졌던 기록이 있으나 전래의 가족제도에 이 관습에 유입되고 나서 기존 질서에 뿌리내리지 못한 것은 수평적 사회구조와 관계된다.

또한 濟州 民家は 炊事와 採煖 燃料가 일찍부터 分離된 生活方式를 영위해 왔다. 불의사용에서 자유로웠으므로 能率的인 동선 처리와 평면 칸잡이가 가능했던 것이다.

裝飾的 技巧가 배제된 현상도 이 性格에 포함된다. 부연을 달거나 추녀의 후림과 조로도 크게 하는 것은 강풍다우의 기후 조건에 절대 불리한 형태가 되므로 허황된 형식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곧 제주도 민가는 자연과 그 속에서 생성된 합리적 의식구조가 합성시켜 놓은 결과이다. 이것을 풍토적 합리성이라 할 수 있다.

2-5. 下降型 空間位階

제주에서는 집을 비탈에 놓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흔히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오히려 제주에서는 올라가 이처럼 내려가면서 집이 배치되는 것을 좋은 집터라고 본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길한 집터라는 의미이고 가장 낮은 곳이 공간 위계상 가장 우위로 상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곳의 특이한 지형적인 제한과 바람이 강하다는 기후 조건에 대응 형식으로서와 지형과 자연 조건에 순응하여 집을 배치하는 한민족의 기본적인 계획 이념인 자연주의 성향이 基底를 이루고 있다.

지형이 완만한 경사여서 평지인 듯 보이지만 실은 얇은 골짜기와 낮은 언덕이 무수히 많은 것이 제주의 지형이다.

먼저 낮은 곳에 집자리를 잡고 통로를 낼 때는 언덕 마루를 따라 내거나 동일 등고선을 따라 이용하는 것이 자연에 순응한 계획 방법이 된다. 이 결과 집자리는 길보다 낮게 되고 자연스러운 곡선 통로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성향의 다른 하나의 실마리는 제주도의 고유한 무속과 신화에 나타난 우주관과 관계된다.

제주 무속은 신의 地中湧出觀, 수평적 내방 신앙이 농후 한점⁵²⁾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토 무속에 대조되는 성격이다.

곧 本土 무속의 神은 天上으로부터 수직적 강림 형식이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濟州 巫俗의 神觀念으로는 바다 건너 먼 곳의 新世界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 탐라국 개국 신화 三姓穴에서 처럼 낮은 분지의 그윽한 곳을 聖地化 하고 수평선 너머의 상상의 세계를 理想

52)玄容駿, 제주도 무속 연구, 일지사, P.218.

郷으로 여기고 있는 공간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생각은 풍수 지리에 대한 合理的 해석인 局地氣候形成⁵³⁾의 현실적 욕구로부터 출발하였을 것이 분명하지만 대체로 古代社會의 形而上學的 觀念에 속하는 상징 체계로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다.

육지의 마을과 집자리에서 적용되는 상승형 공간 위계의 정반대 형상인 이 특성은 濟州의 地形과 氣候의 尤別함에서 由來한 것이며 제주인의 잠재적 意識世界에 속한 성격이다.

第3節. 變用形相과 性格 形成의 要因

前節에서 19세기에 제주 민가 變容 形相을 考察하면서 크게 공간 체계 변화와 규모, 재료, 공법으로 나누어 그 변용 현상을 설명하였다.

공간 체계 변용 내용은 그것이 傳統的思想인 体用思想에 立脚하여 안거리는 ‘本体’이므로 不變이고 밖거리는 ‘動用’이므로 변화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적용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사랑 에 ‘머릿방’이 발생하는 것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이 현상은 性理學의 17세기 특성인 禮學에 관계된 內外法이 이 변화의 근본이념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성별 混在現狀으로 이루어졌던 공간이 禮法에 의하여 外在的 질서 체계를 이루는 方向으로 轉換된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 체계의 변용의 이념적 바탕은 性理學의 禮學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다음 재료와 공법상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문 임노동장인을 고용하여 고급 공법 수준을 사용하고, 공산품인 2차제품을 선택하여 과학적 시공법에 따라 營造하게 되는데는 배경은 ‘實事求是’

53)張聖浚, 풍수지리 국면이 갖는 건축적 상상력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1978, vol.22-85

와 ‘經世致用’을 표방한 實學의 精神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實學의 訓古的 立場은 19세기 제주 민가의 성격중 尙古主義 性格으로서 마당 중심의 내향적 공간구성에도 그 정신이 적용되고 있다.

‘內向的 空間構成’이라는 性格 亦是 古典的 宇宙觀에서 출발하고 있고 또 이 성격은 觀念的 價値에 따른 것이 아니고 風水의 수정 요인에 의하여 여과되어진 實利的 선택이기 때문이다.

여기 마당 중심의 비움과 風水論으로 해석되는 四相형상의 특성은 한국 건축 고유의 특성으로서 미학적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외부 공간의 力動性은 별동배치 형식에서 파생된 마당 공간의 성격을 부각시킨 해석이며, 하강형 공간 위계는 한국 건축의 자연순응적 계획론이 풍토적 특성으로 나타난 형상이다.

19세기의 시대적 변용 현상을 가져온 계기는 1차적으로 출육금지정책이 해지된 것이고, 경제적 富를 축적하게 되는 국가의 重商主義 政策으로 도서가 가지는 경제적 제약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을 의미하며 牧民官과 유배객의 敎學 活動으로 의하여 土着Elite層이 형성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즉 19세기 제주 민가의 변용과 성격형성은

1. 出陸禁止 政策의 해지.
2. 流配客에 의한 학문적, 사상적 교화.
3. 土着支配層의 형성.
4. 영,정조년간의 重商主義 政策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가 축적된 점.
5. ‘禮學’에 의한 내외 법도가 풍토적으로 수정되어 수용된 것.
6. 실학 사상 등의 영향에 의한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공법이 적용된 것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第6章. 結論

19세기 濟州 社會는 200年 동안의 出陸抑制政策이 解除되고 先代의 重商主義 政策이 계기가 되어 전대에 없던 획기적 變化를 나타낸 시기이다.

19세기와 濟州島라는 時, 空間的 限界를 設定하여 민가의 變容 形相을 파악하고 그 理念層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시도된 本 研究의 結論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1. 한국 고유의 마을 공간은 폐쇄적이고 제주도의 마을은 개방적이다.

즉 民家の 上位 体系인 마을의 空間體系는 濟州島의 경우 육지의 마을과 대조된 구성 방식이다.

동족 마을로 設村되는 육지 마을은 補宗思想에 따라 宗家를 중심으로 하여 신분 질서의 위계와 풍수지리에 立脚한 공간의 위계를 一致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계급적, 수직적, 폐쇄적 성격을 가진다.

반면 濟州島의 마을은 混姓村이며 大型 集村이 特性이다.

共同體의 公共空間을 核으로하여 사방으로 住居地, 耕作地, 背後地의 體系를 가진 放射線型으로 전개되며 開放的이다.

民家の 공간도 이 空間概念에 適用되어 構成된다. 즉 마당을 중심으로 두고 별동으로 四相을 갖추는 배치에서 건물 사이로 공간이 확산되는 방사선 구성 체계가 그 것이다.

2. 제주도 민가에서 19세기에 나타난 두드러진 變容 形相은 밖거리간잡이에 ‘머릿방’, ‘머릿마루’가 나타난 것이다.

‘머릿방’은 ‘양택론’에서 頭房 혹은 高房이라는 개념으로서 傳統思想인 体用思想에 따라 ‘밖거리(外棟)’에 둔다. 즉 안채는 ‘本體’이고 밖거리를 ‘用’으로 해석하여 ‘靜體’, ‘動用’이라 하여 밖거리의 칸잡이에 나타난 變容 形相을 말한다.

그 變化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班家型, 傳統民家型, 折衷型으로 分流되며 折衷型이 本然을 유지하고 있는 自生的 變化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전형이 된다.

3. 內外 觀念을 주제로 한 공간 구성상의 변용 형상은 性理學的 禮學의 理念의 바탕에서 전개되고 있고 構造 및 工法의 變化는 實學의 건축이론이 적용하고 있다.

머릿방, 머릿마루는 男性 위주의 待客, 學習空間이다. 그러므로 ‘禮法’에 따른 計劃理念과 선비 사상에 依한 공간관이 적용된다. 안담장과 내외벽, 그리고 阮賞專用空間으로 ‘머릿뜰’을 계획하는 것이 이 理念의 所産이다.

基壇은 上, 中, 下分の 尺度를 지킨 것이고 기와를 사용하되 灰(二和灰)로 기와 틈을 막는 것, 온돌은 간 단위를 지켜 크게 하지 않는 것이 實學的 思考가 反映된 현상이다.

4. 별동정지는 ‘안채’의 칸잡이를 3間 구성을 固守하기 위한 尙古主義的 선택에서 나타난 형식이다.

三才思想과 天, 地, 人의 三位一体思想은 傳來의 民族思想으로서 体用思想과 관련된다. 中央에 廳을 두고 양측에 室을 배치하는 中心的 平面形式은 中國三代以來의 고전이다. 古典에 대하여 訓古내지 尙古의 사고

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實學의 입장과 동류의 것이다.

이 해석이 南方文化說을 일축하는 주체적 해석이 된다.

5. 변용형상은 性理學的 禮法에 의한 명분공간과 生産活動에 유리한 실리성의 2중코드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이 변용을 주도한 세력은 토착지배층과 부농층으로 Elite성향의 집단들이다. 이들은 양반신분이지만 자영농을 경영해야하므로 이들에 의하여 주도된 민가는 성리학적 예법에 의한 명분공간과 생산활동에 유리한 실리성의 조화로 이루어졌다.

이 변용은 자생적이고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긍정적 발전방법이다. 즉, 19세기 제주 민가의 변용은 신경향이 선택적으로 수용되며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19세기 제주도 민가를 형성시킨 경제적 여유는 상업 利潤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상업주의 미학이 그 바탕이 되었다. 이 時代 제주도는 전통적 米作농업 기반이 취약한 지질적 요인을 가졌으므로 부를 蓄積할 수 있는 生業은 상업이 유일한 것이고 이것은 정조 년간의 중상주의의 시책으로 제주인이 상권을 독점할 수 있던 데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 자본이 성격에 따라 19세기 제주 민가는 새로운 변화에 쉽게 익숙하려하고 신기한 것을 신속히 수용하는 상업주의 미학이 그 바탕이 되고 육지의 농업 경영을 통한 미학과는 대비되는 성격이 된다.

7. 이상의 變容形相을 內包하고 있는 19세기 濟州島 民家の 공간의 성격은

- 尙古主義的 性格과
- 合理主義的 性向
- 마당 중심의 구심적 공간 구성
- 別棟 配置에서 形成된 力動性 外部空間
- 下降型 공간 위계의 특성을 가졌다고 함축시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특성을 濟州 民家が 가진 상징 국면으로 인식하고 왜 이것들이 이상적 공간을 은유하고 있는가를 실증적 방법으로 밝히는 작업이 본 연구의 후속 과제로 남는다. 여기에서의 성과가 제주도 미래 건축의 자생적 발전을 보장하는 바탕을 마련 할 수 있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單行本

- 鄭寅國,『韓國建築樣式論』文運堂,1980.
- 尹張燮,『韓國建築史』東明社,1973.
- 朴彥坤,『韓國建築史講論』文運堂,1994.
- 朴彥坤,『한국의 정자』대원사,1995.
- 金鴻植,『民家 平面構成의 分類, 實例 및 機能』文化財,第9號.
- 金鴻植,『民族 建築論』한길사,1988.
- 金鴻植,『韓國의 民家』한길사,1992.
- 姜東鎭,『韓國 農業의 歷史』한길사,1984.
- 金東旭,『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수원성-』발언,1996.
- 金正基,金鴻植,『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建築編』
濟州道,1973.
- 金正基,金鴻植,『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編,第五冊)』
文化財管理局,1974.
- 申榮勳,『한국의 살림집』悅話堂,1983.
- 張保雄,『韓國民家の 研究』寶晉齋,1981.
- 朱南哲,『韓國住宅建築』一志社,1994.
- 朱南哲,『韓國建築意匠』一志社,1990.
- 玄容駿,『濟州島巫俗研究』集文堂,1986.
- 裴宗鎬,『韓國儒學史』延世大學校 出版部,1983.
- 濟州道,『濟州道志』1993.
- 濟州道,『濟州道先賢志』1988.
- 濟州島教育委員會,『耽羅文獻集』1976.
- 濟州大 탐라문화연구소,『탐라문화III』1987.
- 金泰能,『濟州島史論教』1982.

金聖雨外 譯,『徐有渠의 林園十六志』건축과 환경, 1986.

崔完秀,『金秋史研究草』知識産業社, 1976.

崔完秀,『秋史集』玄岩社, 1976.

國史學科研究室,『韓國史概說』嶺南大學校 出版部,1988.

張基槿 譯著,『論語』明文堂, 1985.

梁在淵, 外 3名,『朝鮮儒教淵源』三星文庫 59, 1981.

高大民族文化研究所,『韓國民俗大係』1卷, 1980.

張壽根,『韓國의 風水信仰』乙酉文庫 190, 1979.

韓永愚,『朝鮮前期 社會 思想研究』지식산업사, 1983.

박경섭,『韓國의 禮俗研究』서광학술자료사, 1993.

崔虎 譯解,『三國遺事』홍신문화사, 1994.

김용덕,『韓國의 풍속사 1』밀알, 1994.

姜榮煥,『한국 주거 문화의 역사』技文堂, 1993.

崔在錫,『濟州道의 親族組織』일지사, 1979.

金斗憲,『韓國家族制度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濟州道研究會,『濟州島研究 I』1984.

李光奎,『韓國의 家族과 宗族』민음사, 1990.

李光奎,『韓國家族의 構造分析』一志社, 1982.

李光奎,『文化人類學의 世界』서울대출판부, 1990.

李光奎,『한국 전통 문화의 구조적 이해』서울대출판부, 1995

濟州道,『濟州道民俗資料』1987.

문화체육부,『전통문화 마을 보존. 전승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1994

손세관,『북경의 주택』열화당, 1995.

李揆穆 譯,『주거형태와 문화』열화당, 1991.

崔昌祚,『韓國의 風水思想』민음사, 1984

學會誌

- 張聖浚, 『풍수지리국면이 갖는 건축적 상상력의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78. VOL.22 NO.85
- 鄭慶雲, 『韓國民家の 基礎的 研究』東洋文化, 1975.
- 金鴻植·李海成, 『19세기 양택론에 나타난 살림집 간잡이에
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88. 12.
- 이재룡, 『16세기 조선조 성리학의 규범적 의미』民俗文化研究, 1991
- 김준석, 『조선전기의 사회 상황』東方學誌, 1981.
- 趙重根, 金興坤, 『韓國宗家建築空間의 連續性 및 位階性』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94. 9.
- 강창용, 『17·8세기 제주 향촌사회의 구조와 그 성격』
제주도 연구 NO.8, 1991.
- 南碩珍, 『제주 전통사회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VOL.9, 1989.

學位論文

- 康幸生, 『濟州島 안·밖거리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 연구』
建國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金石崙, 『濟州道住宅의 意匠的 特性에 關한 研究』國民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 申哲河, 『濟州島 民家の 構造 部材特性과 比例에 關한 研究』
明知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 김태현, 『조선후기 口자형 주택의 구조와 부재비례에 관한 연구』
弘益大碩士論文, 1983.

- 이경남, 『조선시대 口자형 주택의 폐쇄성에 관한 연구』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7.
- 宋成大, 『韓國 島嶼地方 草屋民家の 地域性』慶熙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 朱南哲,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1976.
- 李康勳, 『韓國建築에 있어서 陰陽空間의 秩序』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9.
- 朴明德, 『嶺南地方 同族마을의 分派形態와 建築特性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 박선희, 『朝鮮時代 班家の 住生活과 空間使用에 대한 연구』
延世大住生活學科 博士學位論文, 1991.
- 李鎬洙, 『朝鮮前期 住宅史 研究』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 崔 壹, 『朝鮮 中期以後 南部地方 中上流住居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 韓弼元, 『農村 同族마을 空間構造의 特性과 變化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 洪升在, 『朝鮮時代 上流住宅의 禮制的 體系에 관한 연구』
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2.
- 金東仁, 『朝鮮時代 齋室建築의 配置와 平面類型에 관한 研究』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附 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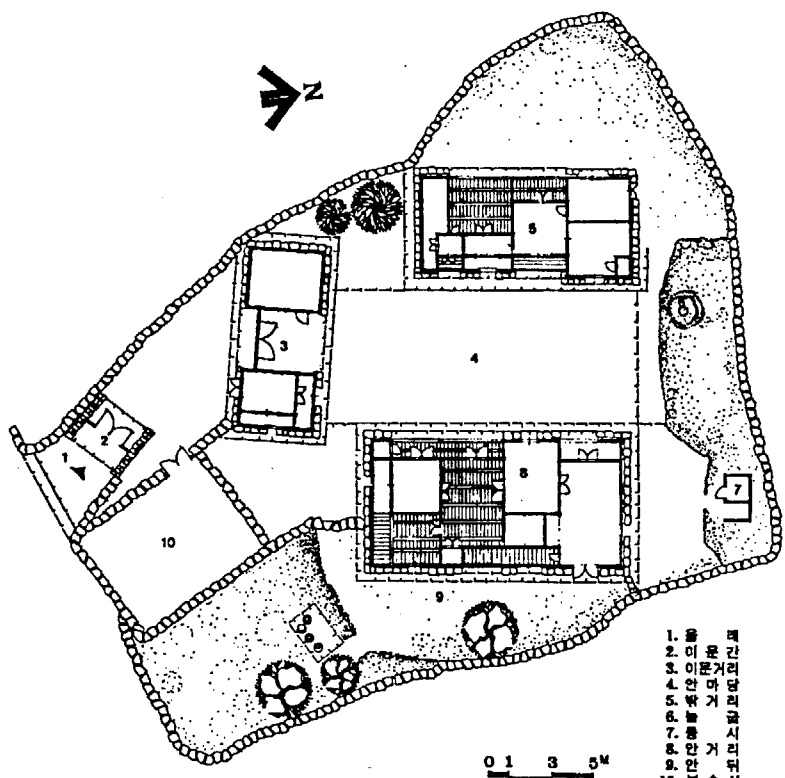
家屋名	所在地	建立年代
신촌리 曹主事氏 家	조천읍 신촌리 2462번지	1822年
신촌리 동부락 조氏 家	조천읍 신촌리 2303번지	19世紀初
성읍리 고氏 家	표선읍 성읍리 809번지	19世紀初
삼양동 姜氏 家	제주시 삼양동 2067번지	19世紀中期
화북동 김용일氏 家	제주시 화북동 4230번지	1906年
성읍리 曹氏 家	표선읍 성읍리 872번지	1800年代初
조천읍 황氏 家	조천읍 조천리 2373번지	1890年
화북동 김氏 家	제주시 화북동 1640번지	1901年
조천리 김용래氏 家	조천리 2438번지	1850年頃
곽지리 助防將秦氏 家	애월읍 곽지리 2011-1번지	1859年
신촌리 康氏 宗家	조천읍 신촌리 2140번지	1862年
조천리 김氏 家(평창군수 댁)	조천읍 조천리 2473번지	1850年創建
조천리 김氏(정의현감) 家	조천읍 조천리 하동	1852年
조천리 손氏 家	조천읍 조천리 하동	1857年
알동네 김氏 家	조천읍 조천리 2804번지	1850年代
조천읍 조천리 김氏 家	조천읍 조천리 2526-1번지	1850年頃
조천리 安氏 家	조천읍 조천리 2789번지	1850年
조천리 韓氏 家	조천읍 조천리 하동	19世紀末

名 稱	신촌리 曹主事氏 家	
平 面 圖 및 配 置 圖		
塋 地 位 置	조천읍 신촌리 2462번지	特 徵 밖거리에 머릿방과 머릿들이 있음 別棟 정지간과 收納空間 擴大 안담장으로 外部空間을 分化 마당 中心의 求心型配置 이문간 正面에 안거리
創 建 年 代	1822年	
塋 地 條 件	密集住居地域	
正 寢 坐 向	坤坐艮向	
建 物 棟 數	4棟	
配 置 形 式	ㄷ字配置	
마 당 構 成	單一型	
進 入 方 法	골목안 大門 통과 안거리 正面進入	
道路와의 關係	막다른 골목안 塋地	
안거리 간잡이	3間 瓦家	
밖거리 간잡이	5間 草家	
밖거리 向	안거리와 對向	
別 棟 정 지	3間 瓦家	
大 門	밖거리 이문간	

名 稱	신촌리 동부락 조氏 家	
平 面 圖 및 配 置 圖		
堡 地 位 置	조천읍 신촌리 2303번지	특 徴 밖거리가 안거리의 側面에 配置 別棟 정지간 이문간 正面에 안거리
創 建 年 代	19世紀初	
堡 地 條 件	密集住居地域	
正 寢 坐 向	艮坐坤向	
建 物 棟 數	4棟	
配 置 形 式	ㄷ字配置	
마 당 構 成	單一型	
進 入 方 法	긴 울래에 大門 통과 안거리 正面進入	
道路와의 關係	큰길과 긴 울래 連結	
안거리 간잡이	3間 瓦家	
밖거리 간잡이	3間 瓦家	
밖거리 向	東南	
別 棟 正 지	別棟의 정지	
大 門	이문간	

名 稱	성읍리 고氏 家	
平 面 圖 및 配 置 圖		
宅 地 位 置	표선읍 성읍리 809번지	特 徵
創 建 年 代	19世紀初	
宅 地 條 件	田園型住居地域	
正 寢 坐 向	子坐午向	
建 物 棟 數	4棟	
配 置 形 式	ㄷ字配置	
마 당 構 成	單一型	
進 入 方 法	大門 통과후 마당의 偶部로 進入	
進 入 方 法	大門 통과후 마당의 偶部로 進入	
道路와의 關係	큰길에 大門設置	
안거리 간잡이	3間 정지型 草家	
밖거리 간잡이	4間 머릿방型 草家	
밖거리 向	안거리와 對向	
別 棟 정 지	없음	
大 門	平大門의 草家	

名 稱	삼양동 姜氏 家	
平 面 圖 및 配 置 圖		
塋 地 位 置	제주시 삼양동 2067번지	特 徵 大門 없는 막다른 골목안 집 건물의 위계가 없음 밖거리가 進入路 쪽으로 前進配置 밖거리에 머릿방 넓은 塋지와 防風林을 갖춘 景觀
創 建 年 代	19世紀中期	
塋 地 條 件	密集住居地域	
正 寢 坐 向	坤坐艮向	
建 物 棟 數	3棟	
配 置 形 式	二字配置	
마 당 構 成	分離型	
進 入 方 法	大門 없이 正面進入	
道路와의 關係	골목길이 막다른 塋지	
안거리 간잡이	4間 草家	
밖거리 간잡이	4間 草家に 머릿방	
밖거리 向	안거리와 對向	
別 棟 正 지	없음	
大 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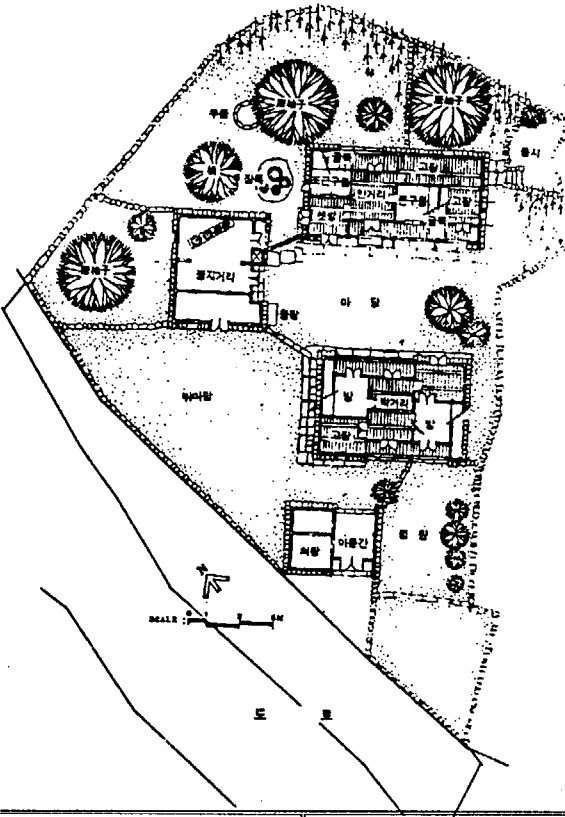
名 稱	화북동 김용일氏 家	
平 面 圖 및 配 置 圖		
垜地位置	제주시 화북동 4230번지	特 徵 進入路보다 낮은 垜地 地形에 順應한 配置 二重大門 19世紀 後期型
創建年代	1906年	
垜地條件	密集住居地域 주위보다 낮은 垜地	
正 寢 坐 向	巽坐乾向	
建物棟數	4棟	
配置形式	ㄷ字配置	
마 당 構 成	單一型	
進 入 方 法	二重大門을 通過	
道路와의 關係	큰길에서 짧은 울래	
안거리 간잡이	4間 瓦家	
밖거리 간잡이	4間 머릿방型 草家	
밖거리 向	안거리와 對向	
別 棟 正 지	없음	
大 門	二重大門 瓦家	

名 稱	성읍리 曹氏 家	
平 面 圖 및 配 置 圖		
堡 地 位 置	표선읍 성읍리 872번지	特 徵 마당 中心의 求心型 목축업을 위한 附屬建物이 擴張 넓은 堡地의 田園型民家 國家指定 民俗資料
創 建 年 代	1800年代初	
堡 地 條 件	住居地域 주위보다 낮은 堡地	
正 寢 坐 向	子坐午向	
建 物 棟 數	4棟	
配 置 形 式	口字配置	
마 당 構 成	單一型	
進 入 方 法	큰길에서 大門通過後 모거리의 側面進入	
道路와의 關係	큰길	
안거리 간잡이	3間 草家	
밖거리 간잡이	4間 草家	
밖거리 向	안거리와 對向	
別 棟 正 지	없음	
大 門	平大門 草家	

名 稱	조천읍 황氏 家	
平面圖 및 配置圖		
堡地位置	조천읍 조천리 2373번지	特 徵
創建年代	1890年	
堡地條件	密集住居地域 낮은 堡地	
正寢坐向	午坐子向	
建物棟數	4棟	
配置形式	ㄱ字配置	
마 당 構 成	單一型	
進 入 方 法	平大門을 通過後 直線進入	
道路와의 關係	큰길에 平大門	
안거리 간잡이	4間 瓦家	
밖거리 간잡이	3間 머릿방型 瓦家	
밖거리 向	南向	
別 棟 正 止	없음 안거리內	
大 門	平大門 瓦家	
		직접 進入 안거리와 밖거리가 對向 配置 道路보다 낮은 堡地

名 稱	화북동 김氏 家	
平 面 圖 및 配 置 圖		
塋 地 位 置	제주시 화북동 1640번지	特 徵
創 建 年 代	1901年	
塋 地 條 件	密集住居地域	
正 寢 坐 向	坤坐艮向	
建 物 棟 數	4棟	
配 置 形 式	ㄱ字配置	
마 당 構 成	分離型	
進 入 方 法	긴 올래 通過後 二重大門	
道路와의 關係	큰길에서 긴 올래	
안거리 간잡이	4間 瓦家	
밖거리 간잡이	4間 草家에 머릿방型	
밖거리 向	안거리와 對向	
別 棟 正 지	없음 안거리內	
大 門	二重大門 瓦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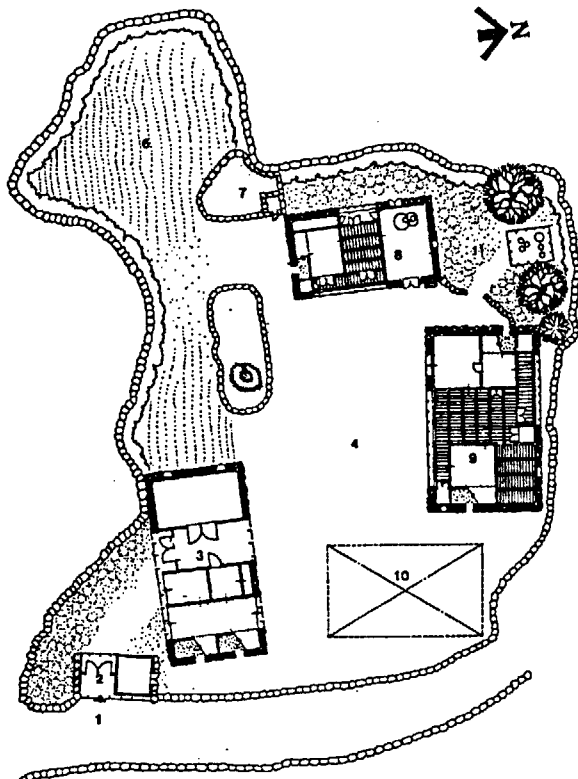
名 稱	조천리 김용래氏 家	
平 面 圖 및 配 置 圖		
垜 地 位 置	조천리 2438번지	特 徴 머릿돌 영역이 분명함 안담장인 内外壁 설치로 領域確保
創 建 年 代	1850年頃 1910年 重建	
垜 地 條 件	密集住居地域	
正 寢 坐 向	午坐子向	
建 物 棟 數	3棟	
配 置 形 式	ㄷ字配置	
마 당 構 成	分離型	
進 入 方 法	안거리 側面을 右回進入	
道路와의 關係	큰길에 大門 設置	
안거리 간잡이	4間 瓦家 前後左右退間	
밖거리 간잡이	4間 머릿방型 瓦家	
밖거리 向	東向	
別 棟 正 止	別棟의 正止 瓦家	
大 門	平大門 瓦家	

名 稱	팍지리 助防將秦氏 家	
平 面 圖 및 配 置 圖		
堡 地 位 置	애월읍 팍지리 2011-1번지	特 徵
創 建 年 代	1859年	
堡 地 條 件	住居地域	
正 寢 坐 向	艮坐坤向	
建 物 棟 數	4棟	
配 置 形 式	ㄷ字配置	
마 당 構 成	分離型	
進 入 方 法	팍거리 正面에서 右回進入	
道路와의 關係	幹線道路邊에 긴 울래	
안거리 간잡이	4間 草家	
팍거리 간잡이	3間 草家	
팍거리 向	안거리와 對向	
別 棟 正 止	別棟의 正지	
大 門	平大門 草家	
		板壁에 빈지 설치 전부 草家 마당의 分化가 분명함 內部와 外來用 동선분리 팍거리 專用의 뜰 봉천수의 우물시설을 갖추

名 稱	신촌리 康氏 宗家	
平面圖 및 配置圖		
堡 地 位 置	조천읍 신촌리 2140번지	特 徵
創 建 年 代	1862年	
堡 地 條 件	密集住居地域	
正 寢 坐 向	坤坐巽向	
建 物 棟 數	5동	
配 置 形 式	二字配置 L字型 복합	
마 당 構 成	分離型	
進 入 方 法	올래 대문 밖거리 마당 중문 안마당	
道路와의 關係	큰길과 평행한 긴 올래로 연결됨	
안거리 간잡이	3間 前後左右退間 瓦家	
밖거리 간잡이	4間 머릿방型 瓦家	
밖거리 向	南向	
別 棟 正 지	밖거리 別棟의 정지 草家	
大 門	이문거리의 大門과 中門 瓦家	

名 稱	조천리 김氏 家 (평창군수 집)	
平 面 圖 및 配 置 圖		
堡 地 位 置	조천읍 조천리 2473번지	特 徵 안거리 4間 別棟 정지거리로 後期形式 안거리와 밖거리가 同一한 向 分離型 마당구성 넓은 터밭이 連接됨
創 建 年 代	1850年創建後 1900年代初 重建	
堡 地 條 件	密集住居地域	
正 寢 坐 向	子坐午向	
建 物 棟 數	6棟	
配 置 形 式	口字 配置	
마 당 構 成	分離型	
進 入 方 法	짧은 올래와 이문 通過後 側面進入	
道路와의 關係	큰길에서 격인 짧은 올래	
안거리 간잡이	4間(重修) 瓦家	
밖거리 간잡이	3間 瓦家 머릿방型 瓦家	
밖거리 向	안거리와 同一向	
別 棟 正 止	모거리 別棟의 正止 瓦家 -	
大 門	이문거리 大門 草家	

名 稱	김씨(정의현감) 家	
平 面 圖 및 配 置 圖		
堡 地 位 置	조천읍 조천리 하동	特 徵 밖거리 側面으로 進入 正方形 마당 內外壁으로 안 밖거리 領域區分 안거리 밖거리 同一向 別棟의 정지 도로보다 낮은 堡地
創 建 年 代	1852年	
堡 地 條 建	密集住居地域	
正 寢 坐 向	子坐午向	
建 物 棟 數	4棟	
配 置 形 式	ㄷ字配置	
마 당 構 成	分離型	
進 入 方 法	밖거리 側面으로 右回進入	
道路와의 關係	큰길 中間에 긴 올래	
안거리 간잡이	3間 겹집 前左右退間 瓦家	
밖거리 간잡이	4間 中央大廳 草家	
밖거리 向	안거리와 同一向	
別 棟 正 止	3間 草家	
大 門	이문거리의 大門 草家(지붕 개량)	

名 稱	손氏 家	
平 面 圖 및 配 置 圖	 1. 울터 2. 이문거리 3. 안거리 4. 안 5. 누우 6. 정지거리 7. 안거리 8. 안 9. 안 10. 안 11. 안	
堡 地 位 置	조천읍 조천리 하동	特 徵 二重大門 別棟의 정지 道路보다 낮은 堡地
創 建 年 堡	1857年	
堡 地 條 件	密集住居地域	
正 寢 坐 向	子坐午向	
建 物 棟 數	4棟	
配 置 形 式	口字配置	
마 당 構 成	分離型	
進 入 方 法	大門과 밖거리의 이문칸 通過 進入	
道路와의 關係	큰길 중간에 짧은 울터	
안거리 간잡이	3間 겹집 瓦家	
밖거리 간잡이	4間 中央 이문型 草家(스레이트 개량)	
밖거리 向	안거리와 對向	
別 棟 正 지	3間 瓦家	
大 門	두間的 大門間과 이문거리·二重大門	

名 稱	조천읍 조천리 알동네 김氏 家	
平面圖 및 配置圖	1. 평대문 2. 평대문 3. 평대문 4. 평대문 5. 평대문 6. 평대문 7. 평대문 8. 평대문 9. 평대문 10. 평대문 0 1 3 5m	
垜地位置	조천읍 조천리 2804번지	特 徵
創建年代	1850년대 1901년重修	
垜地條件	密集住居地域이며 道路보다 낮은 垜地	
正寢坐向	子坐午向	
建物棟數	4棟	
配置形式	ㄷ字配置 平大門	
마 당 構 成	分離型	
進 入 方 法	골목길에서 平大門과 통과	
道路와의 關係	마을 안골목길에서 직접	
안거리 간잡이	3間 前後左右에 退間 瓦家	
밖거리 간잡이	5間 前後에 退間 草家(스레이트 개량)	
밖거리 向	안거리와 對向	
別 棟 正 지	別棟의 正지 草家	
大 門	平大門 1間 瓦家	
		進入口에서 下降型垜地
		안거리와 밖거리의 離隔距離가 크다
		안거리의 집자리가 正지보다 낮다

名 稱	조천읍 조천리 김氏 家	
平 面 圖 및 配 置 圖		
堡 地 位 置	조천읍 조천리 2526-1번지	特 徵 직접적인 進入處理
創 建 年 代	1850年頃	
堡 地 條 件	密集住居地域	
正 寢 坐 向	艮坐坤向	
建 物 棟 數	4棟	
配 置 形 式	ㄱ字配置	
마 당 構 成	單核形	
進 入 方 法	막힌 골목길에서 직접 大門을 通過	
道路와의 關係	큰길에서 격인 골목	
안거리 간잡이	3間 瓦家	
밖거리 간잡이	消失	
밖거리 向		
別 棟 正 止	別棟의 정지 草家	
大 門	平大門 1間 瓦家	

名 稱	조천읍 조천리 安氏 家	
平面圖 및 配置圖	1. 울 이 배거리 2. 문 이 배거리 3. 도로 4. 뜰 5. 우 안 6. 안 거리 7. 안 거리 8. 안 거리 9. 안 거리 10. 안 거리 11. 안 거리 12. 배 거리 0 1 3 5M	
垜地位置	조천읍 조천리 2789번지	特 徵
創建年代	1850年	
垜地條件	密集住居地域	
正寢坐向	子坐午向	
建物棟數	5棟	
配置形式	口字配置	
마 당 構 成	分離型	
進 入 方 法	긴 울래를 통하여 일각대문으로 진입	
道路와의 關係	큰길에서 긴 울래	
안거리 간잡이	3間 겹집 瓦家	
밖거리 간잡이	3間 前後의 退間과 머릿방 瓦家	
밖거리 向	안거리와 對向	
別 棟 正 止	3間の 草家	
大 門	平大門 1間	
		특 徵 밖거리와 안거리가 同一向 머릿방과 머릿마당 上昇型的 긴 울래로 進入

名 稱	조천읍 조천리 韓氏 家	
平 面 圖 및 配 置 圖	1. 울 路 2. 이문거리 3. 안마거 4. 안안거 5. 안안거 6. 안안거 7. 안안거 8. 안안거 9. 안안거 10. 안안거	
堡 地 位 置	조천읍 조천리 하동	特 徵 堡地內 박거리의 別途領域 形成 안거리내에서 정지간의 分化
創 建 年 代	19世紀末	
堡 地 條 件	密集住居地域	
正 寢 坐 向	乾坐巽向	
建 物 棟 數	4棟	
配 置 形 式	口字配置	
마 당 構 成	單核型	
進 入 方 法	이문간 通過進入	
道路와의 關係	큰길에서 짧은 울래	
안거리 간잡이	4間 겹집 瓦家	
박거리 간잡이	4間 中央大廳 瓦家	
박거리 向	안거리와 側面向	
別 棟 正 址	없음	
大 門	이문거리 1間 大門 草家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Housing in Cheju-Island in the 19th Century**

Advised by
Professor Kim, Hong-Shik

DEC., 1996

Kim, Suck-Youn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housing in Cheju Island in the 19th century

The traditional house of Cheju Island had been formed with its peculiar background among Korean traditional houses. This study discloses the characteristics of such a Cheju traditional house. Korean society of the 19th century had included a lot of factors to make change in the private house. Since the 18th century the commercial economy had continued to develop itself and agricultural technology had been developed to cause social position system to be changed and sovereign power to become weak and Samjeong system(three kinds of important national policy during Yi dynasty) to be disturbed, by which last phenomenon of the feudal society were shown. In the course Shilhak (positivism) of new ideology had appeared and an overall change had been made in Korean traditional house in accordance with such an era situation.

At the same time, "The policy to ban leaving the Island" for 200 years had been released in the traditional house in Cheju Island to add transformation factor.

In this study concerning traditional house transformation of Cheju Island during this innovation period,

- 1) The inherent ideology has been disclosed.
- 2) The feature of the change has been comprehended.
- 3) The point of view, in which the interest has been concentrated mainly on the transformation in space construction, has been established to discover movement rule of transformation phenomenon.

This study has been made based on the following procedure :

- 1st step : Scope
- 2nd step : The cultural factor, which becomes background of traditional house in forming private house of Cheju Island, has been studied
- 3rd step : The feature of original traditional house has been comprehended at Cheju Island and traditional house in surrounding area has been also studied.
- 4th step : The study has been made and case has been analyzed concerning the relation between Cheju traditional house in the 19th century and the situation of the same era.

5th step : The transformation and its cause of Cheju traditional house in the 19th century have been studied and the ideology has been clarified.

6th step : Conclusion

At that time local ruling class had been created at Cheju Island, and the merchants at Cheju Island, who had exclusive commercial power, had arranged the momentum for the innovative Cheju traditional house by accumulating their profits, and the exile, a kind of execution system, had been often occurred due to the disturbance of central government to be understood to introduce a lot of the exiled persons to the Island to provide a chance to meet scholastic and ideological maturity and bring ideological change. In particular, the ideology of "Pursue truth based on the reality (Shil-sa-ku-si)", in which not only Confucian scholar such as Sang Heon, Kim and Si Yeol, Song and Eun, Chung but also Jeong Hi, Kim (pen name : Choosa) believed, had given great effect on ideology formation at Cheju Island in the 19th century.

- 1) The space system of Korean traditional village had its own closed feature, but that of Cheju Island had open space system. This open space concept had been also applied to space construction of private house. In other words, the same concept might be applied to not only the external space expanded among the buildings in which Madang (yard), being placed separately each others, was the central place, but also radial type of road system that was core public facility in the village.
- 2) Cheju Island traditional house had shown its fundamental change in the 19th century, for example, "Meori Bang" or "Meori Maru". This was a phenomenon to transfer Sarang, that is, the area for the exclusive use of the reception and study for male, to Cheju private village of the previous era. The feature of Cheju traditional house had been determined by "Meori Bang" in the 19th century.
- 3) The transformation in space system comprised the interior and exterior concept that followed the courtesy of Confucianism, and the change in the structure and construction method had been applied to realistic construction theory.

- 4) Ideological background of independent building and stationary style had been select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Confucian of Yi Dynasty that the ancient method was recognized to be ideal.
- 5) The transformation of Cheju Island of the 19th century had been led by native ruling powers. They belonged to the aristocratic class but did self supporting agricultural work so that double criteria had been applied by both the justification based on courtesy and advantageous benefit in production activity. Therefore, Cheju traditional house shared reasonableness and variety of the space.
- 6) The economic allowance, which formed Cheju traditional house in the 19th, had been made by commercial trade activity. In other words, mercantilism policy, which was performed during Jeongjo King era in the latter half part of the 18th century, provided the momentum. Therefore, the policy had the commercial ideology to express positive acceptance desire against economic principle and new one, and was compared with the ideology formed by agricultural base in the land.
- 7) Cheju Island traditional house, which had shown such a transformation shape, had the following features :
 - a) Classicism
 - b) Rationalism
 - c) Madang (yard) oriented centripetal space
 - d) Dynamic external space
 - e) Descent style space hierarchy